

엇갈린 국경, 길 잃은 민족들

-러시아와 동유럽의 사례-



엇갈린 국경, 길 잃은 민족들

러시아와 동유럽의 사례

동북아역사재단 편 32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발간사

동북아시아 지역은 예로부터 오랜 교류를 통해 선린우호의 관계를 유지하고 문화와 사상 그리고 문자를 상당 부분 공유해왔습니다. 반면에 문화적 자부심과 정치적 이유로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앞세워 때로는 서로 역사적 갈등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역사를 훼손하고 민족적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그 예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재단은 동북아 영토·역사현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국제적 공신력을 갖는 연구와 정책개발의 싱크탱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깊이 있는 연구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 이후 꾸준히 민간학계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학계의 연구 폭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를 보급하여 국민들의 역사인식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엇갈린 국경, 길 잃은 민족들-러시아와 동유럽의 사례』는 냉전의 종식과 소련이 와해됨에 따라 발생한 러시아와 인접국 간의 국경 분쟁과 민족 정체성 문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례분석의 방법론에 기초한 이 연구는 유라시아와 동북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고 있는 국

경과 민족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북아 영토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해를 거듭하여 성과로 축적된다면 우리 역사학계의 학문적 발전과 동북아의 영토·역사 갈등의 해소에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이 업적을 출간하면서 무엇보다도 본 재단의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주시는 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동북아 영토·역사 현안 등에 학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재단 자체의 연구뿐만 아니라 학계의 우수한 연구를 모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동북아역사재단은 영토·영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가 영토 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의 영유권을 공고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책머리에	9
● 러시아-폴란드 갈등의 역사와 국경 문제 이종훈	
I. 머리말	17
II. 모스크바 대공국 대 리투아니아 대공국 그리고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국가 : 14~17세기	23
III.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와 폴란드 분할 : 18~19세기	30
IV. 양차 대전 속의 러시아와 폴란드 : 20세기 전반과 그 이후	38
● 발트3국의 민족과 국경 문제 박자배	
I. 머리말	63
II. 발트3국 독립의 역사	64
III. 발트3국의 독립과 민족 문제	74
IV. 발트3국과 러시아의 국경 문제와 새로운 관계 정립	81
V. 맺음말	92
● 변경지역 칼리닌그라드의 역사 정체성 찾기 윤용선	
-탈경계 역사학적 시도	
I. 머리말	101
II. 초기의 역사서술	104
1_ '슬라브의 구토' 칼리닌그라드	105
2_ 칼리닌그라드의 '해방'	113
III. 과거에 대한 침묵	120
1_ 과거 없는 새로운 시작	120
2_ 초기 지역사 연구	122

3_ 『서쪽의 끝』	124
4_ 과거의 상징으로서 성터의 처리 문제	126
IV. 베일을 벗기 시작한 동프로이센 역사	128
1_ 구술사	133
2_ 새로운 잡지-정체성 찾기 포럼	135
3_ 새로운 주제와 개인 차원의 연구	138
4_ 조심스러운 개방	140
V. 맺음말	142

•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국경 분쟁 조준배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중심으로

I. 머리말	151
II. 지리적 배경	153
III. 분쟁의 역사	155
1_ 근대 이전의 나고르노카라바흐	155
2_ 제정 러시아와 러시아혁명 그리고 나고르노카라바흐	157
3_ 고르바초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161
4_ 소련 몰락 이후	167
IV. 해결 전망	175
V. 맺음말	177

• 중앙아시아의 민족 문제와 국경 분쟁 고영

I. 머리말	187
II. 중앙아시아 역사 개관	189
1_ 혁명 이전의 중앙아시아	189
2_ 소연방의 형성과 중앙아시아	192
3_ 농업집단화와 중앙아시아	195
4_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중앙아시아	199
III. 중앙아시아 민족정책과 재러 한인	201
IV. 중앙아시아의 국경 문제	206
1_ 중앙아시아와 인접국 간의 외부 국경 문제	207
2_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경 문제	217
V. 맺음말	229

• ‘대(大)세르비아’를 위하여 오승은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세르비아 팽창 민족주의

I. 머리말 : 유고슬라비아 해체, 포스트-유고슬라비아 국경선 문제 그리고 전면전	241
II. 역사적 배경 : 남슬라브인들의 공동국가 ‘유고슬라비아’	244
1_ 제1차 유고슬라비아의 탄생 : 준비 안 된 공동국가와 민족 갈등	247
2_ 제2차 유고슬라비아 : 티토와 민족 갈등의 불완전한 봉합	249
III. 와해되는 유고슬라비아와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대두	253
문제의 시작 : 시대착오적인 ‘대세르비아’주의의 재등장	255
IV. ‘서진하는 세르비아’ : 크로아티아에서의 전쟁	257
1_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동원과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들	258
2_ 전쟁의 발발	260
3_ 국경의 확립과 인종청소된 세르비아인	263
V. ‘서진하는 세르비아’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의 전쟁	265
1_ ‘작은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	265
2_ 전쟁의 발발	266
3_ 보스니아의 인종 분포	267
4_ 데이튼 평화협정과 보스니아의 실질적 분단	268
VI. 맺음말 : ‘대세르비아’에서 ‘축소된 세르비아’로	270
찾아보기	277

• 책머리에

냉전 종식 이후 역사연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연구의 대상이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미소 양극체제로 유지되던 냉전 구도가 소련의 와해를 계기로 붕괴됨에 따라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강해졌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주변 문제의 핵심은 국경과 민족 문제로 집약될 수 있는데, 이는 소련으로부터 다수의 신생 독립국가가 탄생함으로써 야기된 새로운 국경 획정과 민족국가 형성 과정의 산물일 것이다.

이 책은 러시아와 그 인접국의 사례를 다음의 6편의 글을 통해 살펴보았다. 러시아-폴란드 갈등의 역사와 국경 문제, 발트3국의 민족과 국경 문제, 변경지역 칼리닌그라드의 역사 정체성 찾기,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국경 분쟁, 중앙아시아의 민족 문제와 국경 분쟁,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세르비아 팽창 민족주의가 그것이다.

러시아와 폴란드의 국경 문제는 양국관계에 내재된 문명사적 측면과 더불어 복잡다단한 역사적 갈등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같은 슬라브 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폴란드는 동슬라브족과 서슬라브족을 각각 대표한다. 같은 그리스도교권이지만 러시아는 동방 정교회의 새로운 중심임을 자임해왔고, 폴란드는 서방교회, 즉 가톨릭교회의 첨병을 자처해왔다. 양국 모두 슬라브어권이지만, 러시아가 그리스문자를 변형한 키릴문자를 표기수단으로 고수해온 반면, 폴란드는 로마문자를 사용해

왔다. 따라서 양국의 경계는 비슷하면서도 같을 수 없으며, 서로 견제하는 두 문명권이 충돌하는 지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러시아와 폴란드 관계의 또 한 가지 복잡한 성격은 이것이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20세기 말에 독립국의 지위를 갖추게 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의 역사가 양국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터르크, 스웨덴, 독일 등 주변국의 역할과 영향이 작용해왔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 핍박 문제도 양국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 외에도 카자흐인들처럼 양국의 대립 속에 희생되고 이용당하며 소외된 여러 소수자 집단이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폴란드의 갈등과 국경 문제는 동유럽에 위치한 여러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창에 해당된다.

발트3국의 독립과 국경 문제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발트3국이 민족주의의 고양이라는 대내적인 문제와 자원 및 군사대국인 러시아와의 관계설정이라는 대외적 문제 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고찰하고 있다.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발트3국이 함께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발트3국은 독립을 계기로 민족주의가 고양됨에 따라 러시아와 여타 소수민족에 대한 시민권을 제한하고 모국어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러시아와 대립과 반목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대국 사이에 낀 신생 독립국인 발트3국은 인접국과의 대립만이 능사가 아님을 자각함으로써 공존의 방식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는 러시아와의 국경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트3국과 러시아의 국경 문제는 민족주의와 현실정치 간의 적절한 타협의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변경지역 칼리닌그라드의 ‘역사 정체성 찾기’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최근 들어 역사학계에서 ‘변경지역(border zon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쾨니히스베르크·칼리닌그라드(Königsberg·Калининград)는 과거 동프로이센의 북부지역으로서 약 7세기 동안 독일의 지배를 받아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패망과 함께 소련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 지역에서는 국가의 식민정책을 통해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과거의 지역 주민이었던 독일인이 떠나고, 러시아 이주민이 그들이 떠난 자리를 채웠다. 따라서 칼리닌그라드는 적어도 정치적 지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유한 지역 문화와 정체성의 지속적인 발전 없이 이질적인 문화가 시차를 두고 지배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칼리닌그라드는 민족국가에 기초한 연속적인 역사서술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변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오늘날 러시아의 작은 고립영토에 불과한 칼리닌그라드에 대한 역사서술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한 기존의 역사서술이 안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려는 탈경계 역사학(transnational history)이나 지구사(global history)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캅카스 지역에 위치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갈등은 냉전체제 이후 나타난 신생국들 간의 국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심각성의 초점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들이 민족과 국경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능력과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1988년부터 본격화된 양국 사이의 갈등은 소련이 해체된 1991년 이후 군대를 동원한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아르메니아가 전격적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과 인근 영토를 점령함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과 같은 역외 세력들의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는 단순한 지역적 민족분규를 넘어 국제적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문제의 해결 전망은 매우 어둡다. 우선 아

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인 정부가 내세우는 ‘민족자결권’과 아제르바이잔이 내세우는 ‘영토 보전’의 요구 사이에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지역의 인구구성 측면에서 보면 민족 자결권을 내세운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나 근대적 영토 개념을 앞세워 오랫동안의 점유권을 주장하는 아제르바이잔 측의 이야기도 충분히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유럽연합 등은 양측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양국이 일정한 양보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문제는 민족 정체성과 근대성, 위계적인 국제관계 등이 중첩되면서 냉전체제 해체 이후 신생국간의 국경 문제의 심각성을 노정시키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세르비아 팽창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냉전체제의 해체 과정에서 와해된 다민족연방 가운데 유독 유고슬라비아가 20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잔혹한 전쟁을 겪어야 했는지를 구명하고 있다. 공산주의 몰락 과정에서 소연방이나 체코슬로바키아 연방도 유고슬라비아와 마찬가지로 해체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같은 사회주의 연방인데도 체코슬로바키아는 평화적으로 해체되었고, 소련 역시 온 나라가 전쟁에 동원되는 전면전을 겪지는 않았다. 이 두 나라와 대조적으로 유고슬라비아는 2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처절한 내전을 겪어야 했다. 이는 유고슬라비아 구성 최대 민족이자 유고슬라비아의 형성과 발전뿐만 아니라 해체 과정과 해체 전쟁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세르비아의 팽창적 민족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모든 세르비아인을 한 나라에 살게 하자’는 세르비아 민족주의가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이라는 팽창주의적·공격적 민족주의로 변모한 것이 ‘인종청소’를 수반한 유고슬라비아 사태의 요체였다.

중앙아시아의 민족과 국경 문제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이 이슬람 원

리주의자들을 향한 대테러전을 감행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약 30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 나라들은 소연방에 편입되기 이전에 주로 유목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토착화된 영토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역사적으로도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운영한 경험도 없었던 바, 소련에서 정했던 경계선을 대체로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소련 정부는 범투르크주의의 확산 방지와 개별 민족 단위의 분리주의를 막기 위해 연방구성 공화국들이 인종적·문화적으로 단일하고 동질적인 구성을 갖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행정 경계를 설정했다. 소련 당국의 이러한 민족정책의 유산이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들에서 여러 민족이 자신의 민족에 해당하는 공화국에 배정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는 배경이 되었다. 소비에트 시기에는 이러한 인위적인 경계 구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독립 이후 이것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경과 민족 문제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요컨대 민족 간의 화합과 평등을 도모한 소련 시기의 소수민족정책은 소연방의 와해 이후 개별 독립국가들에게는 국경과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양날의 칼이 되고 말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경과 민족 정체성과 관련한 러시아와 인접국 간의 사례 연구는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전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고 있는 국경과 민족 문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그 해결 전망을 가늠해보는 학술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가 동북아의 역사 갈등과 영토 문제를 비교 연구하기 위한 자료의 축적과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09년 9월 3일

필자들을 대신하여 최 덕 규

러시아-폴란드 갈등의 역사와 국경 문제

서강대학교 이종훈

- I. 머리말
- II. 모스크바 대공국 대 리투아니아 대공국 그리고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국가 : 14~17세기
- III.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와 폴란드 분할 : 18~19세기
- IV. 양차 대전 속의 러시아와 폴란드 : 20세기 전반과 그 이후

러시아-폴란드 갈등의 역사와 국경 문제

서강대학교 이종훈

I. 머리말

러시아와 폴란드의 국경 문제는 양국의 오랜 갈등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양국 대립의 역사는 실로 연원이 깊고, 그 전개양상이 단순히 양국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복잡한 성격을 띤다. 이 글의 목적은 그러한 갈등의 오랜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양국에 대한 우리의 통념이 이 문제를 사실 위주로 균형 있게 파악하는 데 다소 방해가 될 수 있다. 양국관계가 우리에게 대체로 강대국 대 약소국의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주변 열강에 의한 폴란드 분할의 역사, 망국의 한을 지닌 채 이를 예술혼과 학문적 업적으로 승화시킨 쇼팽과 퀴리부인의 이야기 등이 우리가 지닌 약소국 폴란드에 대한 친숙한 상이다. 또한 가깝게는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 할 1939년 9월의 폴란드 협공의 주범이 상호 밀약을 맺은 히틀러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이었다. 120년 이상의 외세지배를 벗고 부활한 신생독립국 폴란드의 수명이 당시 최강의 두 군

사대국에 의해 단 20년으로 끝나는 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우리에게 약소국 폴란드와 강대국 러시아의 이미지가 형성된 것은 국가적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구한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다. 각국의 흥망사에 비상한 관심을 쏟아냈던 애국계몽시대의 간행물인 『파란망국사』와 『대피득전』의 내용이 당대인에게 수용된 양국의 대조적 이미지였을 것이다. 이보다 앞서 강대국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공포(恐懼)의식)을 안겨준 『조선책략』은 ‘지구 위에 더할 수 없이 큰’ 나라, ‘그 땅의 넓이가 3대주에 걸쳐 있는’ 나라, ‘육군 정병 100만과 해군 대함정 200척을 보유한’ 나라로 러시아를 묘사하고 있다. 만민공동회 개최 취지에도 강대국 러시아의 ‘탐욕’에 대한 국민적 각성 촉구가 있다. 그만큼 우리에게서 부단히 팽창정책을 추구해온 위험한 강대국 러시아와 이 과정에서 희생된 약소국 폴란드의 이미지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나폴레옹보다 200년 앞선 시기에 폴란드 왕이 군대를 보내어 모스크바를 2년 넘도록 점령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의 군주를 겸하려 했다는 사실, 바로 이를 포함한 10여 년 세월이 러시아인들에게는 ‘수난시대’의 일부였다는 사실, 공위(空位)시대에 러시아 차르로 물망에 오르는 인물의 소재 파악에 혈안이 된 폴란드 군대를 속여 삼림지대로 유인하고 죽음을 맞은 이반 수사닌이 구국의 영웅으로 미하일 글린카의 오페라 작품에서 소재가 된 사실은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 울 브린너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의 원작인 고골의 『타라스 불바』에서 우크라이나 드네프르강 유역의 카자크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대상이 바로 ‘오만한’ 지배자 폴란드였다는 점도 희미하게 기억된다. 그러나 폴란드가 러시아에 이러한 위협이 된 것은 상대적으로 오래전의 일일뿐이며, 그 이후로는 줄곧 러시아의 침략과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해왔다는 것이 또한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이 폴란드군의 침공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은 비단 17세기 초에 국한되지 않는다. 러시아 혁명에 뒤이은 내전으로 숨 돌리지 못하는 소비에트 러시아에게 마지막으로 최대의 위협이 된 것은 바로 신생국 폴란드의 군사적 대공세였다. 폴란드군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을 지원하며 혁명 러시아의 영토 깊숙한 곳까지 침입하여 키예프를 점령했다. 러시아혁명기의 민중저항과 투쟁을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자 한때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전’이 된 오스트롭스키의 자전적 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속에서도 바로 폴란드군의 침공과 ‘만행’이 시대배경을 이룬다. 이후 소비에트군의 대반격으로 바르샤바 코앞까지 쫓긴 폴란드군은 비수아 강변에서 기적적인 대공세를 감행하여 혁명 러시아로부터 재차 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이를 할양받는 조건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한다. 이처럼 20세기 초까지도 폴란드는 혁명 러시아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 당시 폴란드에게 잃어버린 영토를 찾겠다고 나선 것이 1939년 9월 소련의 폴란드 침공이다. 결국 이때 무력 점령된 지역은 소련 영토에 편입되었다(현재는 러시아나 폴란드 그 어느 쪽의 영토도 아니다). 한편 이 사건은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히틀러와 야합한 스탈린의 엄청난 도발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약 2만 명에 이르는 폴란드군 장교가 집단 사살되었고, 현재도 폴란드에서는 1939년의 무력도발과 포로 학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시켜준 일에 대하여 폴란드가 제대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 불만이다. 협력자였던 히틀러와 스탈린이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상전벽해의 변화 속에, 폴란드 침략의 주범이었던 소련은 어느새 폴란드 해방의 주역으로 변신한 것이다. 나치 점령하의 폴란드로 진격해오는 소련군의 속도를 가늠한 폴란드 저항세력은 소련군의 바르샤바 입성 전에 자력으로 수도를 해방시키고 1944년 8월 1일 무장봉기에 나서게 되었다. 여기서 붉은 군대는 진격을

멈추었고, 저항세력에게 지원용품 공중투하를 위한 연합국의 소련군 점령지 비행장 사용신청도 거부했다. 결국 ‘영웅적’ 무장봉기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60일 만에 나치에 의해 무참하게 진압되었다. 소련군의 ‘비협조’로 자국 저항세력의 궤멸을 겪어야 했던 폴란드인들의 이른바 ‘해방군’에 대한 시선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만하다(한편 소련군은 자국 영토 탈환을 위해 실 틈 없이 진격해온 터여서 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1920년 폴란드 침략군에 대한 대반격이 바르샤바 근교까지 ‘무한질주’처럼 이루어져 탈진한 나머지, 폴란드군의 역공세에 속수무책으로 패주한 것이 바로 붉은 군대가 불과 사반세기 전에 겪은 뼈아픈 교훈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는 유일한 해방군이 되어야 할 붉은 군대에 한 발 앞선 또 하나의 해방 주체를 소련은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진 이러한 오랜 갈등의 역사에 더하여 양국관계에 내재된 문명사적 측면과 복합적 성격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같은 슬라브 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폴란드는 각각 동슬라브족과 서슬라브족을 대표한다. 양국 모두 슬라브어 사용권이지만, 러시아가 그리스문자를 변형한 키릴문자를 표기수단으로 고수해온 반면에, 폴란드는 로마문자를 사용해왔다. 이러한 상이한 문자는 동서교회의 구별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같은 그리스도교권이지만 러시아는 비잔티움 제국의 정신적 후계자와 동방정교회의 새로운 중심임을 자임해왔고, 폴란드는 서방교회, 즉 가톨릭교회의 침병을 자처해왔다. 로마교황이 아직도 공식방문하지 못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인 반면, 로마교황까지 배출한 오랜 전통의 가톨릭교회를 가진 나라가 폴란드이다. 따라서 양국 경계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 문명사적으로 볼 때 비슷하면서도 다를 수 없으며, 서로 견제하는 두 문명권이 충돌하는 지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폴란드인들이 1920년의 대승리로 서방문명권을 수호했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도 이러한 문명사적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양국관계에 내포된 또 한 가지 복잡한 성격은 이것이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20세기에 독립국의 지위를 갖추게 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역사가 양국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또한 이러한 나라들의 등장으로, 칼리닌그라드 지역의 매우 제한적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러시아와 폴란드의 국경과 접경지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매우 상징적 의미를 지닌 듯 다가온다). 이 세 나라에 대하여 러시아 못지않게 폴란드도 맹주 행세를 해왔으며, 그러한 역사적 지위를 갖는다고 믿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투르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주변국의 역할과 영향이 작용해왔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어 ‘포그롬(погром)’으로 상징되는 유대인 핍박 문제도 양국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18세기 말 폴란드 분할로 이 지역에 거주하던 유럽 최대 규모의 유대인도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때부터 유대인 문제가 러시아 역사에서도 본격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유대인은 핍박 속에서도 많은 예술가, 학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수의 혁명가를 배출했다. 한편으로 샤갈과 파스테르나크의 작품에서 묻어 나오는 우수,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동지인 스탈린에 의해 제거된 트로츠키, 카메네프, 지노비예프 같은 볼셰비키 혁명가들의 좌절, 이런 것 없이 러시아 근현대사 설명이 가능할까? 러시아정교정신의 부활을 외친 솔제니친이 2001~2002년에 발표한 저작 『200년을 함께』는 폴란드 3차 분할 이후 러시아에서 살게 된 유대인의 활동과 그 영향을 다룬 것이다. 사실상 지도상으로 확인조차 쉽지 않은 서부 러시아의 촌락 ‘아나테프카’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이름의 뮤지컬과 영화를 통해, 핍박받던 평범한 유대인들의 애환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며 세인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를 거부한다(한편 1930년대와 1946년의 폴란드도 포그롬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카자크인들처럼 양국의 대립 속에 희생되고 이용당하며 소외된 여러 소수자 집단이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폴란드의 갈등과 국경 문제는 동유럽에 위치한 여러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창에 해당된다.

양국관계와 국경 문제에 대한 시대별 고찰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할 수 있다. 첫째, 14~17세기, 둘째, 18~19세기, 셋째, 20세기~현재이다. 이 세 시기를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4~16세기에서는 러시아-폴란드 양국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 리투아니아 문제가 주목을 끈다. 러시아의 문화적·종교적·제도적 영향이 지배적이었던 리투아니아 대공국이 모스크바 대공국과 경쟁하면서 폴란드 왕국과 점차 결속을 강화하여 연합국가체제로까지 발전한다(이후 폴란드를 18세기 말까지 엄밀히 말해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국가'를 지칭한다). 17세기 전·후반의 상황전개는 매우 대조적이다. 전반은 러시아의 시련시대인 동시에 폴란드에게는 황금시대의 최절정이다. 후반은 폴란드 압제하의 카자크인이나 우크라이나인의 저항 운동을 러시아가 지원하면서 그 지배영역을 성공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시기인 반면, 폴란드의 쇠퇴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다음으로, 18세기 전반이 폴란드 지배층의 내분심화로 외세개입이 초래되고 폴란드 국내정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18세기 후반은 주변 열강에 의한 영토 분할로 폴란드에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시기이다. 19세기는 폴란드가 유럽의 정치지도에서 사라진 시기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국경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 시대이다. 그런데도 19세기 초반에는 정복자 나폴레옹의 호의로 단명하게 유지된 '바르샤바 공국'과 나폴레옹 몰락 후 열강의 합의로 등장한 '폴란드 왕국'이 준독립국가의 성격을 유지하였고 새로운 경계가 설정된다. 그러나 1831년과 1863년에 러시아에 항거하는 무장봉기로 인하여 폴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일개 지방행정단위의 지위로 전락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로마노프 왕조 붕괴 이후 새로운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과제를 안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폴란드가 독립을 쟁취하는 20세기의 양

국관계는 주로 전반기에 강조점을 둔다. 러시아 혁명의 후속단계인 내전과 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양대 사건 사이에서 폴란드와 소비에트 국가와의 갈등과 국경 문제는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의 독립투쟁과 결부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폴란드와 혁명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혁명 러시아는 리투아니아와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한적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리투아니아 전쟁, 폴란드-우크라이나 전쟁도 전개되는 혼미한 상황이었다. 20년 뒤 양국은 다시 전면 충돌한다.

II. 모스크바 대공국 대 리투아니아 대공국 그리고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국가: 14~17세기

러시아와 폴란드는 모두 10세기 후반에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게 된다. 폴란드 왕 미에슈코는 966년에 로마가톨릭교도로, 러시아의 옛 국가인 키예프 공국의 지배자 블라디미르는 988년에 그리스정교도로 각각 세례를 받는다. 폴란드 역사에서는 그리스도교 국교화를 폴란드 국가와 역사시대의 시작으로 동일시하기도 한다. 옛 러시아인, 즉 루시인이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소국연합체제를 갖춘 것은 9세기의 일이다. 사실 폴란드의 경우도 9세기경에 이미 소국가들이 등장했다고 본다. 이러한 소국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을 ‘폴락’이라고 통칭하는데, 이는 슬라브어로 ‘들판의 사람’을 가리킨다. 흥미로운 것은 키예프에 국가를 건설한 루시인 최초의 부족명도 ‘폴라네’이다.¹⁾ 이렇게

1) Jerzy Lukowski and Hubert Zawadzki(2001), *A Concise History of Pol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4 ; Георг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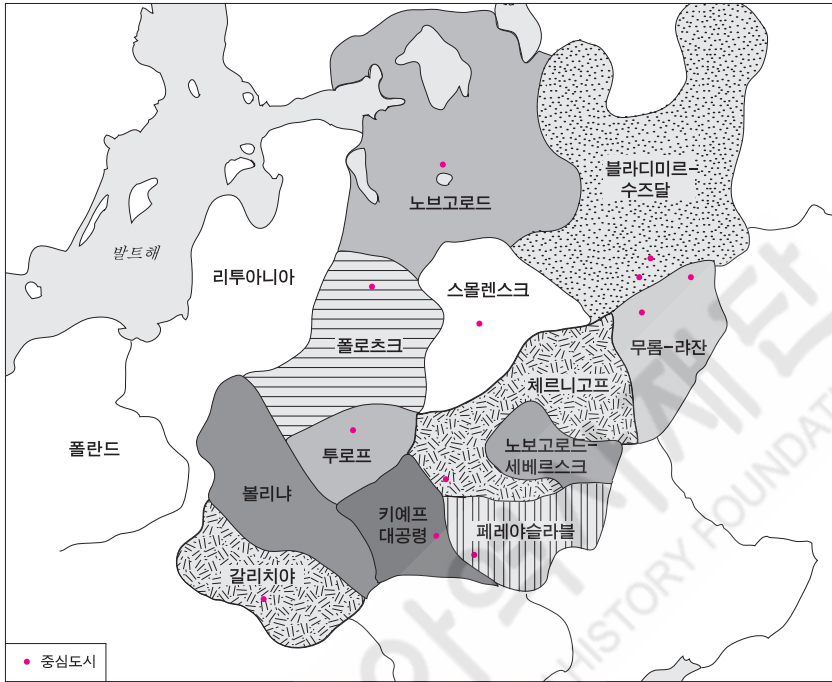


그림 1_ 소공국 연합체로서의 키예프 국가(12세기)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슬라브인들의 거주지가 주로 평원지대인 것은 기마 유목민의 침략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음을 말한다. 특히 13세기부터 본격화한 몽골-타타르 기병공격은 이 드넓은 지역에 대재앙을 초래한다. 키예프 공국은 그 전역이 초토화되어 궤멸된다(1240년). 폴란드의 경우도 외곽지대가 거센 공격에 노출되어 시련을 겪었다. 이 당시 몽골-타타르 공격의 예봉을 피할 수 있었던 사각지대의 하나인 발트해 연안에서 국가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리투아니아는, 슬라브족에도 그리스도교권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및 폴란드 양국 역사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긴밀한 관계를

Вернадский(1996), *Киевская Русь*, Москва : АГРАФ, с.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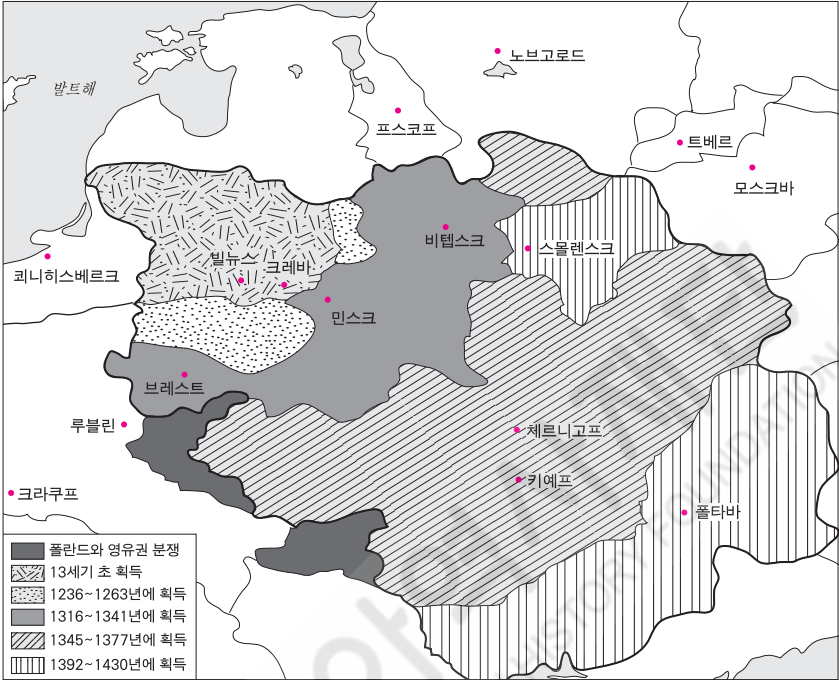


그림 2. 남동 방향으로 영토 확대를 이룬 리투아니아 대공국(13~15세기)

형성하게 된다.

첫째, 14세기 이래 몽골-타타르 압제의 굴레를 벗고자 했던 옛 러시아인, 즉 루시인의 역사는 모스크바 대공국과 리투아니아 대공국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²⁾ 전자의 경우 200년 넘도록 몽골-타타르의 금장한국에 정치적으로 예속된 가운데 공납대행 및 총괄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하여 옛 키예프 국가의 북동부에서 맹주가 되었다면, 후자의 경우 몽골-타타르의 지배가 70여 년 정도로 비교적 짧게 끝난 옛 키예프 국가의 남서부 지역을 향하

2) Георг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Вернадский(1997a), *Россия в средние века*, Москва : АГРАФ, с. 234.

여, 즉 발트해 연안을 기준으로 해서는 남동 방향으로 14세기 내내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특히 1362년에 키예프마저 장악하게 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보기에 따라서는 리투아니아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루시인이 참여하고 이글 어간 또 하나의 옛 러시아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발트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Międzymorze : 폴란드어로 바다와 바다 사이를 의미. 훗날 폴란드 제2차 공화국의 '연방파'의 표어가 되기도 함)에 위치했다.

둘째, 바로 이 리투아니아 대공국이 14세기 말 폴란드와 혼인동맹으로 단일 군주 아래 다소 느슨하게 통합되는 단계를 거쳐오다가, 16세기 중반부터는 좀 더 긴밀히 통합되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국가로 진화했다. 즉,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이전까지 인구구성, 문화, 종교 및 제도에서 러시아적 요소가 압도적인 하나의 러시아 국가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로는 정치·경제·군사·종교·문화·제도 면에서 폴란드의 영향이 압도적이고 그 관계가 점점 긴밀해진 폴란드 국가의 한 축이 되었다(이러한 변이 과정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반발하여 17세기 중반 모스크바의 지원을 받아 이탈하게 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카자크인들이다). 16세기 중반 이후 폴란드 분할의 18세기 말까지 200년 넘도록 '폴란드'란 바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국가'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 과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느슨한 상태에서 좀 더 긴밀한 결속관계로 그리고 양자 동등관계에서 폴란드의 우세로 움직여간 것은, 리투아니아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밖으로는 모스크바 대공국 및 러시아 차르 국가로부터의 압박과 안으로는 폴란드 지배계급의 압력이 양 방향에서 작용한 결과였다. 1385년 리투아니아 대공 요가일라가 폴란드와 크레바 동맹을 맺어 로마가톨릭을 받아들이고 이듬해 폴란드 여왕 야드비가와 결혼해 폴란드의 왕이 됨으로써,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한 통치자 밑으로 연합하게 되었다. 요가일라는 야기에우워(부아디수아프 2세)라는 폴란드식 이름을 갖게 되었고, 폴

란드 야기에우워 왕조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명목상으로는 폴란드 왕에게 예속된 리투아니아 대공령의 자치권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느슨한 연합에 압박을 가해온 것이 바로 이반 3세(1462~1505 재위) 치하에서 전성기에 이른 모스크바 대공국의 팽창이었다. 이반 3세는 2세기 넘도록 지속된 타타르의 굴레를 벗어던졌고 동로마제국의 계승자임을 표방했다. 그는 리투아니아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노브고로드와 트베르 공국을 각각 1479년과 1485년에 정복했다. 이후 모스크바 대공국과 리투아니아 대공국 사이에 벌어진 다섯 차례 전쟁(1492~1537)에서 후자가 연패하면서 불가피하게 폴란드로부터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1514년에는 리투아니아가 1세기 넘도록 영유해온 스몰렌스크가 함락되어 모스크바로부터의 위협이 더욱 심각해졌다. 이러한 상황이 대규모로 증폭되고 장기적으로 심화된 계기는 리보니아 전쟁(1558~1583)이었다.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이반 3세의 손자인 이반 4세였다. 1547년에 스스로 ‘차르’임을 선언하여 러시아 차르 국가 시대를 연 이반 4세는 동쪽으로 볼가강 중류 및 하류 일대의 카잔한국과 아스트라한한국을 정복한 뒤 서쪽으로 발트해 연안인 리보니아 공략에 나선 것이다. 리투아니아는 차르 국가에 맞서 리보니아 전쟁을 치르는 동안 물자가 고갈되어 결국 폴란드에 도움을 청했으나 폴란드 귀족계급은 두 국가가 진정한 의미에서 정식으로 통일된 상태는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지원을 유보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여 통합에 소극적인 리투아니아 귀족층을 압박하기 위하여 폴란드 왕 지그문트 2세 아우구스트(리투아니아 대공 1544~1572, 폴란드 왕 1548~1572 재위)가 리투아니아에 속해 있던 우크라이나 지역(키예프 일대, 볼리냐 등)을 폴란드에 합병시키자 리투아니아 지배층은 1569년 루블린 통합을 수용하는 길 외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통합 의정서에 따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공동으로 선출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단일 연합국가가 되었



그림 3 폴란드와 리투아니아(1387년)

다. 공식적으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별개의 동등한 국가로서 연방을 구성하고, 각각 독자적인 군대·재정·행정부·법률을 갖고 있으면서, 외교 문제는 서로 협력하며 합동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폴란드는 그들이 이미 점령한 우크

라이나 지역에 지배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합동의회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우세한 위치에 섰다.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 대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관계는 러시아 차르 국가 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국가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17세기 초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국가의 러시아 차르 국가에 대한 공세는 대대적인 것이었으며, 러시아는 문자 그대로 '시련의 시대'(또는 '동란의 시대')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다 17세기 중반부터 양국관계의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그 원인은 폴란드 내부 체제상의 문제에 있었으며, 또 하나의 문제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가톨릭교회 신앙의 강요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1572년 야기에우워 왕조가 몰락한 후 폴란드의 귀족계급은 유럽의 여러 왕가와 폴란드의 귀족 가문에서 왕을 선출했다. 이들은 일부러 유약하거나 무력한 인물을 왕으로 뽑았고, 그 결과 권력은 점차 이기적이고 논쟁적인 귀족계급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결국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국가는 이웃 강대국들이 활기를 되찾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점차 약화되었다.

앞에 언급하였듯이 1569년 루블린 협정 이후 우크라이나는 리투아니아에



그림 4_ 우크라이나를 장악한 폴란드 왕국
(현재 국명과 국경 위에 표시)

서 폴란드로 넘어갔다. 그런데 1596년 브레스트 교회 통합의 협정으로 인해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정교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가톨릭교도로 교회 분열이 야기되었다.³⁾ 종교적인 대립과 사회적 불화에 카자크인들은 불만과 위기의식을 느꼈다. 명목상으로는 폴란드 왕의 신하였으나 실상은 자유 용병 계층이었던 자포로제(드네프르강 하류) 카자크인들의 헤트만(군대 지도자)인 보흐단 흐멜니츠키는 1648년의 자포로제 요새를 거점으로 폴란드에 대항하여 봉기를 일으켰으며, 그 결과 그들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준독립국가를 이루었다.

흐멜니츠키는 이 봉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1654년 러시아 차르 국가의 알렉세이 1세와 협약(페레야슬라프 협약)을 맺었는데 러시아 측은 이를 자발적 복속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카자크의 봉기를 지원하여 폴란드에 적대하여 전개

3) Георг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Вернадский(1997b), *Русская История*, Москва : АГРАФ, с.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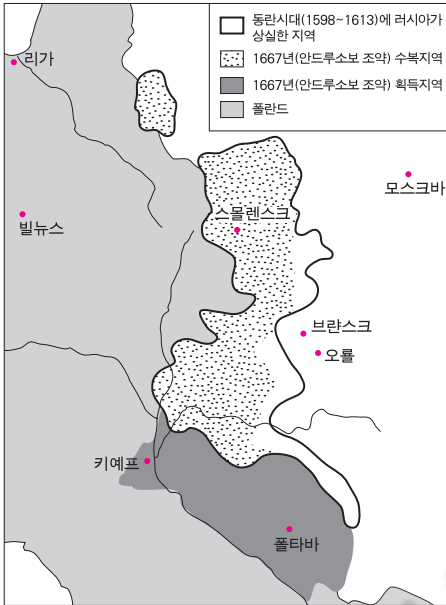


그림 5_ 1667년 러시아가 폴란드에게서 수복한 지역과 획득한 지역

한 차르 국가의 전쟁 결과, 폴란드-리투아니아는 키예프와 드네프르강 동쪽 영토에 대한 러시아 차르 국가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카자크의 자치조직체는 차츰 러시아에 흡수되었다(이후 300년이 지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이 통합을 기념하는 선심공세로 크림리아반도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관할로 변경시켰다). 결국 키예프 국가 소멸 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 차례로 예속되었던 우크라이나는 러

시아와 통합되었고, 어느 정도의 자치와 독립성을 보장받느냐 하는 문제가 항상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III.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와 폴란드 분할 : 18~19세기

18세기 말에 주변 3국에 의한 폴란드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에 국경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분할 이전까지의 양국관계가 우호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18세기 내내 폴란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확대되어, 폴란드는 마치 러시아의 보호령이나 다름없는 지위로

전략해가고 있었다. 두 차례 전쟁이 이러한 양상을 심화시킨 계기가 되었는데, 바로 대북방전쟁(1700~1721)과 폴란드 왕위계승전쟁(1733~1738)이다.

대북방전쟁은 러시아의 차르 표트르 1세가 ‘유럽으로의 창’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트해를 장악한 스웨덴의 패권에 대항하여 일으킨 전쟁이다. 여기에 폴란드 왕 아우구스트 2세가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트르 1세의 동맹으로 가세했던 이유는 당시 스웨덴이 갖고 있던 폴란드의 옛 영토인 리보니아를 되찾아 자신의 가문인 작센 가문의 소유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는 1700년에 리보니아를 침략했다. 그러나 1702년 7월 아우구스트의 군대는 크라쿠프 북동쪽에 있는 클리슈프에서 스웨덴 왕 카를 12세에게 패해 쫓겨났다. 1704년 7월에 폴란드의 한 파벌이 그를 폐위하자 아우구스트는 작센으로 도망쳤고 스웨덴은 1706년에 작센도 공략했다. 스웨덴의 카를 12세는 아우구스트에게 폴란드 왕위를 정식으로 포기시키고 스웨덴과 가까운 스타니수아프 레슈친스키를 폴란드 왕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알트란슈테트 조약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1706. 9). 그러나 자신의 동맹세력인 러시아가 폴타바 전투에서 스웨덴을 무찌르자 아우구스트 2세는 이 조약을 무효로 선언하고, 러시아 표트르 대제의 지원을 얻어 자신을 폴란드 왕위에 다시 앉히도록 폴란드 의회에 강요했다(1710). 러시아는 폴란드에서 아우구스트와 반대파 귀족들 사이의 분쟁에 개입(1716~1717)하면서 폴란드 내정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표트르 1세는 1720년에 아우구스트 2세가 노리던 리보니아를 병합하고, 이듬해 스스로 ‘차르’ 대신 ‘임페라토르’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과거의 러시아 차르 국가도 이제 러시아 ‘임페리아(제국)’임을 천명하여 전승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했다.

반면에 아우구스트 2세는 대북방전쟁 개입으로 폴란드 경제를 황폐화시켰으며, 국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는 의회가 선출하던 폴란드 왕위를 세습제로 만들어 자신의 유일한 적자(후일의 폴란드 왕 아우구스트 3세)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강력한 군주국을 세우려 했으나 커다란 대가를 치른 셈이 되었다. 그의 통치가 끝날 무렵, 폴란드는 유럽의 주요 강대국에서 러시아의 일개 보호국으로 전락했고, 그가 죽자 폴란드 왕위계승 전쟁이 일어났다.

1733년 2월 1일 아우구스트 2세가 죽은 후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와 공동보조를 취하며 서거한 왕의 아들인 아우구스트 3세가 폴란드의 왕에 선출되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폴란드인들은 스타니수아프 1세 레슈친스키를 더욱 선호했다. 레슈친스키는 스웨덴에 의해 아우구스트 2세가 일시적으로 권좌에서 물러나 있던 1704~1709년에 폴란드의 왕을 지냈으며, 프랑스로이 15세의 장인이기도 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모두 오스트리아-러시아의 입장에 반대했으며, 1733년 9월 12일 바르샤바에서 1만 2000명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폴란드의 왕으로 선출된 레슈친스키를 지지했다. 그러나 3만 명의 러시아 군대가 바르샤바로 진군해오자 레슈친스키는 그다인스크로 달아났으며, 3,000명의 대표로 구성된 또 다른 의회가 같은 해 10월 5일 아우구스트를 폴란드의 새로운 왕 아우구스트 3세로 선출했다. 폴란드 문제에서 러시아의 입장은 다시 한 번 강화되었다.

이후 폴란드는 내부 분열 상태를 겪으며 열강의 영토 침략에 속수무책이었다. 1772년 8월 5일 러시아·프로이센·오스트리아 3국은 폴란드 분할협정에 서명했다. 1773년 9월 30일 폴란드 의회에서 비준한 이 협정으로 폴란드는 인구의 거의 절반과 국토의 약 3분의 1을 잃었다. 러시아는 드비나·드루트·드네프르강 유역 동부에 있는 대부분의 폴란드 영토를 차지했고 프로이센은 그다인스크시와 톨룬시를 제외한 경제적인 가치가 뛰어난 왕령 프로이센 지역을 비롯하여, 대폴란드(빌코폴스카) 북쪽지역을 확보했다. 오스트리아는 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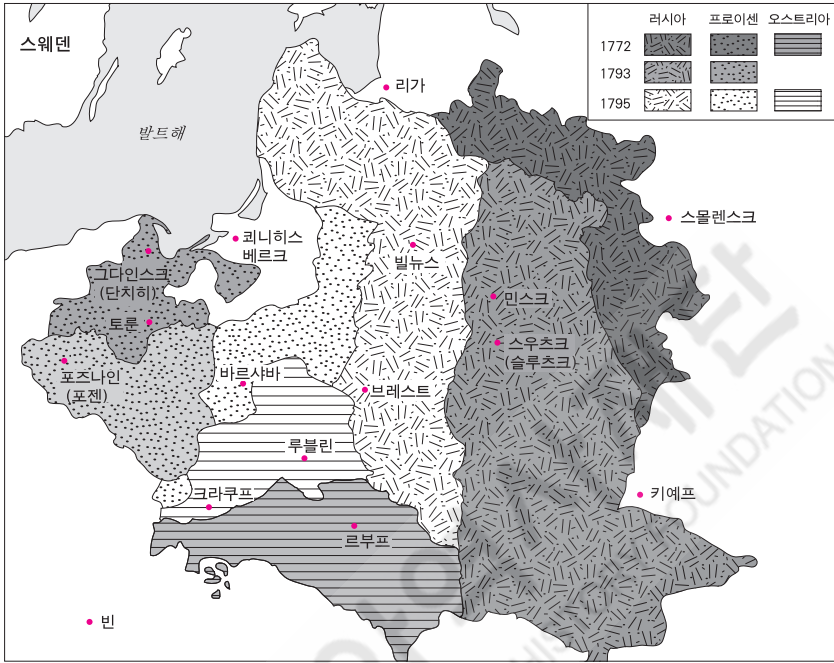


그림 6_ 1·2·3차 폴란드 분할 (1772, 1793, 1795)

아강 남부의 소폴란드(마우오폴스카), 서부 포돌레, 갈리치아 지역을 점령했다.

이로부터 거의 20년 후 프랑스혁명을 전후해 폴란드는 내부개혁을 통해 국력신장을 도모하면서 진보적인 헌법을 채택했다(1791. 5. 3). 그러나 이에 반대한 수구보수세력은 타르코비차 동맹(1792. 5. 14)을 결성하고 러시아가 폴란드의 옛 헌법 회복을 위해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러시아는 이를 수락했고 프로이센도 폴란드에 군대를 파견했다. 양국은 1793년 1월 23일 폴란드의 제2차 분할에 합의했다. 폴란드 의회는 러시아 군대에 포위된 상태에서 1793년 8~9월 분할 합의를 승인했다. 제2차 분할로 러시아는 포돌레와 볼리냐 일부 지역을 포함한 서부 우크라이나와 리투아니아의 벨라루스 지역을 얻었고 프로이센은 대폴란드와 마조비아 일부, 그다인스크, 토룬시도 이때 흡수했다.



그림 7. 바르샤바 공국(1807)



그림 8. 폴란드 의회 왕국(1815)

제2차 분할에 대해 폴란드 장교 타데우슈 코시치우슈코는 전국적인 봉기를 일으켰다(1794. 3~11). 러시아와 프로이센은 이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침입하여, 1795년 10월 24일 오스트리아와 합세해 폴란드의 나머지 영토에 대한 제3차 분할을 결정했다. 1797년 1월 26일에 합의된 제3차 분할의 결과, 러시아는 쿠를란트, 리만강 동부의 리투아니아 영토, 우크라이나령 볼리나의 나머지 영토를 차지했다. 프로이센은 바르샤바를 포함한 마조비아의 잔여 영토, 니만강 서부 리투아니아 영토를 얻었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크라쿠프 북동쪽에서 북(北)부크강 지역까지 소폴란드의 나머지 부분을 점령했다.

나폴레옹 몰락 후 개최된 빈 회의는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가 폴란드 의회 왕국의 군주를 겸하는 가운데 폴란드의 자치를 보장했다. 아울러 폴란드의 새로운 경계 속으로 이전까지 프로이센이 장악했던 바르샤바가 포함되었다. 또한 알렉산드르 1세가 부여한 자유주의헌법(1815. 11. 27)에는 독자적인 행정부와 의회 및 군대 그리고 통화(通貨)를 갖도록 되어 있었으며 광범위한 시민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1830~1831년에 폴란드가 봉기를 일으킨 뒤,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는 폴란드 왕국의 헌법을 기본법으로 바꾸었는데, 이 기본법

은 폴란드 의회 왕국과 러시아 황제의 결합을 더욱 강화하고 폴란드 의회와 군대를 해산하도록 했다. 또한 니콜라이 1세는 폴란드인들에게 군사독재를 실시했다. 1863년 또다시 봉기가 일어나자,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는 폴란드 의회 왕국을 러시아 제국의 현으로 격하시키고 강력한 러시아화 정책을 시행했다. 폴란드 의회 왕국의 이름도 비수아 현으로 바뀌었으며,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 총독의 지휘를 받는 군민(軍民) 연합정부로 개편되었고, 주요 관리들은 러시아인으로 임용되었다. 1905년 러시아 제1차 혁명 당시, 30% 정도의 전국적 파업률 속에서도 유독 폴란드 지역에서만 90%의 파업참가율을 보인 것은 러시아의 강압통치에 대한 폴란드인의 반감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던져준다.⁴⁾

폴란드 분할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유대인 문제였다. 물론 폴란드 분할 이전에도 러시아 정치에서 유대인 문제가 있었다. 엘리자베타 여제는 정교도로 개종시킬 수 없는 유대인을 러시아에서 추방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제 폴란드의 옛 영토와 더불어 여기에 거주하는 대다수 유대인 집단이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됨으로써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폴란드 분할을 주도해온 예카테리나 대제는 유대인을 간단히 추방할 수도 없었고, 이들에 대한 정교도의 거부감을 고려할 때 러시아인과 자유롭게 접촉하며 살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없었다. 1791년 여제는 모길료프주, 폴로츠크주 등 벨라루스 지역과 흑해 연안 지역(타브리드, 예카테리노슬라브)을 유대인 집단 거주지역으로 포고령을 내렸다. 이후 1794년에는 우크라이나 지역(키예프, 볼리나, 포돌레) 및 벨라루스 일부 지역(민스크)이, 1795년에는 리투아니아 지역(빌뉴스, 그로드노)이 포함되었다(이렇게 형성된 유대인 집단 거주지역은 러시아 제국이 몰락할 때까지 존속하다가 1917년 임시정부에

4) 임지현(2000), 『그대들의 자유, 우리들의 자유. 폴란드 민족해방운동사』, 아카넷, 278쪽.



그림 9_ 유대인 집단 거주지역

의해 폐지되었다).⁵⁾

19세기에는 계속적인 포고령 발표로 유대인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받거나, 토지를 임차할 권리나 양조업 운영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니콜라이 1세 치하에서 유대인들은 군복무 면제의 명목으로 2배의 세 부담을 져야

5) Simon Dubnow(1916), *History of the Jews in Russia and Poland: from the Earliest Times until the Present Day*, tr. from the Russian, Philadelphia :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pp. 314~320.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수 유대인이 군에 징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복무 중에 개종을 강요받기도 했다. 이처럼 권리를 크게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90% 정도의 유대인이 집단 거주지역 내에서 빈곤한 삶을 영위했다(이 지역 유대인의 삶과 애환을 그려낸 유대인 작가가 솔름 알레이힘이다. 그의 작품은 훗날 미국에서 유명해진 뮤지컬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모태가 되었다). 유대인들은 차르 알렉산드르 2세로부터 어느 정도 권익향상의 조치를 받았지만, 1881년 차르 암살의 배후가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풍문에 시달리면서 약 3년간 무자비한 포그롬의 테러와 박해에 노출되었다. 새로이 등극한 차르 알렉산드르 3세는 반유대주의 정서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유대인에 대한 부왕의 진보적 조치를 무효화했다. 1881년의 관련규정에는 집단 거주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유대인 사회가 형성되는 것을 엄금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리고 집단 거주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정교도가 살고 있을 경우 유대인들을 내쫓을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었다. 또한 1891년에는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에 예외적으로 거주해왔던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추방령이 떨어졌다.

이러한 정치권력에 의한 박해가 위로부터 가해졌다면, 적대적인 사회여론이 아래로부터 작용했다. 유대인은 러시아 정교문화의 적으로, 파괴적 허무주의의 신봉자로 매도되었고, 심한 경우에는 러시아 자녀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로 매도되기도 했다. 한때 곤경에 처한 유대인에게 동정적이었던 여론마저도 적대적인 여론 또는 문제 해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지 않는 냉담한 여론으로 변화되어 1881년의 포그롬을 촉발시켰다.⁶⁾ 상당수 유대인들이 러시아 제1차 혁명기(1905~1907)에 또 한 번 테러의 광풍을 맞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6) John Doyle Klier(1995), *Imperial Russia's Jewish Question, 1855~1881*,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455.

일부 유대인들이 혁명에 적극 참여했다. 이미 유대인들 속에서 많은 급진주의 자들과 혁명가들이 배출되고 있었다.

IV. 양차 대전 속의 러시아와 폴란드 : 20세기 전반과 그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은 러시아에 혁명을 가져왔고 폴란드에는 국가 부활, 즉 독립을 가져왔다. 세계대전은 종료되었으나 러시아는 외국 간섭 세력 및 백군 세력과 무력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신생독립국 폴란드는 아직 국경선이 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의 혼란을 틈타 옛 폴란드 왕국의 영토였던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을 되찾으려고 했고, 이로 인해 소비에트 러시아와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 민족주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와 충돌하기도 했다. 폴란드가 정식으로 독립선언을 하기 열흘 전인 1918년 11월 1일 동부 갈리치아 지역에서 ‘서부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수립선언이 있자 폴란드인들은 경악했다. 이 지역 주민의 다수는 분명히 우크라이나인이지만, 폴란드인들은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폴란드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열 달 전에 독립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과 함께 2개의 우크라이나 국가가 존재하게 되었다. 폴란드는 독립과 동시에 서부 우크라이나와 전쟁상태에 들어갔다. 결국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의 대 소비에트 러시아 투쟁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양해하에 갈리치아 지역을 자국 영토로 만들 수 있었다.

폴란드는 국가수반이자 총사령관인 피우수드스키 지휘하에 프랑스와 영국

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접경지대에 총 23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1919년 2월에 한때 붉은 군대에 잠시 밀리기도 했으나 네만강에서 벌어진 결전에서 결국 승리하였고, 빌뉴스에서 전투를 해 10월까지 드비나강까지 진격했다. 이 당시 한편에서는 혁명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리투아니아 독립전쟁이 전개되었다.

볼셰비키는 1919년 1월 벨라루스 인민공화국을 침공하기 시작했다. 독일 제국의 지원하에 수립된 벨라루스 인민공화국 정부는 망명해야 했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1919년 2월 말 리투아니아-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대립을 이용하고 벨라루스와 통합국가를 형성하여 폴란드 침공에 대비하려 했으나, 리투아니아를 장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한 달 만에 이를 해체했다.

1920년부터 붉은 군대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특히 리투아니아와 강화협정을 체결한 볼셰비키는 70만에서 80만으로 증강된 병력 일부를 폴란드 방면으로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변화를 과소평가한 피우수드스키는 당시 폴란드에 망명해 있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지도자 페틀류라와 동맹을 결성하여 폴란드-우크라이나 경계를 현 수준에서 상호 인정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반소비에트 독립투쟁 지원을 약속하고, 폴란드군에 4월부터 반격을 지시해 5월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점령했다. 그러나 북부전선에서는 붉은 군대가 승리하게 되자 폴란드군은 후퇴했다. 아울러 남부전선에서도 키예프를 포기하고 계속 후퇴했다. 붉은 군대는 7월 14일에는 빌뉴스를 점령하고 무한질주하듯이 진격하여, 8월 2일에는 바르샤바 인근 100km 지점까지 도달해 신생국 수도를 일순간에 점령할 태세였다.

그러나 오랜 추격으로 지친 붉은 군대의 허를 찌르는 폴란드군의 대반격이 8월 14일 비수아 강변에서 시작되어, 폴란드군은 8월 17일에는 리비우에 시

작으로 10월 중순에는 벨라루스의 민스크까지 진격했다. 바르샤바 전투 이후 볼셰비키는 정전협정을 제의하였으며, 폴란드는 국제연맹의 압력으로 인해 협상에 응한다. 10월 12일에는 협정을 체결했고, 이 협정은 10월 18일에 발효되어 전투행위는 종료되었다.

볼셰비키의 권력 장악에 이어 전개된 러시아의 내전 속에서 신생국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적대해온 러시아로부터 구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국가 영토의 전면수복을 노렸다. 한편 혁명 러시아는 필요할 경우에는 무력행사를 통해 서라도 서방에 혁명을 전파하려고 했다. 볼셰비키로서는 폴란드 집령이 독일 공산주의자들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독일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교두보 구축의 의미를 지녔다. 키예프까지 기세등등했던 진격에도 불구하고 볼셰비키의 반격으로 바르샤바까지 후퇴하여 패색이 짙었던 폴란드가 비수아강 저지선으로부터의 대반격작전에 성공하자 혁명 러시아는 다급하게 강화를 제의해왔다⁶이 점에서 역사가 풀러(J. F. C. Fuller)는 가장 의미심장한 전투의 하나로 바르샤바 전투를 꼽는다.

강화회담은 1920년 8월 17일 민스크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폴란드의 군사적 공세가 강화되어 회담은 리가로 장소를 옮겨 9월 21일에 재개되었다. 정전협정은 10월 12일 체결되어 10월 18일 발효되었다. 그 후 강화조약 체결까지 양측 강경파의 반대로 지체되었으나 폴란드의 경우 자유주의자들과 국제연맹의 압력, 그리고 혁명 러시아의 경우 국내 사정 불안(크론슈타트 수병 봉기, 각지의 농민봉기)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1921년 3월 18일에 조인이 이루어졌다(레닌으로서는 서유럽으로의 혁명수출을 일시 단념해야 했으므로 이 조약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이것이 리가 조약(Treaty of Riga 1921. 3. 18/Russian : Рижск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 Rihzsky mirny dogovor/Polish : Traktat Ryski)이다.

리가 조약에서 폴란드는 커즌 라인(the Curzon Line)⁷보다 동쪽으로 약 13만



그림 10_ 리가 조약(1921. 3. 18)으로 결정된 폴란드 국경

5000km² 정도의 영토를 획득했다. 이는 커즌 라인에서 평균 200km 더 동진(東進)한 규모였다. 더불어 폴란드는 이 범위 안에 존재하는 2개의 주요 도시 르부프(Lwów)와 빌뉴스(Wilno-Vilnius)를 획득했다.

조약 결과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혁명 러시아와 폴란드에 의해 분할되

- 7) 커즌 라인이란 폴란드와 혁명 러시아가 교전 중이던 1919년 12월 영국 외상 커즌(George Nathaniel Curzon)이 휴전선으로 제시한 것이다. 전황의 유불리에 따라 커즌 라인은 처음에는 볼셰비키가 거부하고, 그다음에는 폴란드가 거부했다. 따라서 1921년 폴란드-소비에트 국경을 정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경계는 폴란드가 벨라루스 및 우크라이나 두 나라와 맞닿는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1939년 나치 독일과 소련의 폴란드 분할점령 경계도 이와 거의 일치한다). 북부의 비아위스토크(Białystok)와 갈리치아 남부를 잇는 선이다. 역사가들의 통념으로는 이 경계가 이 지역의 종족구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본다. 일부 역사가는 단지 외교적·역사적 의미만 인정할 뿐 종족구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그림 11_ 우크라이나 2개국 병존(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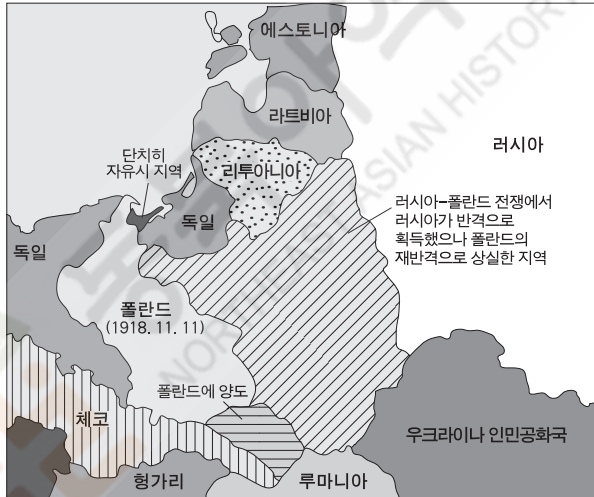


그림 12_ 대 폴란드 동맹의 대가(1919)

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이기도 했다. 페틀류라가 영도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1920년 바르샤바 조약 이래 폴란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볼셰비키 정권에 투쟁



그림 13_ 서부 우크라이나 소멸(1919)

을 전개한 군사동맹이 리가 조약으로 배신당했다고 분개했다. 폴란드의 연방파 영수인 피우수드스키는 조약을 후안무치하고 근시안적인 정치적 계산으로 간주하였고, 초조하게 조약 결과를 기다리던 우크라이나 독립추진 세력인 사들에게 깊이 사과해야 했다[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훗날 1930년대 우크라이나에 가해진 모스크바 정부의 가혹한 조치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주민이 겪은 고통(특히 대기근)의 근원도 리가 조약으로 상징되는 폴란드의 배신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1921년 말에는 폴란드에 머물던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 출신 병사들이 절망 속에 폴란드 국경을 넘어 혁명 러시아에 투항하거나 군사적으로 분쇄당하기도 했다. 리가 조약은 결국 폴란드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와의 동맹 의무 이행과 독립 지원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련의 독립국으로 동유럽 동맹[Eastern Europe alliance(Międzymorze)]을 구축하려던 피우수드스키의 구상에 차질을 가져왔고, 더 나아가 폴란드-우크라이나 관계를 악화시켰다. 이후 1930~1940년대 폴란드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과 폴란드인 사이의 분규가 경제위기 속에 확대되는데, 그 심리적 기저에는 양 주민 사이의 반감, 특히 우크라이나인의 폴



그림 14. 리투아니아-폴란드 양국의 영토 분쟁(폴란드 영토 내 사선 부분이 리투아니아의 영유권 주장 대상지역)

란드에 대한 배신감이 작용하였다고 해석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폴란드는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도로 주장하는 빌뉴스를 차지함으로써 폴란드-리투아니아 양국관계 역시 악화시켰다. 1920년 폴란드군은 이 도시를 장악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 후퇴하는 소비에트 권력이 도시에 대한 통제권을 리투아니아 사람들에게 넘긴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리투아니아인들이 폴란드와의 동맹을 회피하고 국가 간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폴란드 정부는 켈리고프스키 장군 휘하의 폴란드군 부대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도록 밀명을 내린 뒤 이를 진압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1920년 10월 9일 도시에 대한 통제권을 폴란드군에게 부여했다. 국제연맹은 폴란드군의 철수를 결의했으나, 폴란드는 이



그림 15. 좌절된 볼셰비키의 구상. 리투아니아-벨라루스 공화국(굵은 선 안쪽)

를 거부했다. 한편 프랑스로서는 독일과 혁명 러시아 양쪽 모두에 대항할 수 있는 동맹세력으로 폴란드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국제연맹이 더 이상 강력한 촉구를 하지 않도록 했다. 폴란드는 일종의 괴뢰정부인 중앙리투아니아 공화국을 수립시켜 도시를 장악했다. 그 후 주민투표와 빌뉴스 시의회 의결(1922. 2. 20)로 폴란드 귀속이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폴란드-리투아니아 양국관계는 20년 이상 악화되었고, 아직도 양국 간에 양금이 가지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피우수드스키가 제창한 동유럽 연방(Międzymorze) 결성을 좌초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편 리가 조약으로 인하여 폴란드는 동부 국경의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1, 2차 폴란드 분할 당시 러시아 제국에 양도

된 지역의 완전수복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스우츠크(Stuck-Слущк, 벨라루스 민스크 남방 100km 위치) 및 지토미에슈(Zytomierz-Житомир,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도시가 포함되었다. 이 두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약 100만에 육박하는 폴란드인이 상대적 소수자로 혁명 러시아에 남게 되었다. 리가 조약으로 인해 이들에게 자치가 인정되었으나, 결국 이들은 소비에트 권력의 가혹한 보복 대상이 되었다. 토지 및 임야 몰수, 1923~1924년 치에플라크(Jan Cieplak) 주교 억류-추방 사건 같은 종교탄압 그리고 1931~1934, 1935~1940년에 대대적으로 가해진 폴란드인 약 12만의 카자흐스탄 지역으로의 강제이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⁸⁾

끝으로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이후의 폴란드-소련 국경 문제가 있다. 1939년 소련의 폴란드 침공은,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 후 16일 뒤인 9월 17일 정식 선전포고 없는 군사작전으로 시작되어 소련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사실 소련은 1939년 초 나치 독일에 대항하여 영국, 프랑스, 폴란드, 루마니아와 함께 군사동맹을 구축하려고 했다. 그러나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집단 안보를 위해 소련군의 자국 내 영토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시도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소련은 독일에 대항하는 입장에서부터 선회하여 8월 23일 나치 독일과 협정을 체결했다.⁹⁾ 소련 정부가 밝힌 군사작전의 명분은 독일의 공격으로 인한 폴란드 국가 붕괴사태에 직면하여 폴란드 동부지역의 우크라이나인과 벨라루스인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었다.

8) 반면에 리가강을 경계로 폴란드령에 거주하게 된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 유대인 등 소수자들은 이후 17년 정도 소비에트 통치를 면함으로써 재산권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에서 인종(종족)분규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대공황의 영향 속에 종족 갈등 양상이 현저해지기도 했다.

9) 이 주제에 관해서는 황동하(2006), 『필사적인 포용 : 독·소 불가침조약(1939. 8. 23)과 소련 측의 동기분석』, 한국학술정보 참조.



그림 16. 『이브닝 스탠다드』(1939. 9. 20일자)에 게재된 데이비드 로의 폴란드 침공 풍자 만평 '람데부'

소련군은 폴란드군의 저항을 병력 및 장비 면에서 압도하면서 작전 목표를 신속히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 군인 최소 20만 명 이상이 소련군의 포로가 되었다. 아울러 소련은 폴란드를 나치 독일과 분할 점령함으로써 방대한 영토를 획득했다. 점령된 폴란드 동부지역 중 비아위스토크, 우옘자, 바라노비체, 브레스트는 벨라루스 소비에트 공화국에 귀속되었다. 한편 르부프, 타르노폴, 루츠크, 로브네, 스타니수아부프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에 귀속되었다.

한편 폴란드가 합병했던 빌뉴스 및 인근지역은 소련에 의해 리투아니아에 귀속되었다. 소련은 나치 독



그림 17. 독일과 소련의 폴란드 분할 점령 (1939. 9. 28 군사분계선)



그림 18. 벨라루스 인민해방의 미명으로 정당화된 소련군의 폴란드 침공 선전 포스터

였다(이날 격분한 폴란드계 주민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듬해 리투아니아는 소련에 병합되어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재편되어 1990년 독립 투쟁에 이르도록 주민 강제이주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리투아니아가 폴란드-소비에트 러시아 전쟁과 같은 시기에 전개된 폴란드-리투아니아 전쟁에서 상실했던 빌뉴스를 1939년 소련의 선심으로 돌려받게 됨에 따라 1990년 이후 자연스럽게 빌뉴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가 된 것이다.

소련은 1939년 11월에 1,350만 폴란드인이 이제 소비에트 인민이 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1939년 10월 26일 벨라루스 및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회의 대의원 선거가 조직되어 새로운 영토 병합을 추인했다. 특히 점령지의 벨라루스인과 우크라이나인은 폴란드 정부의 동화정책으로 소외감

일과 폴란드 점령과 관련하여 모스크바에서 우호-협력-분계 조약 체결(1939. 9. 28)을 하자마자 곧이어 리투아니아 상호 원조협정을 체결했다(1939. 10. 10). 여기서 소련은 리투아니아 영토에 소련군 주둔 및 기지보유 권리를 보장하라고 압박하면서, 회유책으로 빌뉴스 및 인근지역(서부 빌뉴스 지역)을 리투아니아에 양도했다. 10월 28일 소련군이 빌뉴스시 외곽 지대로 철수하는 선심 제스처를 취하자, 다음날 리투아니아 정부는 빌뉴스 중심가에서 군사퍼레이드를 벌

을 느꼈고, 분리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탄압받아왔기 때문에 기존의 폴란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거의 없었다. 소련 정치국이 ‘해방작전’이라고 강변한 붉은 군대의 폴란드 침공은 수백만의 폴란드인, 서부 우크라이나인, 서부 벨라루스인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과 벨라루스 소비에트 공화국에 편입시켰다. 소비에트 정권은 점령지인 서부 벨라루스와 서부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강제적인 농업집단화를 비롯한 소비에트화 정책을 신속하게 실시했다. 아울러 소비에트 당국은 1920년대 이래로 폴란드 정권에 활발히 투쟁해온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까지 탄압했다. 이들의 활동은 하나의 통합된 우크라이나 독립국가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 인민으로 새로이 편입된 1,350만 중에서 폴란드인이 최대의 단일 민족 집단이었으나, 벨라루스인과 우크라이나인이 주민의 50%를 넘도록 하는 주민구성이 시도되었다. 더불어 소련은 폴란드인 저항세력을 처형하고 수천 명을 체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1939~1941년 동안 크게 4차에 걸쳐 수십만의 폴란드인을 시베리아 및 소련 내 다른 오지로 강제 이송했다. 소련의 폴란드 침공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성립한 폴란드 인민공화국하에서는 매우 미묘한 문제로서 거의 금기시된 주제가 되어 동유럽 사회주의 블록의 ‘영원한 우정’을 해치지 않도록 공식적 역사서술에서는 빈번히 누락되었다. 아울러 이른바 ‘카틴 숲 학살’이라고 불리는 폴란드 포로 문제 거론도 금기시되었다.

소련의 강력한 주장으로 1943년 테헤란 회담의 결정에 뒤이어 1945년 폴란드-소련 국경은 다시 획정되었다. 이 시기 스탈린은 연합국 수뇌회담에서 커즌 라인을 심분 활용했다. 즉, 소련은 20년 전에 커즌을 통해 영국 정부의 재확약을 받은 것보다 더 적은 영토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동부 지역 중 비아위스토크 지역을 제외한 1939년 점령지역은 소련에 영구 병합되었고 대다수 폴란드 주민은 추방되었다. 이 점령지는 오늘날 벨라루스, 우크



그림 19. 커즌 라인

라이나, 리투아니아 영토의 일부를 이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국 국경의 변화는 20세기의 종말을 10년 앞둔 시점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듯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전개된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과 1985년부터 본격화된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1989년의 동유럽 민주화와 1991년 발트해 연안 3국의 독립과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로부터 파생된 놀라운 변화는 러시아-폴란드 국경의 소멸이다. 예외적으로 러시아 본토에서 격리된 칼리닌그라드주만 폴란드와 접경한 206km의 유일한 국경이 되었다. 오랜 양국 국경의 변화를 지켜보며 느끼는 감정은 더욱 놀랍다. 옛 독일령인 동프로이센 지역을 양국이 나누어 가진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인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일이다. 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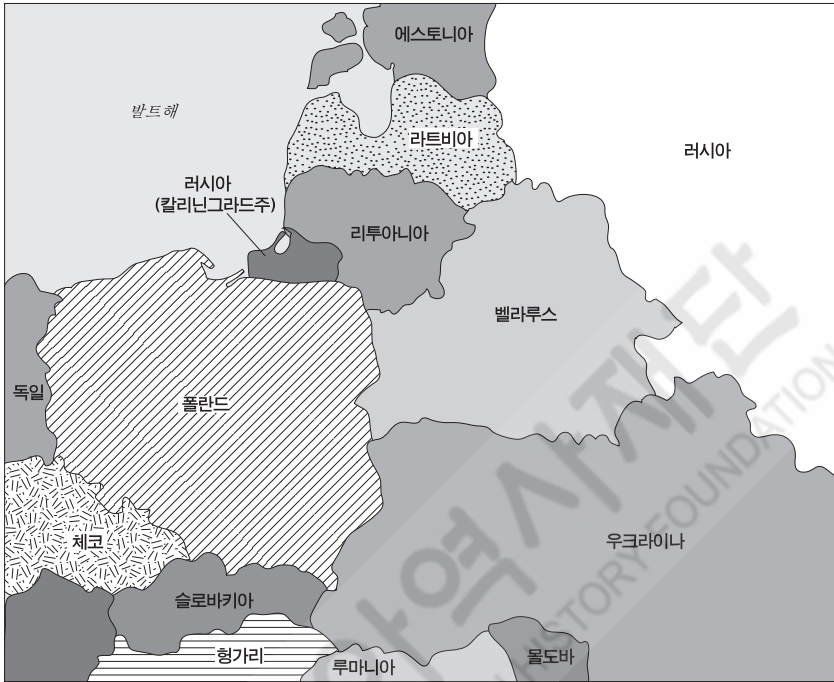


그림 20. 사라진 러시아-폴란드 국경(예외 :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주)

밀히 말해 두 나라의 오랜 영토와 관계가 먼 땅인 동프로이센 지역의 분할경계선이 현존하는 유일한 국경이 된 셈이다.

그러나 양국관계와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다자관계 속의 긴장은 완전히 해소된 듯 보이지는 않는다. 리투아니아는 독립을 전후해서 줄곧, 우크라이나는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인접한 러시아와의 관계보다 유럽연합 및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면, 벨라루스는 러시아 연방과 양국 연합을 통해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서방 외교에 거리를 두고 있다. 러시아에게는 벨라루스도 우크라이나도 모두 중요하다. 러시아를 서유럽과 연결하는 철도운송량은 80% 정도 벨라루스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유럽으로 운송하는 러시



그림 21. 브레진스키가 전망하는 2010년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 블록

아 천연가스관은 80% 가까이 우크라이나를 관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외에 러시아는 크림리아반도의 흑해 함대를 우크라이나와 공동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폴란드계 우파 지식인으로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 브레진스키가 프랑스-독일-폴란드-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새로운 통합의 축을 21세기의 문턱에 들어서기 전에 구상하여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는 냉전체제 속에서 유럽의 정체성을 독차지해 온 ‘샤를마뉴 유럽(Charlemagne Europe)’, 즉 독일과 프랑스를 좀 더 광범한 ‘베드로 유럽(Petrine Europe, 즉 종교개혁 이전의 서방 가톨릭교회권)’으로 확장하여 폴란드를 포함시켰고, 더

나아가 16세기에 황금기를 구가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국가’의 범위로, 즉 우크라이나로 통합범위를 확대했다. 그는 인구 2억 3000만의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인구와 영토를 포함한 4개국을 나름대로 선정한 것이다.¹⁰⁾ 다시 한 번, 폴란드와 러시아를 구분하는 서방교회와 동방정교의 문화권이 넘지 못할 벽인지 관심을 갖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러시아에 대응해서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 쪽으로 적극 끌어들이려는 당사자인 폴란드의 행보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근린외교정책의 하나인 ‘동방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폴란드가 독일이나 프랑스의 유보적 입장과 러시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구소련 공화국들과 정치-경제 관계를 증진시키며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시장경제 등의 확산을 추구하는 협약체결을 주도해왔다. 러시아-폴란드 양국의 국경은 거의 소멸되었지만, 양국 사이에 위치한 국가들을 놓고 벌이는 외교는 여전히 활발히 전개되는 느낌이다.

10) Zbigniew Brzezinski(1997), *The Grand Chessboard-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New York : Basic Books, pp. 41·44, 번역서로 Z. 브레진스키, 김명섭 옮김(2000), 『거대한 체스판(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 삼인.

• 러시아-폴란드 관계사 연표(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관련사항 포함)

연도	개요
1385	크레바 협정. 리투아니아 대공국과 폴란드 왕국의 느슨한 통합 리투아니아 대공 요기일라가 폴란드 여왕과 혼인동맹으로 폴란드 군주를 겸하고, 폴란드 야기에우워 왕조를 개창. 요기일라와 리투아니아 귀족의 가톨릭 개종
1492~1537	모스크바 대공국-리투아니아 대공국 간 5차례 전쟁(1514 러시아, 스몰렌스크 수복)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연패로 폴란드에 대한 의존도 증대, 양국 통합의 배경
1558~1583	리보니아 전쟁. 1582 러시아-폴란드, 얀 자폴스키 조약(1583 러시아-스웨덴, 플루사 조약)
1569. 7. 1	루블린 통합.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국 출범
1595~1596	브레스트 통합. 폴란드 지배하 동방정교도를 서방 가톨릭교회에 통합 시도
1598~1613	러시아의 '동란시대'(1613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성립)
1605~1618	러시아-폴란드 전쟁(1618 데울리노 정전협정. 러시아, 스몰렌스크 상실)
1610. 9. 27~ 1612. 11. 4	폴란드의 모스크바 점령
1632~1634	러시아, 스몰렌스크 탈환전 실패(1634 폴라노프카 협약)
1648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 지배에 항거하는 호멜니츠키 봉기(러시아에 지원 요청)
1654	페레야슬라프 협정. 동부 우크라이나, 러시아 차르의 보호령화
1654~1667	러시아-폴란드 전쟁[1667 안드루소보(Andrusovo) 강화]
1700~1721	러시아 대 스웨덴의 대북방전쟁 폴란드 국왕 아우구스트 2세는 스웨덴 지배의 리보니아 지역 수복 목적으로 러시아와 제휴하여 스웨덴의 폴란드 침략과 국토 황폐화를 초래
1733~1735	폴란드 왕위계승전쟁. 러시아의 개입으로 아우구스트 3세가 왕위 유지
1768~1776	폴란드 귀족연합체 바르 동맹의 대 러시아 무장항쟁. 폴란드 1차 분할의 빌미
1772. 8. 5	러시아·프로이센·오스트리아 3국, 폴란드 제1차 분할
1791. 5. 3	폴란드, 헌법 공포 (1792. 4. 27 귀족특권제한의 헌법 반대 세력, 러시아 차르 지원하에 정치동맹체 결성)
1791. 12. 23	예카테리나 2세, 최초로 유대인 집단 거주지역 설치(1794, 1795, 1805년 추가)

연도	개요
1792	러시아 및 폴란드 반헌법 귀족동맹체의 폴란드 침공으로 폴란드 국왕 및 의회 굴복
1793. 1. 23	러시아-프로이센 양국, 폴란드 제2차 분할
1794. 3. 24	코시치우슈코 무장봉기
1795. 10. 24	러시아-프로이센-오스트리아 3국, 폴란드 제3차 분할. 폴란드 국가 소멸
1807. 6. 9	나폴레옹, 바르샤바 공국 수립
1815. 6. 9	빈 회의, 폴란드 의회 왕국 수립 결정(러시아 황제가 폴란드 국왕을 겸함)
1830. 11. 29	폴란드 11월 봉기
1863. 1. 22	폴란드 1월 봉기
1905	러시아 제1차 혁명
1914	독일 제국, 러시아에 선전포고. 제1차 세계대전
1917	러시아혁명
1917. 3. 17	우크라이나 중앙 라다, 러시아 임시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는 자치체로서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수립선언
1917. 12. 25	볼셰비키, 하르키프에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선포
1918. 1. 22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독립선언(볼셰비키와 적대관계 돌입)
1918. 2. 16	리투아니아 독립선언
1918. 3. 3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조약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립 확인
1918. 3. 25	(친독일) 벨라루스 인민공화국 수립선언
1918. 6. 3	연합국, 폴란드 독립을 (전쟁 수행 목표로) 공인
1918. 11. 1	동부 갈리치아 지역에서 서부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수립선언. 폴란드인 경악
1918. 11. 11	독일 항복으로 바르샤바 주둔 독일군 스스로 무장해제(폴란드 독립기념일)
1918. 11. 13	소비에트 러시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조약 실효선언
1918. 11(12)~ 1919. 7. 17	폴란드-(서부)우크라이나 전쟁 (1919. 1. 22 서부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에 통합(상징적 의미 정도))
1918. 12~1919. 8	리투아니아-소비에트 러시아 전쟁.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러시아군 격퇴

연도	개요
1919. 1. 1	볼셰비키, 벨라루스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수립선언(그 후 2, 27에 아래와 같이 개편)
1919. 1. 5	볼셰비키, 벨라루스 인민공화국 침공 개시, 벨라루스 인민공화국 정부 망명
1919. 2. 27	리투아니아-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한 달 후 해체)
1919년 말	레닌, 폴란드군 공세를 우려하여, 벨라루스 대부분을 양도하는 양국 경계 제안
1919. 2. 9~ 1921. 3	러시아-폴란드 전쟁(1921. 3 리가 조약)
1920. 4. 21	폴란드-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동맹 체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의 키예프 공격에 군사지원 약속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은 즈브루치(Zbrucz)강을 양국 국경으로 인정
1920. 7. 12	리투아니아,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과 강화조약
	소비에트 러시아 측, 리투아니아의 독립 및 빌뉴스 영유권 인정
1920. 7. 31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재)수립
1920. 9. 1~10. 7	폴란드-리투아니아 전쟁[1920. 10. 7 수바우키(Suwałki) 정전협정 체결]
1920. 10. 12	폴란드, 빌뉴스에 괴뢰정부인 중앙리투아니아 공화국 수립
1922. 2. 20	중앙리투아니아 공화국, 논란 많은 선거로 빌뉴스의 폴란드 귀속 확인
1922. 3. 22	폴란드 의회, 중앙 리투아니아 공화국을 폴란드 영토로 편입 의결
1939. 8. 23	나치 독일과 소련, 불가침조약 체결. 비밀의정서에 양측 세력권 분할 규정
1939. 9. 1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제2차 세계대전 발발(1939. 9. 3 영국-프랑스, 대독 선전포고)
1939. 9. 17	소련의 폴란드 침공, 나치 독일과 폴란드 분할 점령
1939. 9. 28	나치 독일과 소련, 우호-협력-분계 조약 체결(모스크바)
1939. 10. 10	소련-리투아니아 상호 원조협정 체결
	소련, 빌뉴스 및 인근지역(서부 빌뉴스 지역)을 리투아니아에 양도[1조]
	소련, 리투아니아 영토에 소련군 주둔 및 기지보유 권리 규정[4조]
1939. 10. 28	소련군, 빌뉴스시 외곽지대로 철수
1939. 10. 29	리투아니아, 빌뉴스 중심가에서 군사 퍼레이드, 폴란드계 주민의 폭동

연도	개요
1940. 4	소련, 폴란드군 포로 2만 명 사살 시신 4,000구를 스몰렌스크 인근 카틴 숲에 암매장 (1990. 4 소련 정부 학살 최초 시인)
1940. 6. 15	소련,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리투아니아 점령 병합)
1941. 6. 22~ 1945. 5. 8	나치 독일과 소련의 전쟁
1943. 11. 28~ 12. 1	테헤란 회담. 스탈린, 전후 커즌 라인 동부지역 영유의사를 강력 표명
1944. 8. 1	폴란드 저항세력의 바르샤바 무장봉기. 두 달 후 나치 독일군에 항복
1945	알타 회담.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포츠담 회담(폴란드 서부 국경 조정)
1946. 7. 4	폴란드 키엘체에서 포그롬(반유대인 폭동)으로 유대인 42명 피살
1954. 2. 19	소련 내 크리미아반도 지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관할 변경(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러시아의 현안으로 부상)
1991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독립 및 소연방 해체로 러시아-폴란드 국경 대부분 소멸(예외 : 러시아 연방 칼리닌그라드주 남부 경계와 접한 폴란드 국경 206km)

• 참고문헌

임지현(2000), 『그대들의 자유, 우리들의 자유. 폴란드 민족해방운동사』, 아카넷.
황동하(2006), 『필사적인 포옹. 독·소 불가침 조약(1939. 08. 23)과 소련 측의 동기 분석』, 한국학술정보.

Dubnow, Simon(1916), *History of the Jews in Russia and Poland: from the Earliest Times until the Present Day*, tr. from the Russian, Philadelphia :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Klier, John Doyle(1995), *Imperial Russia's Jewish Question, 1855~1881*,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Lukowski, Jerzy and Zawadzki, Hubert(2001), *A Concise History of Polan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ipes, Richard(1964), *The 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 Communism And Nationalism, 1917~1923*,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Prazmowska, Anita J.(2004), *A History of Poland*, Basingstoke : Palgrave Macmillan.

Seton-Watson, Hugh(1967), *The Russian empire, 1801~1917*,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Stone, Daniel(2001), *The Polish-Lithuanian State, 1386~1795*,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Yekelchyk, Serhy(2007), *Ukraine : Birth of a Modern Nat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Zamoyski, Adam(2008), *Warsaw 1920. Lenin's Failed Conquest of Europe*, London : Harper Press.

Агаджанов, С. Г., Трепавлов, В. В.(ред.)(1997), *Национальные окраины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 Стано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управления*,

- Москва : Славянский диалог.
- Вернадский, Георгий Владимирович(1996), *Киевская Русь*, Москва : АГРАФ.
- Вернадский, Георгий Владимирович(1997), *Московское царство*, Москва : АГРАФ.
- Вернадский, Георгий Владимирович(1997), *Россия в средние века*, Москва : АГРАФ.
- Вернадский, Георгий Владимирович(1997), *Русская История*, Москва : АГРАФ.
- Заборовский, Лев Валентинович(1998), *Католики, православные, униаты. Проблемы религии в русско-польско-украин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конца 40-х-80-х гг. XVII в. Докумен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Часть 1 : источники времени гетманства БМХмельницкого*, Москва : Памятники исторической мысли.
- Соловьев,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2001), *История Росси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Москва : АСТ.

발트3국의 민족과 국경 문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지배

I. 머리말

II. 발트3국 독립의 역사

III. 발트3국의 독립과 민족 문제

IV. 발트3국과 러시아의 국경 문제와 새로운 관계 정립

V. 맺음말

발트3국의 민족과 국경 문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지배

I. 머리말

발트3국은 발트해 동부의 남부 연안에 위치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말한다. 이 나라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독일, 스웨덴 또는 폴란드의 지배하에 있다가, 18세기에 러시아의 발트해 진출을 계기로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었고, 이후 러시아의 직·간접적인 영향 속에서 18~19세기를 보냈다. 이후 발트3국은 러시아혁명이 발발한 후, 어수선한 틈을 타서 잠깐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었으나, 1939년 독소 비밀협정 이후 다시 소연방에 편입되었고, 소연방의 구성공화국으로 있다가 1991년에 극적인 독립을 이루었다. 발트3국은 2004년 5월에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했고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발트3국은 오랜 종속과 독립 과정에서 공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발트3국의 종속의 역사와 독립 과정을 설명하고 각국이 겪은

민족 문제와 러시아와의 국경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발트3국은 오랜 종속의 세월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왔고, 소비에트 중앙정부의 민족이주 정책으로 인해 자국 영토 내에서도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고유문화를 지키며 결국에는 독립을 일구어낼 수 있었다. 독일, 스웨덴, 러시아 등 유럽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립을 쟁취한 발트3국의 민족과 국경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다른 소연방의 구성공화국들과 동유럽 각국의 민족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필자는 발트3국의 독립과 민족 문제에 관한 논쟁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II. 발트3국 독립의 역사

발트해는 덴마크, 스웨덴, 동부 독일, 폴란드, 발트3국, 러시아, 핀란드를 포괄하는 ‘북방의 지중해’이다.¹⁾ 지중해가 서방 세계를 동방 세계와 연결시켜 주는 바다라면, 발트해는 서유럽과 동유럽을 이어주는 공간이다. 즉, 영국·프랑스·네덜란드·독일 등이 접해 있는 북해는 덴마크의 준트해협을 통해 발트해와 연결되고, 발트해는 퀴니히스베르크, 그단스크, 리가, 탈린, 페테르부르크 등 동유럽 항구들을 통해 방대한 동유럽의 영토와 연결된다. 이 가운데서도 발트해 동부의 리가, 탈린, 나르바 등 발트3국의 항구들은 동슬라브 국가들의 농산품을 서유럽으로 수출하고, 서유럽의 사치품을 동유럽으로 유입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1) Г. Неболсин(1835),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записки о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России*, ч.1. (СПб.), с. 11.



그림 1. 발트해와 인접국가들

발트해 남동부 연안에 면한 발트3국은 민족적으로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적으로도 다르다. 리투아니아어와 라트비아어는 인도유럽어족으로 연관성을 가지긴 하나 서로 다른 언어이며, 기본적인 단어들을 제외하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어는 인도유럽어족이 아닌 핀-위구르 어족에 속하며 리투아니아어나 라트비아어와는 계통상 전혀 다른 언어이다.²⁾ 발트3국은 종교에서도 서로 차이를 보인다. 리투아니아는 폴란드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이 지배적이며,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스웨덴의 영향으로 개신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리투아니아의 가톨릭교회는 자국의 민족의식 고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발트3국은 덴마크, 스웨덴, 독일,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의 강대국들

2) 서진석(2007), 『발트3국. 잊혀졌던 유럽의 관문』, 살림, 10~11쪽.

사이에 끼여 있어서 수많은 외침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발트3국의 역사는 상당 기간 외세의 침입과 저항 그리고 계속되는 종속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최종적으로 독립에 성공했고, 궁극적인 승리를 일구었다. 발트3국의 역사를 외세와의 관계에서 편의상 크게 다섯 시기, 즉 1) 독일 및 스웨덴 지배기, 2) 러시아 지배기, 3) 제1차 독립국가 시기, 4) 소련방 구성공화국 시기, 5) 제2차 독립국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8세기에 러시아에 편입되기 이전에 리투아니아의 역사와 에스토니아 및 라트비아의 역사는 서로 달랐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14세기 초에 게디미나스(Gediminas) 대공이 독자적이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고, 14세기 중엽 올게르드(Olgerd) 왕 때에는 러시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16세기 중엽에 와서 리투아니아 공국은 폴란드와 대등한 조건의 루블린 연합을 맺었지만, 폴란드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고, 점점 폴란드화되었다.³⁾ 한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13세기에 이미 독일과 인근 세력에 종속되었다. 12세기 후반부터 북부 독일의 상업 세력은 다우가바(Daugava)강을 관통하는 무역을 주도하기 위해 라트비아로 진출했고, 13세기 내내 라트비아 주민들은 팽창하는 독일 세력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독일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16세기에 모스크바 공국이 먼저 시작한 리보니아 전쟁의 와중에서 독일 세력인 리보니아가 몰락하고, 모스크바가 패하면서, 라트비아의 영토는 뒤늦게 전쟁에 가담하여 승리한 폴란드와 스웨덴의 영토로 분할되었다.⁴⁾ 한편 에스토니아인들은 북쪽으로부터 독일 세력과 바이킹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으며, 남쪽에서는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

3) С. Ф. Платонов(1993), *Сочинения по русской истории*, т. 1 : Лекции по русской истории. (СПб.), сс. 159~163.

4) *Советск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8, (М., 1965), сс. 436~437.

쳐야 했다. 1219년에는 덴마크군이 에스토니아를 점령했고, 이때 현재의 수도인 탈린이 건설되었다. 에스토니아인들은 지속적인 저항을 벌였고, 특히 1222~1224년에는 전 에스토니아 지역에서 덴마크 세력에 저항하는 봉기가 일어났으나, 결국 외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덴마크 왕실이 1346년에 에스토니아 영지를 독일 기사단에 팔아버림으로써 독일 세력의 지배를 받다가 1629년에 발트해의 강자로 등장한 스웨덴에 점령되었다.⁵⁾

17세기에 폴란드와 스웨덴의 지배하에 있던 발트3국은 18세기에는 러시아가 발트해로 팽창하면서 러시아에 편입되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북방 전쟁을 일으켜 당시 발트 동부지역을 지배하던 스웨덴을 격파하고 발트 연안을 차지했던 것이다. 에스토니아는 1710년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었고, 라트비아 북부는 1721년에 북방전쟁의 종결과 함께 러시아에 종속되었으며, 다우가바강을 중심으로 남부지역은 1772년 제1차 폴란드 분할 때에 러시아에 양도되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1795년에 제3차 폴란드 분할로 러시아에 합병되었다.⁶⁾ 이렇게 해서 18세기 동안 발트3국은 각각 러시아의 한 주로 재편되어, 에스토니아는 에스틀란드야주(Естляндская губ), 라트비아는 리플란드야주(Лифляндская губ), 리투아니아는 쿠를란드야주(Курляндская губ)가 되었다.⁷⁾ 그리고 발트3국은 약 200년간 러시아 제국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면서 러시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18세기에는 발트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였다. 물론 발트 지역의 3개 주에 러시아 관리가 파견되었지만, 각 지역은 루블화가 아닌 발트 지역의 국제화폐인 탈리화를 사용할 수 있었

5) *Советск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16. (М., 1976), сс. 606~609.

6) В. З. Дробижев, И. Д. Ковальченко, А. В. Муравьев(1973), *Историческая география СССР*, М., сс. 168, 170.

7) В. З. Дробижев, И. Д. Ковальченко, А. В. Муравьев(1973), сс. 176~181.

고, 고유의 도량형 체계 역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러시아 제국은 점차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면서 발트 지역을 러시아화하기 시작했고, 러시아 화폐와 러시아 도량형을 강요하고, 자치를 제한했다.

이렇게 발트3국의 역사는 리투아니아 공국의 초기 역사를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과 종속으로 점철되었다.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잠깐이었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는 너무나 강렬했던 독립을 경험했다.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 이후 레닌은 혁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 국가에 많은 양보를 했고, 발트 국가들은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고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1918년 3월 3일에 독일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Брест-Литовск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을 맺었고, 조약에 따라 발트 지역에서의 주권을 포기했다.⁸⁾ 독일은 형식적으로는 발트 국가들의 독립을 보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국가들을 독일에 묶어놓는 정책을 구사했다. 리투아니아는 처음에 빌헬름 폰 우라흐(Wilhelm von Urach)를 민다우가스(Mindaugas II) 왕으로 추대하여 입헌군주를 수립하려 했으나, 이후 계획을 바꾸어 안타나스 스메타나(Antanas Smetona)를 초대 대통령으로 공화국을 수립했다. 한편 독일은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를 묶어 발트 공국(Vereinigtes Baltisches Herzogtum)을 세우려 했으나, 1918년 11월에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 계획은 무산되었다.⁹⁾ 독일의 패배는 발트 국가들이 자주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만으로 발트3국이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독일이 전쟁에서 패망한 후에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은 폐기되었고, 소비에트 러시아는 발트 지역에 소비에트 세력을 확립하기

8) Н. Верт(1995),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М., сс. 125~126.

9) http://ru.wikipedia.org/wiki/Литовская_тариба.

위해 전력을 다했다. 1918년 11월 29일에 볼셰비키의 붉은 군대가 에스토니아의 도시 나르바를 점령했고, 이후 거의 모든 에스토니아 영토를 점령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19년 1월 3일에 붉은 군대의 지지를 받은 라트비아 보병대는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를 점령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에스토니아 군대는 다시 결집하여 반격을 가할 수 있었고, 1919년 1월에 붉은 군대를 물리치고 러시아 전래의 영토인 프스코프(Псков) 인근의 이즈보르스크(Изборск)까지 점령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5월 19일에 에스토니아 공화국 창설을 선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이 발트3국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군사력도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무엇보다 발트 주민들의 독립 의지가 가장 중요했음은 분명하다. 결국 소비에트 러시아는 1920년 2월 2일에 에스토니아와 평화조약에 서명했고, 에스토니아의 독립과 자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¹⁰⁾ 에스토니아의 승리는 소비에트 군대에 맞서는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라트비아군과 리투아니아군은 독일 군대와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 붉은 군대를 압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합군의 사령관은 독일 장군 골츠(Rüdiger Graf von der Goltz)로 정치적 야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었다. 여기에 러시아 백군 세력이 가담함으로써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베르몬트-아발로브(Павел Бермондт-Авалов)가 이끄는 백군은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에 러시아 서부군(Русская Западная армия)을 형성하고 주민들을 강탈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더욱이 백군은 러시아 제국이 부활하면 발트3국이 러시아에 속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했고, 마침내 라트비아를 공격했다. 라트비아는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에 원조

10) 유의정(1999), 「발트 해 연안 국가 내 러시아인 문제와 러시아의 정책」, 『슬라브학보』 14권 1호, 425~426쪽.

를 구했고, 간신히 러시아 백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1919년 이후 더 이상 붉은 군대의 공격은 없었다.¹¹⁾ 결국 1920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는 개별적으로 소비에트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고 독립국가를 이루었다.¹²⁾

이렇게 발트3국은 1920년대 초부터 1940년까지 약 20년간 독립을 누릴 수 있었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1569년 폴란드와의 루블린 협정 이후 460여 년 만이었고,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약 800년 만의 독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은 1939년 8월에 체결된 독소 불가침조약의 비밀의정서에 의해 끝이 났다. 독일 외상 리벤트로프와 소련 외상 몰로토프 사이에 맺어진 비밀협정은 리투아니아의 북방 국경을 경계로 독일과 소련의 세력권을 정하여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소련이 차지하고, 리투아니아는 독일이 차지하기로 규정했으나, 한 달 후에 작성된 추가 비밀의정서에서 소련이 리투아니아까지 지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비밀의정서는 소련 시기 내내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나, 고르바초프가 진상규명위원회를 열어 조사함으로써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¹³⁾ 아무튼 비밀의정서에 따라 스탈린은 발트3국을 병합하기 위해 우선 국경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집결시켜 타국의 침략에 대비한 군사원조를 핑계로 발트3국과의 상호 원조협정을 강제로 조인시켰다. 이 조약에 따라 1940년 6월, 에스토니아에는 소련군 2만 명이, 라트비아에는 4만 명이, 리투아니아에는 3만 명이 진주하게 되었다. 또한 비밀의정서가 맺어진 후 1939년 10월 11일에 NKVD(KGB의 전신)는 발트 지역 내에서 저항세력을 조

11) Зигмантас Кяупа, Айн Мяэсалу, Аго Паюр, Гвидо Страубе(1999), *История Балтийских стран*, М., сс. 136~139.

12) *Советск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1965), т. 8., М., сс. 721~722.

13) 심경옥(1992), 「발트3국 :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美蘇研究』 6권, 12월호, 175쪽.

직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추방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해서 1941년 6월 13일부터 1941년 6월 22일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불과 10일 동안에 리투아니아인 3만 4260명, 라트비아인 1만 5081명, 에스토니아인 1만 250명이 시베리아로 강제이주되었으며, 1940년부터 1941년 사이에 강제이주되거나 사살 또는 구금된 숫자는 리투아니아인 3만 5000명, 라트비아인 3만 5000명, 에스토니아인 6만 1000명에 달했다.¹⁴⁾ 이러한 강력한 무력과 테러를 통해 소련은 발트3국에 괴뢰 내각을 수립하고, 괴뢰 의회를 통해 합병을 결의하도록 했다. 그리고 1940년 8월에 소련최고의회가 합병결의를 수락함으로써 합병이 완료되었다.

발트3국을 병합한 소련은 소비에트화 정책을 펴나갔다. 무엇보다 러시아어를 공용어(*lingua franca*)의 지위로 향상시켜 소수민족들을 사회적·문화적으로 소련 체제에 편입시키려 했다. 이렇게 해서 소련방 내의 발트 공화국들에게도 러시아어를 알아야 고위직책에 임명될 수 있었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하나의 일관성 있는 사회주의 연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공용어의 존재는 필수적이었고, 공용어를 정한다면 러시아어가 가장 타당한 언어일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서유럽과의 무역을 통해 서구화되어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던 발트3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어의 획일적 사용이 매우 불편한 것이었다. 특히 1958년에 흐루쇼프의 교육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 각 학교의 교육은 러시아어 위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교수용어가 러시아어여서 러시아어를 알아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¹⁵⁾ 1970~1989년 동안 각 공화국 인구 가

14) Зигмантас Кяупа, Айн Мяэсалу, Аго Паюр, Гвидо Страубе(1999), сс. 167~169.

15) 필자는 2002년에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시골지역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

〈표 1〉 1959~1989년 발트3국의 각 공화국 전체 인구에서 자국인과 러시아인의 비중 (단위: %)

		1959년	1970년	1979년	1989년
리투아니아	자국인	79.3	80.1	80.0	79.6
	러시아인	8.5	8.6	8.9	9.4
라트비아	자국인	62.0	56.8	53.7	52.0
	러시아인	26.6	29.8	32.8	34.0
에스토니아	자국인	74.6	68.2	64.7	61.5
	러시아인	20.1	24.7	27.9	30.3

※ 출처 : Romuald J. Misiunas(1993), *The Baltic States : Years of Dependence 1940~1980*, Berkely, p. 217.

운데 러시아어 구사 비율은 라트비아의 경우 45.2%에서 64.4%로 크게 증가하였고, 에스토니아도 29.0%에서 33.9%로 증가했다. 리투아니아만 35.9%에서 37.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¹⁶⁾ 이렇게 발트3국은 소비에트 시기에 러시아어가 민족어를 위협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 이는 발트 공화국이 겪은 인구상의 위기와도 관련이 있었다. 즉, 소련은 스탈린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트3국의 인구를 재편하는 정책을 폈고, 이에 따라 타 민족을 발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발트 주민들을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강제이주 정책을 폈던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전체 인구에서 타 민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크게 증가했고, 이는 라트비아인이나 에스토니아인이 자국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

에서 영어는 전혀 쓸모가 없었지만, 아주 젊은 사람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구사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러시아어로 말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16) Romuald J. Misiunas(1993), *The Baltic States : Years of Dependence 1940~1980*, Berkely, p. 219 참조.

각하게 할 만큼 심각한 양상이다. 라트비아의 경우 이미 1959년에 전체 인구에서 라트비아인의 비중이 62%로 상당히 감소한 상태였으며, 1989년에 와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자국민이 전체 인구의 52%로 반수를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라트비아의 도시는 농촌보다 인구상의 열세가 더욱 심각했다. 수도 리가에서는 라트비아인이 전체 도시민의 33%에 불과했고,¹⁷⁾ 라트비아 제2의 도시인 다우가프필스(Daugavpils)에서는 인구의 대다수가 러시아인이어서 라트비아어가 오히려 통하지 않을 정도였다.¹⁸⁾ 라트비아 민족 운동가들이 보기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강화된다면 라트비아는 더 이상 라트비아인의 국가로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민족 정체성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었다. 한편 에스토니아의 상황도 심상치 않았다. 에스토니아는 1959년 자국민의 비중이 75%였으나, 1989년에는 62%로 감소했다. 한편 같은 시기 러시아인의 비중은 20%에서 30%로 크게 증가하여 에스토니아인에게 충분한 위협이 되었다. 단지 리투아니아만 예외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자국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80%를 유지하여 민족별 인구구성 면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겪지 않았다.

17) 심경옥(1992), 앞의 책, 185쪽.

18) 필자는 2002년에 라트비아의 다우가프필스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온통 러시아어로 말하는 사람들뿐이어서 몹시 놀랐다.

III. 발트3국의 독립과 민족 문제

발트 공화국들은 소련의 다른 구성공화국들과 비교하면 지정학적으로 유럽에 훨씬 가까이에 위치하며, 따라서 오래전부터 유럽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 러시아 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 없었다. 또한 발트 국가들은 1920년대 초부터 1940년까지 약 20년간 독립을 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연방에 편입되면서부터 강렬한 독립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인근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소련과 직접 국경을 맞대는 것보다 발트3국이라는 완충지대를 두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이들이 독립하는 것에 동조했다.

발트3국의 국민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 점령되면서 강력한 저항의 의지를 보였고, 다시 소련에 합병된 후에도 이러한 저항을 계속했다. 특히 무장 저항세력은 발트 지역의 30~40%를 차지하는 삼림지역을 무대로 게릴라전을 감행했다. 1941년에 리투아니아에서 10만 명, 라트비아에서 6만 명, 에스토니아에서 5만 명의 게릴라가 독립을 위해 싸웠다. 독일이 발트 지역을 점령하면서 발트 주민들은 독일의 산업건설을 위한 노동자로 동원되거나 독일 군대 병력으로 보충되는 등 독일에게 희생되었으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게릴라 투쟁은 지속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인 1945년에 리투아니아에 3만 명, 라트비아에 1만 5000명, 에스토니아에 1만에서 1만 5000명의 게릴라 병력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1945년 이후에 게릴라 활동은 다시 활발해져서 1949년에 절정에 달했으나, 소련이 안정되고 본격적인 진압에 나서면서 1952년에 막을 내렸다. 소련은 게릴라 전투원의 주요 충원 대상이었던 농민의 상당수를 시베리아 등지로 강제이주시켰고, 나머지 농민들도 집단 농장에 소속시켜 더 이상 게릴라 활동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1952년에 게

릴라부대들은 무장투쟁을 포기하고 부대를 해체했으나, 평화적 수단으로 투쟁을 계속할 것을 천명했다.¹⁹⁾

소비에트 시기에 발트3국의 민족운동은 문화운동이나 지하출판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생성된 지하출판물은 발트 지역의 각 공화국에서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하출판물의 내용은 초기에는 문학작품 등을 통해 각국의 문화적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었는데, 점차 정치, 사회, 민족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소련 당국을 긴장시켰다. 소련 당국은 이러한 지하출판물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출판물의 발행은 오히려 증가했다.²⁰⁾

또한 1970년대에는 민족적인 색채를 띤 단체들이 발트3국 곳곳에서 조직되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1976년에 ‘헬싱키 그룹(Helsinki Group)’이, 1980년에는 ‘가톨릭수호위원회(Committee for the Defense of the Rights of Catholics)’가 결성되었고, 라트비아에서는 1975년 ‘라트비아 독립운동(Latvian Independence Movement)’, ‘라트비아 민주청년위원회(Latvia’s Democratic Youth Committee)’ 등이 조직되어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에서는 1972년에 ‘에스토니아 민주운동(Estonian Democratic Movement)’, ‘에스토니아 인민전선(Estonian National Front)’이 결성되었고, 1974년에 ‘에스토니아 애국지들(Estonian Patriots)’이 조직되었다.²¹⁾ 그리고 발트 지역의 각 국가들은 처음에는 독자적으로 움직였으나, 1970년대 말부터 상호 협조하에 연합된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은 1979년 8월 23일에 그들의 독립을 빼앗아간 리벤트로프-몰로토

19) 김규철(1991), 「소련의 민족문제에 관한 연구, 발트3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4~56쪽.

20) 조정남(1988), 『소련의 민족문제』, 133쪽 ; Зигмантас Кяупа и др.(1999), с. 189.

21) 김규철(1991), 앞의 글, 58쪽.

프 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발트3국의 대표자 45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발행되어, 조약의 무효와 그 결정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²²⁾ 소련 당국은 독일과의 불법 협약을 통해 발트 지역을 점령한 것이 아니며, 발트3국이 자발적으로 소연방에 편입되었다고 반박했지만, 이를 믿는 발트 주민들은 많지 않았다.

발트3국의 민족운동은 1980년대 중반에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후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먼저 환경운동이 중심이 되었다. 라트비아에서는 1986년 10월에 소련 중앙정부가 다우가바강 유역에 수력발전 댐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라트비아인들은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댐 건설의 폐해를 지적하는 각종 논문을 발표하고, 당국에 수만 통의 비난 편지를 보냄으로써 결국 라트비아 정부와 소연방 정부의 항복을 받아냈다. 에스토니아인들 역시 1987년 에스토니아 동부에 인광을 건설하려는 중앙정부의 계획을 수질오염과 국토황폐화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고, 이것이 점차 전국민적인 항의운동으로 확산되어 결국은 중앙정부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었다.²³⁾ 이러한 승리는 작은 것이었지만, 대중운동에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무엇보다 비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환경 문제에서의 승리는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단체의 결성을 확대시켰다.

에스토니아에서는 1988년에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원하기 위해 인민전선이 결성되었고, 이 기구는 나중에 민족독립운동의 중추세력으로 성장했다. 1988년 4월 13일 민족 운동가 사비사르(Edgar Savisaar)가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원하기 위한 인민전선의 결성을 촉구했고, 한 달 만에 에스토니아 전역에 인민전선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처음에 인민전선은 소련 공산당

22) Зигмантас Кяупа и др. (1999), с. 189.

23) 김규철(1991), 앞의 글, 65, 70쪽.

을 지지할 것을 약속했으나, 점차 공산당과 멀어지며 민족적 성향을 띤 조직이 되었다. 에스토니아의 인민전선은 다른 발트 공화국의 인민전선 결성에 큰 자극을 주었다. 인민전선의 주요 목표는 정치, 경제, 언어,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에스토니아의 민족적 요구들을 달성시키는 것이었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1989년 5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총 39석 가운데 27석을 얻어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확인했다.²⁴⁾ 에스토니아의 인민전선은 하나의 역할모델이 되어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인민전선의 결성을 자극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1988년 6월3일 인문학자, 자연과학자 등 지식인들이 학술원 대강당에 모여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이 모임이 주축이 되어 같은 해 10월에 리투아니아의 인민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유디스(Sajudis)가 출범했다. 사유디스는 리투아니아 공화국 내의 정치, 문화, 사회 지도자들로 구성되었고, 1989년 3월 26일 리투아니아 인민대의원 선거에서 42석 가운데 36석을 획득하여 정치세력화에 성공했다.²⁵⁾ 사유디스는 여러 사회단체를 통합하거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고, 리벤트로프-몰로토프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시민사회의 보장과 소련군의 완전 철수 등을 주장하는 등 리투아니아 민족운동의 중심에 섰다.²⁶⁾

라트비아에서도 1988년 6월 21일에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를 모델로 인민전선이 설립되어 라트비아 전통 국기를 게양하고 애국적인 연설을 주도하며 라트비아 민족운동의 증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라트비아의 민족운동은 연방 정부와의 알력과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非)라트비아인들의 저항 속에서 약화되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인을 중심으로 ‘라트비아 국제 노

24) Зигмантас Кяупа и др. (1999), с. 201.

25) <http://ru.wikipedia.org/wiki/Саюдис>

26) 심경욱(1992), 앞의 책, 182쪽.

동자 전선(Latvian International Working People's Front)'이 결성되어 라트비아의 민족 운동에 반대했다. 이러한 국내 여건 때문에 라트비아 인민전선은 총 의석 201석 가운데 128석을 얻어 3분의 2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라트비아는 인구 분포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었고, 이에 따라 라트비아인이 압도적인 다수가 되지 못한 상황이 라트비아 민족운동을 상대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다.²⁷⁾

이렇게 1980년대 후반에 발트3국의 민족운동 단체들은 정치세력화에 성공했고, 시간이 갈수록 민족운동은 강도를 더해갔으며, 그러한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독립이었다. 그러나 발트3국 각국은 약소국으로서 혼자서 거대한 소련 정부에 대항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발트3국은 서로 연합할 필요를 느꼈으며, 또한 외부 세계에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고,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계획된 것이 발트3국을 인간의 띠로 잇는 거대한 행사였다. 1989년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3개 공화국의 연합조직인 '발트총회'를 창설했고, 소련 정부에 불법 점령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독립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의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독소 불가침조약' 50주년을 앞두고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부터 시작해서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를 지나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를 잇는 약 600km의 거리를 인간 띠로 연결하는 대규모 행사를 벌였다. 이를 위해 어마어마한 숫자의 차량과 사람이 동원되어야 했는데, 무려 200만 명의 사람이 참여하여 저녁 7시에 손에 손을 맞잡고 승리를 다짐했다. 동시에 발트3국의 각 마을과 도시의 성당에서는 그 시각에 맞춰 종을 울려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²⁸⁾ 이러한 발트의 길 행사는 전 세계 곳곳에서

27) 김규철(1991), 앞의 글, 65·71쪽.

28) 서진석(2007), 앞의 책, 65쪽.

방송되었고, 발트인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천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발트의 길 행사는 발트3국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각국은 독립의 의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독립의 열기가 고조된 가운데 리투아니아는 1990년 3월 11일 발트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독립을 선언했다. 이어서 1990년 3월 30일에 에스토니아가 독립선언을 했고, 같은 해 5월 4일에 라트비아가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독립에 대한 열망은 발트 지역 전체를 휩쓸었다.²⁹⁾ 그런데 리투아니아의 독립선언이 즉각적인 주권 독립을 선언한 것이었다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독립은 하되 과도기를 두며, 이 기간에 소련 정부와 평화적 독립을 위한 협상을 한다는 것으로 다소 완곡한 것이었다. 이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는데, 두 국가 모두 영토 내에 자국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리투아니아처럼 높지 않고, 그러한 인구상의 문제가 투표를 통해 드러나 독립을 지지하는 인민전선이 리투아니아처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발트3국의 독립선언에 대해 소련 당국은 강경하게 대처했다. 고르바초프는 인민대회원대회에서 리투아니아의 독립선언을 무효로 선언했고, 4월부터는 경제제재를 가하여 리투아니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했다. 그리고 1991년 1월에는 마침내 소련의 군대가 발트 지역으로 출동했고, 1월 13일에는 라트비아의 수도 빌뉴스로 진입하여 주요 공공건물들을 점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15명의 사망자와 150여 명의 부상자를 내는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1월 20일에는 소련 군대가 라트비아 공화국 경찰 본부와 내무부 건물을 공격하여 민간인 4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무력으로 점거하며 독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었다.³⁰⁾

29) 기연수 외(1993), 『현대러시아연구』, 집문당, 26쪽.

그러나 소련의 강력한 독립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했던 소련 내 정치지형의 급격한 변동으로 발트3국의 독립은 가속화될 수 있었다. 소연방 최고직장인 고르바초프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옐친이 1990년 5월 29일에 러시아 공화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공화국최고회의 의장에 선출되면서 소연방의 주축인 러시아 공화국을 장악하게 되었고, 고르바초프는 이름뿐인 소연방의 우두머리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91년 6월에 러시아 공화국은 주권을 선언했고, 러시아 공화국 내에서 소연방 헌법에 대한 러시아 공화국 헌법의 우위를 결정했다. 그리고 1991년 6월에 옐친은 러시아 공화국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러시아 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역설적이게도 소연방을 유지하는 주축세력이었던 러시아 공화국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했다.³¹⁾ 이렇게 해서 소연방은 붕괴되었고, 1991년 9월 6일에 발트3국의 독립이 승인되었다.

이렇게 발트3국은 소연방 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구성공화국이었지만 가장 먼저 독립의 열기를 불태우고 실제로 독립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발트3국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한때나마 독립을 누린 적이 있고, 더욱이 유럽 가까이에 위치하여 유럽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 비교적 일찍부터 소비에트의 획일적인 정책에 반기를 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에서는 핀란드 방송을 들을 수 있었고, 에스토니아인들은 핀란드 주민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들은 1940년까지만 해도 에스토니아와 핀란드의 경제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으며, 에스토니아가 뒤쳐진 것은 단지 소연방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30) 심경욱(1992), 앞의 책, 187쪽.

31) 기연수 외(1993), 앞의 책, 30쪽.

IV. 발트3국과 러시아의 국경 문제와 새로운 관계 정립

발트 지역은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 가운데서 러시아와의 국경선 설정은 늘 예민한 문제로 남아 있었다. 발트3국 가운데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러시아의 레닌그라드주, 포스코프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주에 인접해 있다. 현재 러시아에 속한 칼리닌그라드는 원래 독일 영토였고,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소련이 차지하게 된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국경선을 둘러싼 대립은 상대적으로 덜했다. 그러나 러시아 전래의 영토와 맞닿아 있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1991년에 독립을 이루고서도 러시아와 최종적인 국경선 협정 문제로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발트 지역은 오랜 옛날부터 경제적·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즉, 다우가바강을 통해 러시아의 농산물이 리가로 수송되어 서유럽으로 수출되었고, 나르바강을 통해 추드호(Чудское озеро)와 연결되어 있는 에스토니아의 항구 도시 나르바 역시 러시아 산물의 주요 수출항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예카테리나 2세는 제1차 폴란드 분할 때에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다우가바강 연안의 폴란드 땅을 차지했던 것이다.³²⁾ 또한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즉, 러시아 국가 초기 역사에서 독일 세력은 발트 지역으로부터 러시아를 공격하곤 했다. 1242년에 있었던 알렉산드르 네프스키의 ‘빙판 위의 대학살(ледовое побоище)’ 역시 이 지역을 무대로 하고 있다. 이 전투는 에스토니아의 타르투(Tartu)에 거

32) В. З. Дробижев, И. Д. Ковальченко, А. В. Муравьев(1973), с. 170 참조.

주하던 독일 기사단이 추드호를 타고 내려와 프스코프 지역을 공격하는 것을 알렉산드르 네프스키가 지휘하는 루시 병사들이 추드호 빙판에서 무찌른 사건이다. 이때 추드호 빙판의 얼음이 무너지면서 퇴각하는 독일 기사단의 병사들이 몰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³³⁾ 또한 근대 초에도 표트르가 이끄는 러시아군은 북방전쟁의 승리를 위해 나르바를 놓고 스웨덴군과 일대 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오늘날 에스토니아에 속한 나르바가 러시아 북서부 지역인 페테르부르크의 네바강으로 진격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 발트3국이 독립국가를 이루면서 러시아와의 국경 문제가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1918년 3월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발트3국을 독일에게 양도했다. 이때 에스토니아와의 국경선을 나르바강으로 정했고, 라트비아와의 국경선은 추드호와 프스코프호를 지나 라트비아 도시 리반(Lībanī) 방향으로 이어졌다.³⁴⁾ 그러나 상황은 급변하여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여 발트3국에서 물러나야 했고, 신생 소비에트 국가는 내전에 휩싸였다. 주변 강대국의 힘이 약화된 상황에서 발트3국은 무력항쟁을 통해 자국 내에서 붉은 군대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20년에 소비에트 러시아는 개별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어 발트3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국경선을 확정했다. 그러면 발트3국 각국의 국경선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자.

리투아니아는 1920년 독립 당시 동프로이센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당시 리투아니아는 팔란가(Palanga)항을 포함해서 발트해에 면한 약간의 영토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923년에 리투아니아 군대가 베르사유 조약으로 연합군에 넘어온 독일 도시 클라이페다(Klaipėda)항³⁵⁾을 무력으로 점령했다. 이렇게

33)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СССР XIV-XV вв*(1953), М., сс. 850~851.

34) *Хрестоматия по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стории(1914~1945 гг.)*(1996), М., сс. 640~642.

해서 리투아니아는 발트해에 부동의 항구를 얻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 영토에 새롭게 귀속된 칼리닌그라드(Калининград)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새로운 경계선이 정해졌다. 경계선은 전쟁 이전에 리투아니아와 동프로이센 사이의 국경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비슷했다. 클라이페다는 공식적으로 소연방 소속의 리투아니아 공화국에 귀속되었으며, 1950년 소비에트 최고회의의 칙령에 의해 행정상으로 리투아니아 공화국 내에 위치한 하나의 주가 되었다.³⁶⁾ 이처럼 리투아니아가 소련 시기부터 클라이페다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국경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었다.

라트비아는 1920년 8월 11일에 소비에트 러시아와 리가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독립을 인정받았으며, 양국 사이의 국경선을 정했다. 이 협정에서 라트비아는 러시아의 프스코프주에 속한 프이탈로보(Пыталово)와 인근지역을 얻는 쾌거를 이루었다. 라트비아는 새로 확보한 영토에 대해 각별한 애착을 가져서 1933년부터 프이탈로보를 도시로 승격했고, 1938년부터 라트비아식으로 개칭하여 아브레네(Абрене)라고 불렀다.³⁷⁾ 프이탈로보는 전략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 이 지역은 라트비아 병사들이 소련 군대와 치열한 접전 끝에 확보한 지역이었다. 또한 이 지역이 갖는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프이탈로보는 라트비아 영토의 2%를 차지하는 비교적 넓은 지역이고, 식량 공급에 필요한 농업 지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³⁸⁾

35) 클라이페다항의 독일 명칭은 메멜(Memel)이다.

36) <http://ru.wikidia.org/wiki/Клайпеда>

37) *Город России. Энциклопедия*(1994), М., с. 371.

38) <http://www.inosmi.ru/translation/232594.html>.

한편 에스토니아는 1920년 2월2일에 소비에트 러시아와 타르투 평화협정을 맺어 독립을 인정받고, 양국 사이의 국경선을 정했다. 이때 에스토니아 군대는 이미 기존의 에스토니아 영토를 넘어 소비에트 러시아의 프스코프주까지 치고 들어간 상황이었다. 따라서 에스토니아는 타르투 평화협정에서 나르바강 서쪽뿐만 아니라, 동쪽 지역의 도시들, 즉 이반고로드나 페초르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³⁹⁾ 이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양보였다. 러시아가 보기에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사이의 자연 경계선, 그리고 역사적 경계선은 나르바강이었다. 나르바강은 추드호에서 발원하여 발트해로 흐르는데 나르바강 서쪽에 나르바가 위치하고, 그 맞은편에 이반고로드가 서 있다. 나르바가 오랫동안 독일 또는 스웨덴이 관할하는 무역항구로 기능했다면, 이반고로드는 이반 3세가 나르바를 견제하기 위해 1492년에 세운 요새로서 러시아의 국경 수비 도시였다.⁴⁰⁾ 페초르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페초르 수도원은 프스코프 공국 시기나 모스크바 공국이 프스코프를 합병한 이후에 독일 기사단의 본거지인 리보니아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요새로서 독일 세력의 침략을 막아내고 러시아를 지켜주는 영험한 장소였던 것이다.⁴¹⁾ 따라서 두 지역 모두 소비에트 러시아 입장에서 함부로 내 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소비에트 러시아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사이의 국경선 문제는 1920년에 체결된 일련의 조약에서 처음으로 확정되었지만, 이 시기는 러시아의 일시적인 혼란기였다. 따라서 1922년에 소연방이 들어서고 그 체제가 점차 안정

39) <http://ru.wikidia.org/wiki> (Тартуск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между РСФСР и Эстонией).

40) В. Д. Королук(1954), *Ливонская война*, М., с. 30.

41)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Брогауза и Эфрона (CD) (Псково-Печерский-Успенский монастырь).

되면서 점차 상황은 바뀌었고, 1920년의 결정이 지속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1940년대에 발트 지역과 소비에트 러시아 사이의 국경 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소련은 1941년에 발트 지역을 침공했고, 독일군의 공격으로 물러났으나, 독소 전쟁의 승전국으로서 발트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발트3국은 주권을 잃고, 3개의 구성공화국으로서 소연방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소련은 1920년 평화협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영토들을 새로 성립된 소비에트 라트비아나 소비에트 에스토니아에서 분리시켜 소비에트 러시아의 레닌그라드주와 프스코프주에 편입시켰고, 이때의 경계선이 1991년에 발트3국이 독립한 이후 상호 간의 국경선이 되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고 발트3국이 독립을 이룬 이후에도 러시아와 발트 각국 사이의 국경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숙제로 남았다. 특히 새롭게 독립을 이룬 발트 지역에 민족주의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영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는 한때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영토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들은 1920년 평화협정 때 맺은 조약이 합법적인 것이며, 그 이후의 것은 모두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실 국제법상으로 발트 국가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1920년 조약은 문제가 없는 정식 조약이었던 반면, 1939년의 독소 비밀협정에 의한 소련의 발트 지역 병합은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러시아가 자연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자신의 영토라고 여기는 지역을 다시 돌려줄 리는 없다. 결국 발트3국은 빠르건 늦건 현실을 인정하고 러시아와의 국경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발트3국 가운데 가장 먼저 러시아와 국경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리투아니아였다. 리투아니아는 다른 발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며, 러시아 본토와 직접 땅을 맞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경선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았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로부터 빼앗은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이 지역은 러시아 본토와 연결되지 않은 러시아 영토이며 주민의 대다수가 러시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리투아니아에게 남은 문제는 러시아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주와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일이었다. 1997년에 러시아와 리투아니아는 국경협정을 체결했고, 2003년 8월 12일에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국경 문제를 종결지었다.⁴²⁾ 국경선은 네만강을 따라 이어졌고, 계속해서 세슈페강(šešupė)과 비스투시오호(Vištyčio ežeras) 등 수로로 연결되었으며, 일부만 호수나 강을 지나지 않는 국경지대로 남았다. 원래 러시아는 비스투시오호를 모두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7년 협정을 통해서 양국이 반반씩 나누어 가졌으며, 그 대신 러시아는 다른 지역에서 보상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국경선 문제가 마무리되었다.⁴³⁾

라트비아의 경우에도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없었다. 다만 라트비아 내에서 민족주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상황 속에서 정치가들이 국경 문제를 손대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빨리 해결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라트비아의 최고회의는 독립을 이룬 직후부터 1944년 8월 23일 프스코프주를 소련 영토에 편입시킨 소연방 최고회의의 결정이 불법이며, 라트비아와 러시아 사이의 합법적인 국경선은 1920년 8월 11일 평화협정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프이탈로보 지역은 라트비아에 속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바이라 비케-프레이버르가(Vaira Vīke-Freiberga) 라트비아 대통령

42) <http://www.tomchin.ru/society/news/1147.html>.

43) http://ru.wikipedia.org/wiki/Граница_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_области).

이 적절히 언급한 것처럼 라트비아가 프이탈로보 지역을 되찾는 방법은 전쟁 밖에 없는데, 라트비아 입장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조기에 국경 문제를 매듭짓고 러시아와 새로운 협력관계로 나가는 것이 라트비아 국가를 위해 이득이 되었고, 이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였다. 또한 국경 문제의 매듭은 라트비아가 유연한 사고를 지닌 나라라는 것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어 유럽연합에 가입한 라트비아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재고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유럽연합 측에서도 계속해서 러시아와 국경 문제의 종결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7년 3월 27일 러시아 국무총리 미하일 프라드코브(Михаил Фрадков)와 라트비아 총리 아이가르스 칼비티스(Aigars Kalvitis)가 양국 사이의 국경협정에 서명했다. 라트비아 의회는 2007년 5월 17일에 국경협정을 비준했고, 러시아 의회는 같은 해 9월 5일에 협정을 비준했다. 그리고 2007년 12월 18일에 러시아의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브(Сергей Лавров)가 리가를 방문하여 라트비아 외무장관 마리스 리엑스틴스(Māris Riekstiņš)와 협정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양국 사이의 국경 문제는 종결되었다.⁴⁴⁾

한편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나르바에서 추드호까지 역사적으로 연원이 깊은 지역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사이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아래 지도에 표시된 레닌그라드주의 킹기세프(Кингисепп) 지역 총 800km²와 프스코프주에 속한 페초르 지역 총 1,500km²의 영토이다. 이 지역에 대한 최종적인 국경선을 정하기 위해 1990년대에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결말이 나지 않다가 2005년에 와서야 양국 사이에 협정이 맺어졌다. 2005년 5월 18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브와 에스

44) <http://www.regnum.ru/news/934245.html>.



그림 2_ 라트비아와 러시아의 국경선(점 찍힌 지역이 문제의 프이탈로보 지역이다)

토니아의 외무장관 우르마스 파에트(Urmas Paet)가 에스토니아-러시아 국경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특징은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사이의 국경선을 1991년에 에스토니아가 독립한 상태 그대로 묶어두는 것이었다.⁴⁵⁾

그러나 2005년 에스토니아-러시아 국경협정은 편의적인 측면에서 일부 조정은 있었다. 에스토니아 영토로 길게 들어가 있는 러시아 영토 사아트세 장화(Саатсеский сапог)⁴⁶⁾ 지역과 추드호의 수로를 이용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사아트세 장화 지역은 에스토니아 영토로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에스토니아의 바르스크-사아트세 국도(Эстонское шоссе Вярска-Саатсе)가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에스토니아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러시아 당국은 사아트세 장화 지역을 통과하는 에스토니아 차량에 대해 국경 검사를 하지 않고 통과시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으나, 차가 이 지역에서 정차

45) <http://www.tomchin.ru/society/news/1147.html>.

46) 움푹 들어간 지형이 장화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림 3. 에스토니아-러시아 국경협정에 따른 국경선

하는 것이나 도보로 이 지역을 횡단하는 것은 금지했다.

2005년 협정에서 러시아는 사아트세 장화 지역을 에스토니아에 양도하여, 국경 문제를 종결짓는 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 대신 비슷한 크기의 영토를 보상받았다. 즉, 에스토니아 영토인 메레먀에(Меремяэ)에 있는 68.9ha의 숲과 바르스카(Вярска) 인근의 33.9ha의 영토를 보상으로 받았던 것이다.⁴⁷⁾ 한편 추드호에서 에스토니아와 러시아는 수로를 반반씩 이용하도록 결정했다. 러시아는 추드호에서 나르바로 나가는 출구를 얻게 되었고, 에스토니아는 피리사섬(Пийриса остров) 지역의 호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2005년 국경협정으로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사이의 국경선은 460km가 되었고, 이 가운데 육

47) <http://ru.wikidia.org/wiki> (Саатсеский сапор).

로 국경선이 138km였다.⁴⁸⁾

그러나 2005년의 에스토니아-러시아 국경협정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문제는 에스토니아 의회가 비준 과정에서 1991년 에스토니아 국가의 독립에 관한 내용과 문제의 영토를 에스토니아에 귀속시켰던 타르투 평화조약을 인용했던 것이다.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이를 해당 영토에 대한 권리주장으로 간주하고, 국경협정의 서명을 취소했다.⁴⁹⁾ 그리고 2009년 1월까지도 러시아의 외무부 차관 블라디미르 티토프(Владимир Титов)는 국경협정에 대한 에스토니아 국회의 잘못된 비준 처리가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협정 결렬의 원인을 에스토니아에 돌리고 있다.⁵⁰⁾

발트3국 각국이 러시아와의 국경 문제를 처리한 순서는 자국 내의 반러 감정의 정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다. 러시아 본토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심각한 대립을 보이지 않았던 리투아니아는 2003년에 국경 문제를 종결지었다. 한편 러시아와 군사적·경제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던 라트비아는 2007년에 국경선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반면에 가장 강력한 반러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나르바강과 추드호라는 민감한 지역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에스토니아는 아직도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경협정의 전반적인 양상은 발트3국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는 국경 문제를 종결지었고, 에스토니아 정부 역시 국내에서 국경협정을 원안 그대로 비준받지는 못했지만 협정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발트3국이 1920년에 새로 얻었던 러시아 영토를 다

48) <http://www.tomchina.ru/society/news/1147.html>.

49) <http://www.rg.ru/2006/01/20/estonia.html>.

50) <http://kp.ru/online/news/192061>.

시 차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와의 국경협정을 매듭짓지 않고 10년 넘게 끌고 있는 것은 국내정치에서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 정치에 대한 모든 분노를 가상의 적에게 돌리도록 만드는 민족주의 감정은 발트3국의 신흥 지배층이 현 상황을 고착시키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트 국가들의 정치가들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다. 그것은 러시아의 자원외교 때문이다.

발트3국이 2004년에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주변의 친서방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러시아의 자원외교는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2005년 12월에는 러시아와 독일이 북유럽 가스관(North European Gas Pipeline) 공동 건설 사업을 체결하여 2010년에 완성하기로 발표했다.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가스관이 건설되면, 러시아 남부의 가스는 페테르부르크와 브이보르그를 통과한 후 발트해를 거쳐 발트해에 면한 독일 동부지역을 통해 베를린으로 수송된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가스가 우크라이나나 발트3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독일로, 나아가 서유럽 다른 국가들로 수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스관 건설계획은 폴란드와 발트3국의 에너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였다. 발트3국은 이미 이러한 계획이 진행될 때부터 러시아가 북유럽 가스관을 에너지 봉쇄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가스관이 발트3국을 통과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리고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가스관 건설협정이 체결되자마자 이는 러시아와 독일의 신에너지 패권동맹이며 제2의 히틀러·스탈린 동맹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힘없이 단순한 비난만으로 러시아가 자국의 자원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 인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전격

중단했다. 이 사건은 4일 만에 해결되었지만, 러시아는 외교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 또한 러시아는 응징의 차원에서 2005년에 나토에 합류한 발트3국에 공급하는 가스의 가격을 2배가량 인상한다고 통보했고,⁵¹⁾ 2007년 4월에 에스토니아의 탈린에서 소련군 동상이 철거되자 에스토니아 항구로 가는 석유 공급을 축소하기도 했다.⁵²⁾ 이렇게 유럽연합에 가입한 발트3국이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당할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나, 이제는 자원 공급의 중단이라는 위기가 찾아왔고, 2005~2007년 사이에 과열의 우려를 낳을 정도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발트3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해서 러시아와의 해묵은 감정싸움이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발트3국의 민족 문제와 국경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세나라는 민족과 언어는 서로 달랐지만, 동부 발트해에 면한 작은 땅 덩어리를 나누어 가지며, 주변 강대국의 압제에 시달리면서도 고유한 민족의식을 형성한 하나의 역사 공동체였다.

발트3국 가운데 리투아니아는 14~15세기에 거대한 국가를 이루기도 했으나,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13세기 이후 계속해서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다. 18세기에 발트3국은 러시아에 병합되어 러시아 제국의 세 주로 편입되었지만, 이들은 언어적·문화적·종교적으로 러시아와는 달랐으며, 시간이 지남

51) <http://www.rosinvest.com/news/100966>.

52) <http://www.novayagazeta.ru/news/312787.html>.

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공동체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발트3국은 20세기에 들어서 두 번의 독립을 이루었는데, 두 차례 모두 러시아의 위기라는 외적인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첫 번째 독립은 1920년 전후로 벌어졌던 러시아혁명과 내전이라는 긴박한 상황의 도움을 받았고, 두 번째 독립은 1990년대 초 소연방의 해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트3국이 지속적으로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자국 문화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들의 독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소련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자국민의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위기를 겪었지만, 리투아니아와 함께 소연방에서 가장 먼저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다. 또한 발트3국은 18세기 이후 공통의 역사 공동체답게 독립 과정에서 상호 협력의 전통을 마련했다.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들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독립의 기반을 마련했고, 결국에는 3국 모두가 함께 독립한 후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발트3국은 오랜만에 얻은 독립으로 인해 과열된 민족주의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발트3국이 보여준 러시아와 자국 내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시민권의 제한과 모국어 확대정책은 자국 내 러시아계 주민들의 수적 위력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일부 필요한 측면도 있었지만, 때로는 과열된 민족주의적 양상으로 불거져 불필요한 대립과 반목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이들 국가는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으로서 대립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국경 문제의 원만한 해결로 나타났다.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는 1920년대에 자신들이 획득했던 영토들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국경선을 인정했다. 에스토니아 정부 역시 비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국경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는 막강한 자원과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대결이 자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언제부터나 발트3국 사이를 오가는 버스에서도 독립 초기에 금지했던 러시아어 안내가 다시 시작되었고, 승무원도 러시아어 가능자를 뽑게 되었다. 발트 국가들끼리도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언어가 필요했는데, 모든 국민들이 새로 영어를 배우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발트3국 내에 수많은 러시아어 사용자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청산해야 할 양금이 많이 남아 있지만, 발트3국 내에서도 공존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으며, 발트 지역에 공존을 표방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확립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 발트3국의 독립 연표

연도	개요
1219	덴마크군이 에스토니아를 점령한 후 탈린 건설
1710	에스토니아 러시아에 편입
1721	라트비아 북부 러시아에 편입
1772	라트비아 남부 러시아에 편입
1795	리투아니아 러시아에 편입
1918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독립선언
1918~1920	발트3국 해방전쟁
1920	소비에트 러시아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평화협정
1939	독소 비밀협정으로 발트 지역은 소련의 세력권으로 편입
1940	소련이 발트3국을 합병하여 소연방 내의 구성공화국으로 재편
1941	독일군이 발트3국 점령
1944	소련군이 발트3국 점령
1985	페레스트로이카
1988	발트3국 각국은 인민전선 결성
1989	발트 총회 결의로 인간 띠 행사
1990	발트3국 각국은 독립선언
1991	발트3국 독립
2003	리투아니아와 러시아 사이 국경협정 확정
2005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사이의 국경협정 결렬
2007	라트비아와 러시아 사이의 국경 확정

• 참고문헌

- 기연수 외(1993), 『현대러시아연구』, 집문당.
- 김규철(1991), 「소련의 민족문제에 관한 연구, 발트3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진석(2007), 『발트3국. 잊혀졌던 유럽의 관문』, 살림.
- 심경욱(1992), 「발트3국 :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美蘇研究』 6권(12월호).
- 유의정(1999), 「발트 해 연안 국가 내 러시아인 문제와 러시아의 정책」, 『슬라브학보』 14권 2호(6월호).
- 조정남(1988), 『소련의 민족문제』.
- Неболсин, Г.(1835),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записки о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России*, ч.1, СПб.
- Платонов, С. Ф.(1993), *Сочинения по русской истории*, т.1 : Лекции по русской истории, СПб.
- Советск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1965, 1976), т.8., т.16., М.
- Дробижев, В. З., Ковальченко, И. Д., Муравьев, А. В.(1973), *Историческая география СССР*, М.
- Верт, Н.(1995),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М.
- Зигмантас Кяупа, Айн Мяэсалу, Аго Паюр, Гвидо Страубе(1999), *История Балтийских стран*, М.
-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СССР. период феодализма IX-XV вв*(1953), ч.1., М.
- Хрестоматия по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стории(1914~1945 гг.)*(1996), М.
- Город России. Энциклопедия*(1994), М.
- Королюк, В. Д.(1954), *Ливонская война*, М.
-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Брокгауза и Эфрона*(CD).

Misiunas, Romuald J.(1993), *The Baltic States : Years of Dependence 1940~1980*, Berkely.

<http://kp.ru/online/news/192061>(Комсомолская правда).

<http://ru.wikipedia.org/wiki> (Граница 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http://ru.wikidia.org/wiki> (Клайпеда).

<http://ru.wikidia.org/wiki> (Саатсеский сапор).

<http://ru.wikipedia.org/wiki> (Саюдис).

<http://ru.wikidia.org/wiki> (Тартуск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между РСФСР и Эстонией).

<http://www.inosmi.ru/translation/232594.html> (inoSMI).

<http://www.novayagazeta.ru/news/312787.html> (Новая газета).

<http://www.regnum.ru/news/934245.html> (REGNUM).

<http://www.rg.ru/2006/01/20/estonia.html>(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http://www.rosinvest.com/news/100966>, (RosInvest).

<http://www.tomchin.ru/society/news/1147.html> (РИА Новость).

변경지역 칼리닌그라드의 역사 정체성 찾기

탈경계 역사학적 시도

한성대학교 윤용선

- I. 머리말
- II. 초기의 역사서술
- III. 과거에 대한 침묵
- IV. 베일을 벗기 시작한 동프로이센 역사
- V. 맺음말

변경지역 칼리닌그라드의 역사 정체성 찾기

탈경계 역사학적 시도

한성대학교 윤용선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쾨니히스베르크·칼리닌그라드(Königsberg/Калининград)에서 1945년 이후 지역 역사에 대한 서술과 관점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쾨니히스베르크는 과거 동프로이센의 북부지역으로서 약 7세기 동안 독일의 지배를 받아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패망과 함께 소련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1946년 7월 칼리닌그라드로 이름이 바뀐 이 도시와 지역은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러시아 공화국 영토로 편입되었다. 칼리닌그라드는 인접국가인 리투아니아와 백러시아가 소연방의 해체와 함께 분리 독립함으로써 러시아 본토와 분리된 고립영토(enclave)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 지역에서는 국가의 식민정책을 통해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과거의 지역 주민이었던 독일인이 떠나고, 러시아 이주민이 그들이 떠난 자리를 채웠다. 칼리닌그라드의 식민은 지역의 이질적인 역사와 전통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시베리아 등지의 식민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모스크바는 이 지역을 소련의 영토로 고착화하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과거에 대한 기억을 왜곡하고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외견상으로도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이 지역의 기원이나 역사에 관해 물어서는 안 되었고, 이주민 자신도 이주 초기에는 이에 관해 물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의 왜곡과 침묵이 마냥 지속될 수는 없었다. 러시아 이주민의 정착이 해를 거듭하면서 미래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미래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과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로 인해 위로부터 억압된 1945년 이전 역사에 대한 기억이 점차 지역 주민의 의식 속에 자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전전 역사에 대한 개인 차원의 연구와 관심의 증대로 나타났다. 개인 차원에서 시작된 연구는 얼마 되지 않아 학계 차원의 연구로 발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프로이센, 고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¹⁾라는 제목의 방대한 통사 연구가 칼리닌그라드 탄생 50주년에 즈음해 출판되었다. 이 작업은 반세기 동안 거주해온 이 지역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하는 러시아인 주민들의 노력 중 가장 진일보한 것이었다. ‘러시아 측에서 바라본 동프로이센 역사에 대한 최초의 의미 있는 작업’²⁾은 칼리닌그라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마침내 과거 소련이 전후 동프로이센 북부지역을 러시아 연방공화국에 편입시키기 위해 시도했던 과거에 대한 기억 지우기가 종말을 고했다.

칼리닌그라드에서 전전 역사의 다시 찾기는 정치적으로 채색된 역사의 덧칠을 걷어내는 작업인 동시에 동프로이센의 특수한 지역 정체성을 정립하

1) *Восточная Пруссия.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ён до конц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сторические очерки. Документы, Материалы*(1996), Калининград.

2) Peter Wörster(1996), 위의 책에 관한 서평, *deutsche studien*, 131/132, p. 415.

는 과정이기도 하다. 오늘날 러시아의 작은 고립영토에 불과한 칼리닌그라드의 역사서술이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이유는 최근 들어 역사학계에서 ‘변경지역(border zon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민족국가를 단위로 한 기존의 역사서술이 안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려는 탈경계 역사학(transnational history)이나 지구사(global history)의 관점에서 볼 때, 변경지역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동북아 지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동과 문화교류가 빈번한 변경지역의 역사는 특정 국가나 문화권에 귀속시킬 수 없는 복합적인 내용을 갖는다. 또한 알자스로렌 지방과 같이 정치적 지배의 빈번한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배권력의 역사나 문화로부터 독립된 고유한 역사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변경지역이 존재하기도 한다. 칼리닌그라드는 적어도 정치적 지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유한 지역 문화와 정체성의 지속적인 발전 없이 이질적인 문화가 시차를 두고 지배했다. 그로 인해 민족국가에 기초한 연속적인 역사서술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유형의 변경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변경지역 칼리닌그라드의 역사적 정체성이 과연 정치적 지배의 변화로 인해 연속성을 상실한 채 평면적인 변화만 거듭했는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가 이질적인 과거와 대면하는 방식, 역사서술의 주체에서 나타난 ‘위로부터의 역사’에서 ‘아래로부터의 역사’로의 변화 등을 다루고자 한다. 시기상으로는 1945년부터 소련 붕괴 이후 역사서술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로 제한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1945년 이전 역사를 둘러싸고 나타난 변화를 추적할 것이다. 또한 점차 형성되고 있는 러시아 주민의 지역 의식 및 정체성의 형성에 대해 전전 역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유럽의 현실 속에서 러시아 역사와 동프로이센의 전통이 변경지역 칼리닌그라드의 미래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초기의 역사서술

1946년 7월 7일 당 선동가 이바노브나(A. Ивановна)는 칼리닌그라드 기관차 제작소 노동자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 가장 러시아적이며 러시아 이름을 가진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 칼리닌그라드는 영원히 러시아 도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러시아 영토에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³⁾ 쾨니히스베르크가 칼리닌그라드가 된 지 3일째 되던 날 있었던 기념식 연설이었다. 하지만 칼리닌그라드를 러시아 영토로 간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건축물, 자연환경, 아직 남아 있던 독일 주민 등은 이 지역이 소련의 다른 지역과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러나 당은 새롭게 정복한 영토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지배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은 무엇보다도 러시아 이주자에게 이 지역이 미래에도 소비에트 영토로 남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했다. 정복 영토에서 소비에트 체제의 지지기반 구축이 시급한 과제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일련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당 조직은 러시아 주민에게 낯설지 않은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칼리닌그라드의 경우처럼 과거 독일의 영토를 러시아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실제적인 연속성을 찾는 것보다는 연속성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 효과적

3) Per Brodersen(2008), *Die Stadt im Westen. Wie Königsberg Kaliningrad wurde*, Göttingen, p. 91.

이었다.⁴⁾ 러시아 이주자에게 생경한 쾨니히스베르크는 이제 근본적으로 탈바꿈해야 했다. 즉, 호페(Bert Hoppe)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을 “새롭게 포맷해야” 했다.⁵⁾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과거는 아예 지워버리던가 아니면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1. ‘슬라브의 구토’ 칼리닌그라드

소련의 칼리닌그라드 지배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독소전이 발발한 1941년 모스크바 지하철역 키로프스카야(Кировская) 근처의 방공 병키에서 이루어졌다. 코민테른 의장 디미트로프(Г. Димитров)는 9월 8일 일기에 초기의 불리한 전황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낙관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원수(스탈린)께서는 의미심장한 농담을 하셨다. ‘우리가 승리하면, 동프로이센을 원주인인 슬라브 민족에게 되돌려줄 것이요. 그리고 그곳에 슬라브 민족이 거주하도록 할 것이요.’”⁶⁾

이처럼 모스크바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칼리닌그라드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으며, 이는 이 지역이 ‘슬라브의 구토(舊土, 이하 구토론)’라는 주장으로 정당화되었다. 구토론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먼저 동프로이센 북부지역의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훗날 러시아

4) Bernhard Giesen(1999), *Kollektive Identität (Die Interkulturellen und die Nationen, Vol. 2)*, Frankfurt(Main), p. 42.

5) Bert Hoppe(2000), *Auf den Trümmern von Königsberg. Kaliningrad 1946~1970(Schriftenreihe der Vierteljahreshefte für Zeitgeschichte, Vol. 80)*, München, p. 113

6) Bernhard Bayerlein(Hrg.)(2000), *Georgi Dimitroff. Tagebücher 1933~1943*, Berlin, p. 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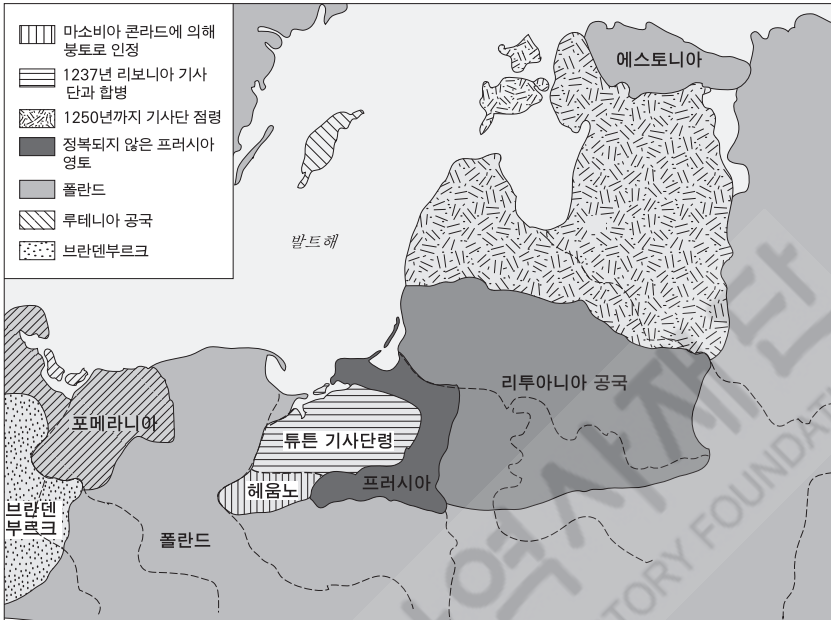


그림 1. 튜튼 기사단의 영토 확장

이주민에게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과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동프로이센 북부지역이 슬라브 영토였다는 주장은 소련 내부에서만 제기되었던 것이 아니라 반(半)공식적인 형태로 대외적으로도 천명되었다. 스탈린은 뼈있는 농담을 한 지 2년이 지난 1943년 12월 1일 테헤란 회담에서 동프로이센에 대한 소련의 영유권을 재차 언급했다. “러시아는 발트해의 부동항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부동항인 쾨니히스베르크, 메멜, 주변의 동프로이센 영토가 필요하다.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보아 슬라브 민족의 영토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⁷⁾

구토론은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도시 이름을 칼리닌그라드로 바꾸는 것

7) Per Brodersen(2008), p. 93.

과 관련해 1946년 소집된 셀룰로이드·제지산업 사무직 노동자 집회의 회의록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과거에 슬라브 민족이 거주했던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러시아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때부터 러시아 이주민은 칼리닌그라드가 과거 튜튼 기사단에 의해 강제적으로 빼앗긴 슬라브 영토로 소련에 다시 합병되었다고 교육받기 시작했다.⁸⁾

지역신문 칼리닌그라드스카야 프라브다는 10월 혁명 30주년에 즈음해 동프로이센의 영토가 ‘수세기 동안 이민족의 지배하에 있던 슬라브 민족의 구토’이며, 이제야 비로소 ‘진짜 주인에게 되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치당 책임자 셰르바코프(В. Щербаков) 역시 1947년 1차 오블라스치당 대회 연설에서 소련군이 슬라브 민족에게 이들의 옛 영토를 되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영토 ‘회복’ 5주년 기념 선집은 러시아 공작 네프스키(А. Невский)가 발트해와 슬라브 민족을 갈라놓은 튜튼 기사단과 맞서 싸웠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갔다.⁹⁾ 칼리닌그라드를 바라보는 소비에트의 관점은 확고했다. 즉, 소련은 이 지역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되찾았다는 것이었다.

셰르바코프는 1947년 9월 모스크바 당 중앙위에서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치 노동자들은 슬라브 민족의 옛 영토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주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¹⁰⁾ 당이 발행한 선전물은 러시아 이주자들이 고향에 보내는 ‘편지’를 게재했으며, 주제는 역시 ‘슬라브의 구토’였다. 이들은 칼리닌그라드에서의 생활이 처음에는 생경했지만 그곳이 원래 슬

8) Per Brodersen(2008), p. 94.

9) Per Brodersen(2008), p. 94.

10) В. Щербаков(1947), *Сталинская Программа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омощь агитатору), Калининград, с. 3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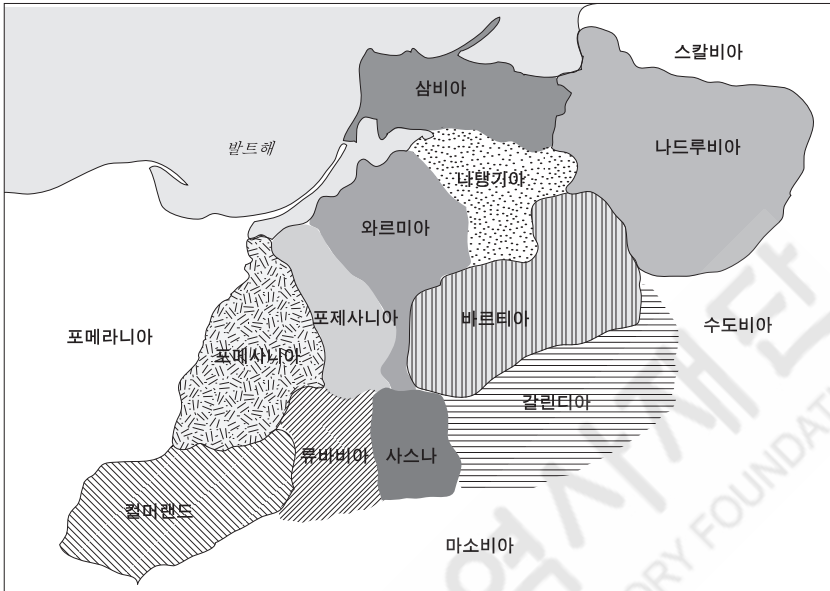


그림 2 13세기경 발트-프로이센 종족들(리투아니아 백과사전).
 우측 하단의 갈린디아에는 발트-프로이센족이 아닌 발트인이 거주했으며, 좌측 하단의 류비비아와 사스나에는 발트-프로이센족과 슬라브족이 함께 거주했다고 본다.

라브 민족의 땅으로 독일 민족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후 피와 땀으로 다시 되찾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¹¹⁾ 칼리닌그라드는 이런 식으로 낮익은 땅으로 규정되었고, 칼리닌그라드로는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토론은 학문적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선전이었다. ‘모든 역사가자가 소비에트 애국주의에 기여해야 했던’¹²⁾ 스탈린 시대 말기에도 다분히 자의적인 이 주장에 동의하는 연구는 없었다. 이 시기에 발표된 코니히

11) “Год на новой земле,” Калининградская Правда(1947, 9. 25), с. 3.

12) А. Данилов, А. Рыжиков(2001), *Рождение сверхдержавы. СССР в первые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Москва, с. 173.

스베르크와 프로이센에 관한 2개의 주요 연구는 ‘슬라브의 구토’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¹³⁾ 소비에트 과학아카데미 역시 이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카데미 회원이던 민속학자 피초타(B. Пичёта)는 1947년 초 칼리닌그라드의 개칭에 관한 공개 소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지역은 과거 한 번도 슬라브 영토인 적이 없었다. 각기 다른 시기에 이곳에 원래 거주했던 프로이센인(독일이 아닌 발트 민족 중 하나)과 리투아니아인은 슬라브 민족이 아니었다.”¹⁴⁾

그러나 구토론은 학계의 불신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치는 1954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전 연방 농업전시회(ВСХВ)에 초청되었는데, 여기서 구토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블라스치당은 1949년 전시회 개최 계획이 알려지자, 이를 ‘칼리닌그라드의 슬라브적 전통’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모스크바로 하여금 변방인 칼리닌그라드를 주목하도록 하는 기회로 이용하려고 했다.

전시회를 위해 발행한 화보집에는 동프로이센 지역에 선사시대부터 13세기까지 슬라브족이 거주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 밖에 소비에트 고고학자들이 고대 슬라브족이 거주했던 흔적과 도시와 유사한 형태의 거주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발굴조사는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과학아카데미 발굴단이 두 차례에 걸쳐 칼리닌그라드를 방문한 바 있다. 하지만 슬라브족의 거주 흔적을 발견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았다.¹⁵⁾

13) Martin Schulze Wessel(1994), *Rußlands Blick auf Preußen. Die polnische Frage in der Diplomatie und der politischen Öffentlichkeit des Zarenreiches*, Stuttgart, p. 374 이하.

14) Per Brodersen(2008), p. 95.

15) Per Brodersen(2008), p. 95.

추상적이고 모호한 선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오블라스치 정부는 구토론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매진했다. 칼리닌그라드스카야 프라브다는 지리학자 쿠즈네초프(Ю. Кузнецов)가 조사를 통해 찾아낸 동프로이센의 토속신앙을 슬라브족의 거주를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했다.¹⁶⁾ 이어서 신문은 레닌그라드 물질문화사 연구소가 1946년 실시한 고고학 조사 결과 역시 슬라브족의 거주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¹⁷⁾ 당시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 작업은 다분히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었으며,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굴 결과는 훗날 대부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칼리닌그라드 역사의 러시아화가 구토론 외에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동프로이센 북부지역 선주민이 튜튼 기사단의 지배 이후 독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였다. 고대 동프로이센의 지역문화를 연구한 구레비치(Ф. Гуревич)는 이 지역이 독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독일 고고학계의 입장은 근거가 없으며, 선주민은 슬라브 문화와 유사한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¹⁸⁾ 구레비치는 1950년 오블라스치 박물관 활동보고서를 통해 발굴 작업 결과를 계속 발표했는데, 발견된 도기의 형태와 문양은 전형적인 슬라브 도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1950년 7월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발굴된 많은 유물이 지역 선주민은 슬라브족이 아니라 고트족

16) С. Марков(1947), “Исследование о русских поселениях в Восточной Пруссии,” *Калининградская Правда*, с. 4.

17) В. Суворов(1998), “Древняя История края в исследованиях 1940~1960 годов,” Г. Щеглова, ed., *Калининградские архивы :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Vol. 1, Калининград, с. 117.

18) Ф. Гуревич(1949), “О чём говорят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паскопки,” *Калининградская Правда*(1949. 8. 5), с. 4.

이라는 독일 고고학계의 주장이 역사 왜곡임을 보여준다고 결론지었다.¹⁹⁾

역사의 러시아화는 교육을 통해 활발하게 확산되었다. 칼리닌그라드 문화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에만 ‘칼리닌그라드 지역의 과거’라는 주제로 무려 135차례의 강연이 개최되었고 9,158명이 강연을 들었다.²⁰⁾ 구레비치의 연구는 지역사 연구 붐을 일으켰으며, 그 결과 대학에서는 ‘칼리닌그라드 지역의 과거’라는 주제로 일련의 강좌가 개설되기도 했다.²¹⁾

구토론은 스탈린 사후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유용성으로 인해 존속했다. 1945년 탄생한 칼리닌그라드는 어차피 역사를 갖고 있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달리 마땅한 대안도 없었다. 하지만 구토론은 점차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표도로프(В. Фёдоров) 교수는 1954년 오블라스치 교육부의 향토사 분과 회의에서 ‘칼리닌그라드 지역의 역사적 과거’를 주제로 발제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에 관해 토론하게 함으로써 구토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오블라스치 박물관장 콜가노프(И. Колганов)는 칼리닌그라드 선주민은 슬라브족이 아니라 발트 프로이센인이라고 주장했으며, 표도로프 교수는 소비에트 백과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지적했다.²²⁾

1955년 오블라스치 당 선전부가 제작한 인쇄물에는 여전히 ‘슬라브-발트 민족 영토’의 선주민은 독일인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인쇄물은 노동자에게 배포되지 않고 선전부 인력의 업무 매뉴얼로만 사용되었다. 칼리닌그라드에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다시금 구레비치의 지휘 아래 재개된 것과 관련한 보고서에서도 고대 프로이센인의 문화가 독일 부르주아 고고학에 의해 왜곡

19) Bert Hoppe(2000), p. 161.

20) Bert Hoppe(2000), pp. 127~147.

21) Ф. Гуревич(1949), с. 4.

22) Bert Hoppe(2000), p. 172.

되었다는 주장이 반복되기는 했지만, 슬라브라는 단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²³⁾

칼리닌그라드 역사의 탈슬라브화는 객관적인 역사서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과거 선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발굴 유물에 관한 정리나 가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 공화국 문화부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치 책임자 주브코프(В. Зубков)가 1956년 1월 보고한 바에 따르면, 1949~1951년에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물질문화사 연구소 소장인 구레비치 주도 하에 총 23회에 걸쳐 발굴 작업이 실시되었으나, 작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굴된 유물들은 학문적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²⁴⁾

구토론에 대한 비판은 점차 고고학에 대한 거부로 발전했는데, 고고학이 당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연구 결과가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가운데 고대 슬라브족의 것이라고 간주된 발굴지들이 10세기 ‘바이킹 공동체의 무덤’으로 수정되었다. 1년 후 오블라스치 당 집행위는 과거 슬라브족의 거주지역으로 규정된 3개의 발굴지를 보호문화재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보고했는데, 그 이유는 이들 유적지가 역사적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구토론은 이제 당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다. 1965년 발족된 칼리닌그라드 문화재보호국 창립총회는 칼리닌그라드 지역이 역사적으로 슬라브족과 무관하다고 본 독일 고고학계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구토론은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다.²⁵⁾

23) Bert Norpe(2000), p. 140.

24) Bert Norpe(2000), p. 145.

25) Э. М. Колганова, И. П. Колганов(1967), *Путеводитель по Калининграду*, Калининград, сс. 38~43.

스탈린 시대에 발굴된 유적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중요성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유적 관리는 1967년부터 하부기관으로 이관되었으며, 오블라스치 당 집행위 명단에는 23개의 유적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고대 슬라브족의 유적이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오블라스치 정부와 당은 역사의 러시아화를 통한 정체성 정립으로부터 점차 거리를 두었다. 그렇다고 칼리닌그라드 지배의 역사적 정당성 찾기 작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정부와 당은 계속해서 역사정책에 관심을 가졌으며, 다만 슬라브적 요소를 강조했던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지는 않았다.²⁶⁾

2. 칼리닌그라드의 ‘해방’

코니히스베르크는 독일이 자행한 범죄의 역사이다. 수세기에 걸친 역사 속에서 도시는 투쟁과 착취로 점철되었으며, 이민족의 삶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곳의 궁에는 암흑과 침묵이 지배한다. 군사학교와 대강당의 육중한 담벼락 너머 고요한 뒷방, 군사문서보관소, 도서관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전쟁과 착취가 계획되었다.²⁷⁾

동프로이센의 수도 코니히스베르크에 대한 이 끔찍한 묘사는 소련군이 도시를 점령한 지 8일 만에 50만 부가 발행되어 소련 전역으로 배포되었다.²⁸⁾ 이는 물론 칼리닌그라드의 점령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이었다. 소비에트의 점령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작업이 보다 정교한 논리를 갖기 위해서는 구

26) Per Brodersen(2008), p. 125.

27) В. Величко(1945), Падение Кёнигсберга, М., p. 59[Per Brodersen(2008), p. 101에서 재인용].

28) Per Brodersen(2008), p. 101.

토론과 맥을 같이하는 안티테제도 필요했다. 고대와 소비에트의 점령 사이에 역사적 단절이 존재했다는 구토론을 통해 1945년 이전의 700년 역사가 러시아와 분리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700년 독일의 지배는 역사적 의미에서도 재해석할 필요가 있었다. 즉, 13세기 튜튼 기사단의 지배는 동프로이센에 암흑의 시대를 가져왔다. 독일의 지배를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의 간헐적인 동프로이센 침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7년 전쟁(1756~1763년) 당시 러시아의 일시적인 쾨니히스베르크 지배, 나폴레옹 군대의 격퇴와 러시아군의 동프로이센 진군은 러시아와 이 지역을 역사적으로 연결해주는 3개의 귀중한 연결 고리였다.

동프로이센 역사의 재해석을 필요하게 만든 계기는 1944년 소비에트 적군의 진군이었다. 당의 선전에 따르면, 이 지역은 “2개의 프로이센적 요소인 억압과 기만을 내부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다.”²⁹⁾ 이러한 정의는 칼리닌그라드 도시 및 지역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 확고한 전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 모스크바 대학의 그라치안스키(Н. Грацианский)의 주장을 살펴보자. 동프로이센은 정복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13세기 독일 침략의 거점’이 되었다. 독일과 서유럽의 모험적인 기사들이 이곳으로 와 온갖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다. 이러한 서술은 소비에트 사회에서 일종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자본주의적 서구의 퇴폐’를 연상시켰다.³⁰⁾ 이들 기사가 훗날 프로이센의 추동세력인 용커가 되었으며, “독일 역사의 가장 어두운 요소인 억압, 기만, 과도한 자만이 형

29) Martin Schulze Wessel(1994), *Russlands Blick*, pp. 354 이하.

30) Jose M. Faraldo(2003), “Teutonic Knights and Polish Identity. National Narratives, National Self-Image and Socialist Public Sphere,” G. Rittersporn, M. u. a. Rolf(Hrgg.), *Sphären in Öffentlichkeit in Gesellschaften sowjetischen Typs*, Frankfurt a. M., pp. 280~306.

성되었다.” 이처럼 부정적인 프로이센 정신은 비스마르크 시대에 이르러 독일 제국 전체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20세기 독일 제국주의가 중세 튜튼 기사단의 전통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동프로이센은 독일 현대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동프로이센은 독일의 러시아 침략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했으며, 프로이센 융커의 반인륜적이며 반슬라브적인 이데올로기는 동프로이센 침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의 역사를 보건대, 쾨니히스베르크의 해방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는 것이 그라치안스키의 주장이었다.³¹⁾

소비에트의 지배는 과거 독일의 지배를 이처럼 철저히 부정함으로써 정당화되었다. 이로써 러시아 이주자의 의식 속에서는 현재가 이질적이고 부정적인 과거를 점차 대신하게 되었다. 일종의 공백기로 간주되었던 1945년 이전 역사는 동프로이센에서의 찬란한 러시아 역사를 도드라지게 해주는 어두운 과거로만 의미가 있었다.

칼리닌그라드 역사의 이데올로기화는 이내 소비에트 지배를 정당화하고 과거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일련의 자의적 역사해석을 야기했다. 1947년 도시개발 계획은 쾨니히스베르크의 건축물이 독일 봉건영주가 성과 요새를 건설하던 시기의 유산이라고 규정했다. 1946년까지 인스터부르크(Insterburg)로 불렸던 체르냐호프스크(Черняховск)시에 관한 방송보도는 이 도시의 문 앞에서 수많은 러시아인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고 감정을 자극하는 멘트를 하기도 했다.³²⁾

31) Н. Грацианский(1945), Кёнигсберг. Стенограмма публичной лекции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Н. П. Грацианского, прочитанной 19 Сентября 1945 года в Лекционном зале в Москве, М., pp. 5~17.

32) Per Brodersen(2008), p. 102.



그림 3 프로이센 초대 왕 프리드리히 1세 즉위식, 쾰니히스베르크, 1701년. 공국이었던 프로이센은 브란덴부르크와 1701년 프로이센 왕국으로 합병되었다.

칼리닌그라드는 사회주의 혁명이 해방으로 기능한 전형적인 예로 간주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48년 11월 칼리닌그라드스카야 프라브다는 지역의 역사에 관한 글에서 동프로이센은 ‘중세적 야만과 반동의 보루’이자 ‘튜튼 기사단이 대지주로 변신’한 곳이며, 이들로부터 훗날 ‘탐욕스런 용커가 등장’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 밖에 이 지역은 러시아를 지배하기 위한 독일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프로이센 제국주의자들의 뱀등지’, ‘발트 지역에 대한 독일 기사단의 공격을 위한 요새’ 등이 칼리닌그라드 지역을 묘사하는 표현이었다.³³⁾

칼리닌그라드 역사의 평가는 소련이 이 지역을 점령한 뒤 다양한 사료나

³³⁾ Per Brodersen(2008), pp. 102~103.

유물들이 공개되기 전인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역사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유물 발굴은 매우 천천히 진행되었다. 그럴수록 칼리닌그라드의 과거를 러시아와 연관시키려는 시도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으며, “서부에 동프로이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당 중앙위 서기 말렌코프(Г. Маленков)의 발언이 새로 탄생한 칼리닌그라드를 정의하는 공식이 되었다. 중앙에서 하달된 이 구호는 지역 신문 1면에 큼지막하게 보도되었으며,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전 연방농업박람회의 칼리닌그라드 홀을 뒤덮었다.³⁴⁾

한편 오블라스치 정부는 모스크바의 이러한 정리에 내재하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즉, 소비에트 지배를 정당화하고 지금까지 소비에트 체제가 이룩한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과거를 부정적인 사건의 연속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 이주민이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독일의 역사와 동프로이센 역사의 접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로 인해 이 지역을 개척한 것으로 선전될 영웅 찾기가 시작되었다.

1940년대 후반 이른바 쥐다노프시나 시기에 칼리닌그라드의 선전은 칼리닌그라드를 러시아 역사에 편입시킴으로써 러시아적 개념과 소비에트적 개념이 공생하는 데 기여했다. 이로써 러시아 중심적 소비에트 애국주의가 민족주의가 금기시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와 동시에 칼리닌그라드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피니히스베르크의 몰락이라는 역사결정론이 확산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서술의 경향은 전후에 나타난 ‘러시아 중심주의’에 다름 아니었는데, 여기에서는 역사와 문화에서 비러시아적 요소를 대부분 제거했던 반면 러시아 역사에는

34) Per Brodersen(2008), p. 103.

이와 반비례해 그만큼 더 특권적 지위를 부여했다.³⁵⁾

그러나 러시아 중심의 역사서술을 위해서는 접근방법의 선택이 불가피했다. 이를테면 1945년 이전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프리즘은 이미 러시아적으로 다듬어져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프로이센과 러시아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인정한 접점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는데, 여기서 역사와 현재는 융합을 통해 서로 합쳐졌다. 소비에트의 역사적 전략은 이곳 칼리닌그라드가 러시아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이를 위해 소비에트 정권이 택한 방법은 지역과 러시아를 단순하게 연결하기보다 칼리닌그라드와 관련된 러시아 영웅 신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7년 전쟁의 영웅 수보로프(A. Суворов) 장군과 칼리닌그라드를 연관시킴으로써 이 지역은 1945년 이전 역사와 연결되었다.³⁶⁾ 지역정부는 역사서술을 크게 보아 두 가지 방향에서 시도했다. 먼저 서구의 교전국과 비교해 러시아와 소련의 우월성을 강조했으며, 이어서 쾨니히스베르크가 소련에 편입된 것은 결코 예외적이거나 일시적이 아니라 매우 영웅적인 사건으로 선전되었다.

칼리닌그라드스카야 프라브다는 1758년 러시아군의 쾨니히스베르크 점령 190주년에 즈음해 “러시아는 프로이센을 이미 격퇴했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1948년 1월 게재했다. 4개의 사건이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의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였다. 쾨니히스베르크는 7년 전쟁을 통해 러시아 제국에 합병되었으며, 이를 주도한 인물이 수보로프 장군이었다. 1757년 그로스예거스도르프

35) D. Brandenberger(2002), *National Bolshevism, Stalinist mass culture and the formation of modern Russian national identity, 1931~1956*, London : Cambridge, p. 196.

36) D. Brandenberger(2002), p. 196.

(Großjägerdorf) 전투에서 보여준 ‘러시아군의 강인함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이곳의 이름은 ‘이때부터 모든 러시아인의 가슴에 많은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6개월 후인 1758년 1월 쾨니히스베르크 점령은 프로이센에 커다란 타격을 가했으며,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군에 격퇴당한 후 퇴각하는 과정에서 독일군 요새는 러시아군의 두 번째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군은 세 번째로 프로이센 국경을 넘었다.³⁷⁾



그림 4. 수보로프 장군(1729~1800)

그러나 무엇보다도 1944년 갈리츠키(Галицкий) 장군의 병사들이 독일 국경을 넘어 역사상 네 번째로 동프로이센으로 진군한 역사적 순간을 기억해야 했다. 이를 통해 “역사 평가가 사실상 완결되었으며, 이러한 판결은 소비에트군과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총사령관 스탈린 원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오블라스치 당 서기 셰르바코프가 1947년 12월 제1차 당 대회 연설에서 한 말이다. 칼리닌그라드스카야 프라브다는 1948년 “쾨니히스베르크의 정복과 함께 프로이센 군국주의에 대한 역사의 평가가 내려졌으며, 역사적 합법칙성이 회복되었다”고 보도했다.³⁸⁾

이로써 역사의 순환이 종결되었다. 즉, 러시아가 건국한 이래 7년 전쟁과

37) Per Brodersen(2008), p. 104.

38) Eckhard Mattes(2001), “Verbotene Erinnerung. Die Wiederentdeckung der ostpreußischen Geschichte und regionales Bewußtsein im Gebiet Kaliningrad (1945~2001),” *Osteuropa*, 11/12, pp. 1354~1356.

제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의 동프로이센 점령을 거쳐 1945년 소련의 점령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쾨니히스베르크는 이제 명실상부한 소비에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 신문의 논조였다. 이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영토였다는 것이 선전 내용이었지만, 러시아 이주자의 눈에 비친 칼리닌그라드는 여전히 생경하기만 했다.

III. 과거에 대한 침묵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 직후인 194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쾨니히스베르크의 점령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작업은 다분히 선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독일 주민을 몰아내고 러시아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당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선전을 위해 역사를 무한정 왜곡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기의 역사서술은 영향력을 상실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 거북한 과거를 왜곡하는 대신 아예 이에 관해 침묵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 과거 없는 새로운 시작

1949년 7월 11일에 문을 연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는 전후 칼리닌그라드에서 국가의 역사정책이 장차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예측 가능하게 해주었다. 문서보관소의 주요 업무는 1945년 이후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치의 모든 행정기관이 발행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문서들을 보관하는 것이었다.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는 과거 쾨니히스베르크 프로이센

국립문서보관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전전 이전의 사료를 보관한 것은 아니었다. 프로이센 국립문서보관소가 관리하던 문서 중 불과 일부분 남아 있었는데, 이는 전쟁 중 미처 옮기지 못한 것들이다.³⁹⁾

새로 출범한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의 임무는 과거 프로이센 국립문서보관소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1945년 이전 쾨니히스베르크와 동프로이센의 역사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 역시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의 소관사항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 기구 외에 지역의 전전 역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식으로 사료 보존 및 역사정책의 수립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가 1945년 이전 역사와 유리되었다. 그로 인해 동프로이센 북부지역에서 새로운 지역 정체성 정립을 겨냥한 역사화 작업은 동프로이센의 역사와 전통이 결여된 전혀 새로운 의식의 창조를 추구했다.⁴⁰⁾ 이처럼 정치적인 목적에서 선언된 새로운 시작은 과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했으며, 그로 인해 과거 없는 미래의 창조라는 다분히 모순된 상황이 나타났다.

하지만 적어도 전쟁 직후 칼리닌그라드를 갑자기 러시아 영토로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건축물, 자연환경, 아직 도시에 남아 있던 독일인 등은 이 지역이 소련의 다른 지역과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여기서 러시아적인 것이 곧 위대함이자 우월함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었다. 칼리닌그라드에서 이러한 정의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

39) Bernhard Jähmig(1994), "Amtsrechnungen und andere Akten der Kriegs- und Domänenkammern des istorischen Stadtarchivs Königsberg im Gebietsarchiv Kaliningrad," *Preußenland* 32, pp. 16~29.

40) Svetlana Galcova(1994), "Die Geschichte des Kaliningrader Gebietes in der sowjetischen Forschung," *Nordost-Archiv*, N. F. III, p. 496.

성을 통해 신뢰를 얻어야 했다. 따라서 당의 선전정책은 독일적인 과거가 아닌 미래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이주자들 역시 과거가 아닌 일상만 생각했으며, 미래에도 이 지역이 소련방의 일원으로 남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있었다.⁴¹⁾

지역 당은 이주 초기에 나타난 혼란과 여러 문제로 인해 소비에트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당은 주민들에게 이 지역이 현재 소비에트 영토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을 어떤 식으로든 심어주어야 했다. 따라서 당은 비독일적인 새로운 정체성 정립을 위해 지역 이미지 구축 작업에 착수했는데, 새로운 이미지는 러시아적 환경에서 생활해온 이주민에게 친근한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성을 사실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어울리는 연속성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⁴²⁾

이주자에게 생경하기만 한 쾨니히스베르크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탈바꿈해야 했다. 그로 인해 무엇보다도 역사가 당이 추진했던 정체성 정립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칼리닌그라드에서 초기 역사정책의 목적은 독일에 의해 만들어진 과거를 지우는 데 있었다.

2. 초기 지역사 연구

설립 초기 문서보관소의 업무는 주로 정부문서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에 국한되었다. 문서의 수집 및 보존 업무는 1950년대 말~1960년대 초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후부터 문서보관소가 개방되었다. 문서보관소가 개방됨으로써

41) D. Brandenberger(2002), p. 192.

42) Bernhard Giesen(1999), p. 42.

정부문서를 토대로 한 지역사 연구가 가능해졌다.

문서는 보관소에 접수된 지 10년 후부터 공개되었으며, 비공개문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공개되지 않았다. 비공개문서는 수십 년에 걸쳐 공개되지 않았는데, 보관문서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었으며,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서고에서 나오지 않았다. 물론 공개가 허용된 문서도 있었는데, 문서보관소의 안내문에 따르면, 이주국이 발행한 문서는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했다. 이에 반해 민간행정청(Zivilverwaltung) 문서는 일부만 공개되었다. 칼리닌그라드 대학 지역사 교과서는 1984년까지도 지역사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질 수 없는 이유로 사료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⁴³⁾

교육학연구소의 소련공산당사 담당 교수였던 파루틴(И. Фарутин)은 1961년 오블라스치 탄생 15주년을 기념해 기획 중인 ‘칼리닌그라드 지역 발전사’를 집필하기 위해 1958년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 소장 사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의 연구는 칼리닌그라드 지역사에 관한 초기 연구인 데다, 그는 당시 비공개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연구는 특히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칼리닌그라드 대학에서 소련 공산당사 담당 교수로 계속 활동했던 파루틴은 1980년부터 사료집 발간 작업에 매달리기도 했다.⁴⁴⁾

이 시기에 지역의 기원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한 학자는 파루틴만이 아니었다. 부토브스카야(С. Бутовская)는 1959년 칼리닌그라드 도시사 연구를 발표했다. 그녀는 길지 않은 서문에서 도시사를 간략하게 개괄한 후, 소련군의 쾨니히스베르크 점령부터 현재에 이르는 도시의 발전 과정을 서술했

43) Eckhard Mattes(2001), “Verbotene Erinnerung,” p. 1356.

44) Eckhard Mattes(2001).

다. 그러나 책에서는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에서 초기 이주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당시의 실상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독자들은 책 속에서 산업시설과 항구를 갖춘 번창하는 대도시, 공원과 호수가 있는 전원적인 도시, 여러 문화시설과 역사적 유적이 있는 고풍스러운 도시를 떠올리게 된다. 세계에 열려 있는 도시 칼리닌그라드, 그곳의 “거리에서 우리는 심심찮게 폴란드 친구들을 만난다.” “칼리닌그라드 시민은 이 도시를 사랑하며, 도시의 역사에 관해 흥미를 갖고 공부한다.”⁴⁵⁾

부토브스카야의 연구는 이주 초기 상황에 대한 이주자들의 기억이나 진술과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그녀의 연구는 당시 이주한 지 14년이 채 되지 않은 이주자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으며, 당의 선전 정책에 충실했다.

3. 『서쪽의 끝』

당의 노선에 충실했던 부토브스카야의 연구와 달리 칼리닌그라드 지역의 역사와 현황을 다양한 차원에서 조명한 연구가 1959년에 출판되었다.⁴⁶⁾ 이 책은 칼리닌그라드 박물관장이던 콜가노프(И. Колганов)와 그의 부인이자 칼리닌그라드 교육학 연구소의 소련공산당사 담당 강사였던 콜가노바(Э. Колганова)가 함께 집필했는데, 국가행정 체계, 사회기구, 산업 및 농업, 주택 건설, 문화, 기후, 지리적 특성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했다. 그러나 역사와 관련해서는 당의 검열로 인해 전전 역사에 대한 언급이 결여된 채 전후 역사가

45) Eckhard Mattes(2001), p. 1357.

46) Э. М. Колганова, И. П. Колганов(1959), *Самая западная, Краткий очерк о 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Калининград.

러시아사와 직접 연결되는 형태로 서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가노프 부처의 저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성격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생경한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했던 당시의 이주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역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이주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이질성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렇다고 지역의 특수성이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책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전반적인 내용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를 이데올로기로 채색하려는 당의 정책과 이주자 개인이 생활과 자연에서 체험한 경험이 뒤섞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 책 역시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 판이한 칼리닌그라드에 정착한 이주자에게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 점에서 콜가노프의 연구도 역사 연구로서는 특기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서쪽의 끝(Самая западная)』의 내용은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끄러운 서술과 풍부한 정보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책을 출판한 출판사의 1958~1961년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이 책은 선전담당자들에게 배포되었다고 한다. 책의 수요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은 3,000부밖에 발행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만성적인 물자 부족이었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칼리닌그라드의 특수성이라는 테마 자체가 당의 입장에서 볼 때 별로 탐탁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⁴⁷⁾

47) Eckhard Mattes(2001), p. 1359.

4. 과거의 상징으로서 성터의 처리 문제

칼리닌그라드의 과거 지우기에 매진하던 당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도시에 남아 있던 성터의 처리였다. 전쟁 중에 파괴된 모습을 간직한 채 서 있는 성곽은 러시아에서 볼 수 없는 생소한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엄연한 과거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였다.

전전 역사는 거북한 과거를 언급하지 않고 지역의 이질적인 특수성을 새로운 정체성 정립으로 부드럽게 유도하는 작업이 1960대 초까지 역사정책의 중심 과제였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전전 역사의 정리가 가장 큰 난제였는데, 이 문제는 동프로이센 성곽 흔적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통해 공론화되었다. 성터에 관한 논의는 한 여행안내 책자로 인해 촉발되었다. 1960년 이바노프(Ю. Иванов)가 편집을 맡은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치를 여행하세요(Путешествуйте по 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라는 여행 안내책자의 초고가 탈고되어 이듬해 출판되었다.⁴⁸⁾

이 책의 공동 저자들은 1959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성터 처리 문제에 관해 입장을 표명했다. 옛 성벽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이 지역의 독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임과 동시에 오블라스치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성터 처리를 둘러싼 논의가 갖는 의미는 논의의 내용에 있다기보다 그것이 지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끼친 영향에 있었다. 즉, 이때부터 칼리닌그라드를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일종의 향토애국주의 분위기가 나타났는가 하면,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과거 독일의 역사를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⁴⁹⁾

⁴⁸⁾ Bert Hoppe(2000), p. 161.



그림 5. 파괴되기 전의 리니히스베르크 성

이제 지역사에 관한 연구나 저술은 당이 설정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점차 독자를 의식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 이주자에게 동프로이센의 존재와 자취를 알려주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칼리닌그라드 초기 이주자들은 생경한 독일의 흔적 속에서 이러한 것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회상한다. 지역의 이질적인 과거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한편으로 이주자들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기여했다.

이바노프가 편집한 여행안내 책자는 이러한 과정에 의식적으로 개입했다. 책자의 전반적인 내용은 독자들로 하여금 칼리닌그라드와 동프로이센 북부

49) 성터를 둘러싼 논의에 관해서는 Bert Hoppe(2000), pp. 127~147 참조.

지역의 특수성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전후 사라진 도시건축의 특성에 관해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에서 가장 자세하게 소개된 건축물은 코니히스베르크 성으로, 성곽의 흔적과 관련해 다소 이데올로기로 채색된 해석과 함께 전전 역사를 언급하고 있다. 1961년에 발행된 여행안내서 역시 러시아 독자들에게 동프로이센과 코니히스베르크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전전 역사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착지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서쪽의 끝』이 전자를 선택했다면,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치를 여행하세요』는 후자에 가까운 입장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전전 역사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서쪽의 끝』(1959)과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치를 여행하세요』(1961)가 동일한 저자들에 의해 거의 같은 시기에 집필되었다는 점이다.⁵⁰⁾

IV. 베일을 벗기 시작한 동프로이센 역사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를 중심으로 전후 역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자, 1970년대부터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전후 역사에 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될수록 전전 시기에 대한 관심이 이와 비례해 고조되었다. 대학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특히 소비에트 중등학교의 주요 과목인 지지학(地誌學, краеведение)은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치에서 점차 전전 역사의 밝혀지지 않은 여러 방을 여는 열쇠

⁵⁰⁾ Eckhard Mattes(2001), p. 1374.



그림 6_ 1544년 설립된 알베르티나 대학교, 1900년경

역할을 했다. 전전 역사에 대한 연구는 칼리닌그라드 대학 역사학부 학장인 쥐드코프(Жидков)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지원되었다.⁵¹⁾

그러나 전전 역사에 관한 금기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학계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현상은 당연히 아니었다. 교육과 연구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여전했다. 따라서 전전 역사에 관한 관심 고조와 이에 상응하는 교과 내용의 변화 역시 아동과 청소년에게 고장의 유래와 특성을 이해하는 안목을 함양하라는 러시아 공화국 교육부의 기본방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⁵²⁾

쥐드코프에 따르면, 칼리닌그라드 역사를 고대부터 현재까지 아우르는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만들려는 안은 이미 1966년에 채택되었다고 한다.⁵³⁾ 소

51) Eckhard Mattes(2001), pp. 1369~1374.

52) Eckhard Mattes(2001), p. 1374.

53) Eckhard Mattes(2001), p. 1375.

비에트 역사교육의 기본원칙이 자국사를 철저하게 교육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칼리닌그라드의 경우 역사교육이 지역 정체성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드코프는 그동안 연구나 교육에서 전전 역사를 가리고 있던 제도적 장막을 과감하게 걷어버렸다.

교육에서 지지학의 중요성이 커지자, 칼리닌그라드에서는 초기 거주부터 소련의 점령 시기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1960년대의 역사정책과 비교했을 때, 이는 실로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전 역사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1980년대 전반까지 지속되었으며, 이후부터 비로소 대학생, 교사, 학생들은 새로운 역사교육의 세계를 경험했다. 이때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와의 대면이 시작되었는데, 도시의 옛 모습, 건물 사진, 전전 시대의 도로와 광장, 일상생활 등이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를 통해 현재를 과거와 비교할 수 있었다.⁵⁴⁾

이러한 분위기는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더욱 확산되었다. 쾨니히스베르크 점령 40주년이 되던 1985년에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에서 대규모 기록사진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전시회에서는 도시의 과거 모습과 1985년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나란히 전시되었는데, 사진들은 세 시대, 즉 1985년, 1945년 점령 시기, 전전 시대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회 구성은 엄밀히 말해서 문서보관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즉, 1945년 쾨니히스베르크의 점령이나 전전 역사는 문서보관소의 담당업무가 아니었다. 물론 이를 담당하는 다른 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⁵⁵⁾

54) Eckhard Mattes(2001).

55) Eckhard Mattes(2001), pp. 1375~1376.



그림 7. 옛 증권거래소. 현재는 상가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가 안고 있던 이러한 시기상의 한계는 직원 한 사람의 전문지식을 통해 보완되었다. 전전 시대의 역사에 관한 언급이 금기시되던 시절에도 개인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개인적 관심에서 전전 역사를 연구해온 학자들 중 한 사람인 바흐친(П. Бахтин)은 좋아서 하던 일이 아예 직업이 된 운 좋은 경우였다. 그의 부모는 종전 직후 뤼니히스베르크에서 독일인 주민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는 러시아인이었다. 지역사를 공부하던 그는 이미 1975년부터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치의 역사적 건물들을 사진 촬영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과거 동프로이센의 교회, 성, 요새, 농가 등이 그의 손을 거쳐 사진으로 기록되었다. 그는 오블라스치의 여러 박물관과도 접촉해 많은 문서와 사진자료를 수집했으며, 기타 다양한 정보와 문헌도 정리했다. 그는 학생으로서 대학에 기대했으나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자신이 직접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개설



그림 8. 칼리닌그라드 대학교, 옛 알베르티나 대학 건물 전면만 개축함. 2005년 임마누엘 칸트 대학으로 개명

되지 않는 동프로이센 역사 강의를 찾던 그는 자신과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적으로 만났으며, 강연이나 발표 형식을 빌어서 그동안 축적한 지식과 정보를 이들에게 전달했다.⁵⁶⁾

박물관, 대학, 도서관, 학교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가 할 수 없었던 일이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로써 향토사나 지지학에 관심이 있던 아마추어 연구자들의 역할이 주목받았다. 바흐친이 그러한 경우인데, 그는 지역사에 관한 전문 지식을 인정받아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에 직장을 얻게 되었다. 그는 1984년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에 채용되었을 때 이미 전전 및 전후사 연구에 필요한 지식과 자료를 갖추고 있었으나, 문제는 문서보관소에 그의 이러한 능력을 활용할 만한 업무가 없었다는 점이다.

⁵⁶⁾ 칼리닌그라드 향토사 연구에 관해서는 Eckhard Mattes(2001), pp. 1374~1379 참조.

1980년대 말에 와서야 비로소 사진 및 그림, 각종 기록 및 문서 등과 같은 전전 역사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문서보관소가 아닌 한 직원의 개인 소장 자료였으며, 그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찾는 일반대중과 전문가들에게 공개되었다. 특히 쥐드코프를 통해 더욱 활기를 띠게 된 지역사 및 지리학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던 대학생들이 자료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칼리닌그라드 전전 역사의 소개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바흐친만이 아니었다. 마침내 수십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 동프로이센의 역사가 개인들에 의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물관에서는 볼 수 없던 과거의 모습을 일상에서 늘 볼 수 있었던 칼리닌그라드시 자체가 이제 역사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거대한 박물관으로 변모했다.

1990년대 초부터는 새로운 각도에서 지역을 바라보거나 전전 역사를 밝히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쥐드코프의 노력과 맞물리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는데, 그는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를 지원했다. 공적인 차원에서 제한되었던 역사 연구는 개인들의 노력을 통해 지속되었던 것이다. 한편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는 이 작업에 여전히 참여할 수 있었다.

1. 구술사

칼리닌그라드 지역 연구에서 특히 코스차쇼프(Ю. Костяшов)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주자가 말한다’ 구술사 프로젝트는 빼놓을 수 없다. 이 프로젝트는 1945년 이후 칼리닌그라드로 이주해 온 새로운 거주자 320명을 인터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프로젝트 결과는 1999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⁵⁷⁾

연구 참여자들은 필드리서치와 별도로 문서보관소에서 방대한 양의 문서를 조사했으며, 칼리닌그라드 외부에서도 관련 사료를 수집해 동시대인들의 증언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독일 주민과 소비에트 이주자 간의 접촉이 처음으로 연구 주제가 되었으며,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치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은 독일인에 대한 기억에 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로써 프로젝트는 칼리닌그라드 역사 정리에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지역 정체성 형성에서 일종의 과도기를 마련했다. 전후 역사 연구에서는 초기 이주자들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과거 콜가노바가 제기했던 문제, 즉 “어떠한 동기에서 이들이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치로 이주했는가”라는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코스차쇼프는 1996년 당시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제제기는 우리가 창안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그렇게 할 만한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8년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그는 이 작업이 전문가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지도록 조직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⁵⁸⁾

또한 구술사 연구를 자극한 것은 문서형태의 사료에 대한 불신이었다. 1980년 말에 이르면, 급변하고 있던 소비에트 사회의 모습이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에서도 분명하게 감지되었다. 문서보관소의 열람실에는 지역 연구와 관련된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쥐드코프 학장 임기 말경에 볼 수 있었던 학위논문 붉은 끈을 맞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소비에트 체제의 전면적인 부정에서 비롯된 사료의 불신 현상 때

57) Eckhard Mattes(Hrg.)(1999), *Als Russe in Ostpreußen, Sowjetische Umsiedler über ihren Neubeginn in Königsberg/Kaliningrad nach 1945*, Ostfildern.

58) Eckhard Mattes(1999), p. 4.

문이였다. 페레스트로이카가 몰고 온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신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소비에트 문서보관소에 있는 공식문서와 사료에 대한 과도한 불신이 팽배해 있었다. 코스차쇼프 역시 역사 프로젝트 단행본 서문에서 사료의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⁵⁹⁾ 그로 인해 현대사적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료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으며, 연구에서 새로운 방법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칼리닌그라드 대학에 ‘구술사 협회’가 결성되면서 조직화되었으며, 이로써 미래의 연구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사료에 대한 불신은 지역사를 주제로 한 석사학위논문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으며, 1990년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주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⁶⁰⁾

2. 새로운 잡지-정체성 찾기 포럼

1992년은 잡지 『서부 러시아(Запад России)』의 창간호가 나왔던 해이다. 이 잡지는 독자들에게 급격한 사회변화에 직면해 칼리닌그라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예지로 출발했다. 잡지는 기본적으로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치가 처해 있는 과도기적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우리 고장은 유럽 문화와 우리의 조국이 만나는 지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연관성을 가시화하고, 이러한 관계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에서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후 역사를 넘어 먼 과거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⁶¹⁾

59) Eckhard Mattes(1999), p. 12.

60) Eckhard Mattes(1999).

『서부 러시아』는 지역의 정체성 형성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매체로 평가된다. 이 잡지를 통해 칼리닌그라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과거에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바로 여기에 새로운 지역 정체성 형성의 의미가 놓여 있었다. 포파딘(A. Попадин)은 『서부 러시아』에서 칼리닌그라드 지역의 정체성 형성 문제와 관련해 이처럼 새롭게 나타난 현상을 다룬 글을 발표했다.⁶²⁾ 그는 지속과 단절, 지역의 전통과 민족적 차이를 1945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여주고자 시도했다. 또한 여기서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러시아의 이해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속에서 칼리닌그라드의 정체성을 규정하고자 했으며, 지역 정체성이 양자의 사이에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서술했다. 그는 동프로이센에서 대면한 독일인과 러시아인이 지속으로서의 지역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해갔으며, 지역 정체성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지속으로서의 지역에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역사서술에서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칼리닌그라드에 남아 있던 독일인이 전후 역사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물론 독일인에 관한 언급은 극히 제한된 형태로 나타났는데, 1990년 5월에 마련된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치 역사문화박물관 장기 전시회 계획은 독일인과 관련된 사료 몇 점을 전시품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신분증명서, 제2셀룰로이드-제지 콤비나트에 근무한 독일인 명단, 독일 주민의 식량배급에 관한 지역사령관의 지시문, 독일 주민이 발행한 신문 『새 시대(Neue Zeit)』 등에 국한되었다.⁶³⁾ 그럼

61) Запад России 1/1992, с. 3.

62) А. Попадин(1994), “Калининградец : проблема идентичности,” *Запад России*, 2, сс. 106~116.

63) G. V. Glinski, P. Wörster(1990), *Königsberg. Die ostpreußische Hauptstadt in*



그림 9. 칼리닌그라드 역사문화박물관

에도 불구하고 독일인의 존재를 전후 역사에 포함시켰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동프로이센의 독일인을 지역사에 언급하는 것은 오블라스치 박물관 입장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박물관의 정책은 이를 간섭하는 상부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소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 동프로이센과 쾨니히스베르크에서 만들어진 옛날 그림엽서 특별전시회 개최는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사례였다. 전시된 그림엽서는 오늘날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강제추방 조치된 동프로이센 독일 농민들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농민의 필체로 2개의 언어로 쓴 그림에 대한 설명⁶⁴⁾ 중 몇몇은 1992년 당시

Geschichte und Gegenwart, Berlin, p. 201.

64) G. V. Glinski, P. Wörster(1990), p. 205.

칼리닌그라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경한 것이었으며, 독일과 인접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3. 새로운 주제와 개인 차원의 연구

1990년대부터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 방문 연구자들이 다루는 주제가 매우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칼리닌그라드 대학 졸업생의 학위논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외국학자 중에서도 특히 독일에서 온 연구자들도 연구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⁶⁵⁾ 문서보관소는 1990년대부터 1945년 이후 이루어진 러시아인의 이주 및 정주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제공했다. 종교, 1948년까지 독일 주민의 상황, 도시 건설 및 계획, 지역 문화, 오블라스치 내 각 지역의 이주, 경제, 오블라스치 형성 초기 군의 역할, 모스크바의 칼리닌그라드 정책,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문서들이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했다.

칼리닌그라드와 동프로이센 북부지역을 주제로 한 기존의 석·박사학위논문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척 분야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연구 분야의 확대는 당연히 소련 내부에서 일어난 개방의 물결로 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유럽 정치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역사 분야에서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특히 1945년 이전 역사에 관심이 있는 아마추어 역사가들의 모임이 결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주목하는 전

65) 대학에서 나타난 새로운 연구경향에 관해서는 Eckhard Mattes(2001), pp. 1381~1383 참조.

전 역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개방 이후 이들에게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아마추어 역사가들이 결성한 최초의 단체 프러시아 형제단은 초민족적 단체임을 선언하고, 당시 막 독립한 리투아니아에 본부를 두었다. 이 단체는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와 협력하여 1990년 칼리닌그라드의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과거 쾨니히스베르크에 관한 역사 정보를 부가하는 도시의 역사 지도를 제작했다.⁶⁶⁾ 프러시아 형제단은 고대에서 1945년까지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재발견하는 데 주력했다. 그로 인해 이 단체는 독일의 역사와 독일적 전통에 초점을 맞추는 독일 농민 단체의 입장과 달리 이 지역의 다민족적 전통을 강조했다.⁶⁷⁾

같은 시기에 주로 젊은 층으로 구성된 다소 느슨한 단체인 동프로이센 클럽이 결성되었으며, 이 모임은 문서보관소에 단체 등록을 한 후 그곳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다양한 직업과 학력을 가진 회원들은 동프로이센 역사에 대한 관심을 매개로 모였다. 이들은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에서 조건 없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단체 역시 주로 전전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전 역사에 대한 관심은 칼리닌그라드에서 애용하는 커피의 기원을 다룬 바흐친의 논문을 통해 고양되었다. 바흐친은 1231년에 독일 기사단이 커피를 마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⁶⁸⁾

66) Mikkel Klosse(1991), *Bruderschaft "Prusa": Königsberg heute. Handreiseführer zur individuellen Stadtbesichtigung im Wandel, Sebenswürdigkeiten, Daten*, Vilnius.

67) Mikkel Klosse(1991), p. 3.

68) Eckhard Mattes(2001), p. 1382.

4. 조심스러운 개방

개인들이 시작한 전전 역사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결국 역사학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996년 앞서 언급한 『동프로이센, 고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⁶⁹⁾가 마침내 편저 형태로 출판되었다. 기억의 억압은 현재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의해 점차 밀려났다. 전전 시대를 포함하는 지역사 연구는 1960년대 초반에 잠시 제기되었다가 이내 사라진 후 1990년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역사 연구의 지평 확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러시아와 관련이 없는 지역사가 연구되기 시작했다. 『동프로이센』이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물이었다. 둘째, 동프로이센에서의 러시아사가 연구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16세기부터 10월 혁명에 이르는 약 4세기에 걸친 기간에 다양한 연구 주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1961년 발간된 여행안내서와 1967년의 도시안내서에 언급된 바 있다. 그 밖에 과거 콜가노프가 제안한 여러 주제가 1990년대에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연구 결과가 출판되기에 이르렀다.

전후 역사에서도 일정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1996년 발행된 『동프로이센, 고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의 마지막 장에서 다루어졌다.⁷⁰⁾ 전후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사의 한 부분이다. ‘독일 주민의 비극과 역사 정리’라는 제목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 클레메셰바(М. Клемешева)는 동프로이센 독일 농민에 관한 이야기로 글을 마무리한

69) 주 1 참조.

70) *Восточная Пруссия*, 12~15장, pp. 440~490.

다. 이렇게 해서 전후 역사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마저 이제 역사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역사 연구의 변화와 함께 전례 없이 커다란 주목을 받은 기관은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였다. 이 기관은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관련 문서로 인해 전후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와 리투아니아의 국경 문제가 현안 문제로 대두함으로써, 문서보관소는 전례 없이 바쁜 나날을 맞게 되었다. 중고등교육에서도 지역사 교육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문서보관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해 문서보관소는 1980년대 칼리닌그라드 대학 역사학부 학장 쥐드코프가 적극 지원한 기본노선, 즉 전전 역사의 개방이라는 원칙을 견지했다.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는 지역연구사의 증인이기도 하다. 1950년대 말부터 오블라스치 문서보관소를 방문한 이용자를 살펴보면, 연구경향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서보관소는 연구경향을 파악하는 일종의 바로미터와 같으며, 이러한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⁷¹⁾ 1998년부터 학술연구 총서인 『칼리닌그라드의 문서보관소들(Калининградские Архивы)』이 발간되고 있는데, 총서는 다양한 화두를 다룸으로써 미래의 지역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1년까지 문서보관소 위원회 편으로 세 권의 책이 출판되었으며, 이후부터 전문 역사가 모임인 실험실이 작업에 동참했다. 이로써 대학, 과학아카데미, 향토사가, 문서보관소 등 지역사 연구에 참여해온 다양한 연구그룹이 모두 참여하는 총서가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총서는 지지학 분야에서 연구 및 자료와 관련된 현안 문제들을 총망라했다. 총서는 크게 1)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치의 문서보관소 및 문

71) Eckhard Mattes(2001), p. 1384.

서보관체제, 2) 동프로이센 역사, 3) 사료와 학문 연구를 통해 본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치 역사, 4) 연구 환경, 정보, 서평 등의 네 분야로 분류되었다.⁷²⁾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1940년대 후반까지 칼리닌그라드에서는 동프로이센의 역사를 운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소비에트 점령 초기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독일적 과거는 러시아 또는 소비에트에 의해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서술은 이데올로기로 채색되었다.

1950년대 이후부터는 전전 역사의 왜곡 대신 침묵이 선택되었다. 칼리닌그라드 지역을 전전 시대와의 관계 속에서 보려는 시도는 1960년대에 잠시 논의된 적이 있지만 이내 사라지고 말았으며, 30여 년이 지난 1990년대에 비로소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전전 시대에 대한 침묵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고, 문제의 해결책은 독일의 흔적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인정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러시아가 지배하는 현재와 연결시키는 데 있었다. 따라서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지역 정체성을 자민족 역사와 연관시키려는 노력은 갈수록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는 누구인가? 유럽의 뒤떨인가 러시아의 일부인가?⁷³⁾ 칼리닌그라드 대학 외국문학부 학장 그레시니흐(В. Грешных)가 던진 이 질문은 변경지역으로서 칼리닌그라드가 안고 있는 고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72) Eckhard Mattes(2001).

73) В. Грешных(1997), “Кто мы? Задворки Европы или Россияне?,” *Квадрат*, 2, сс. 5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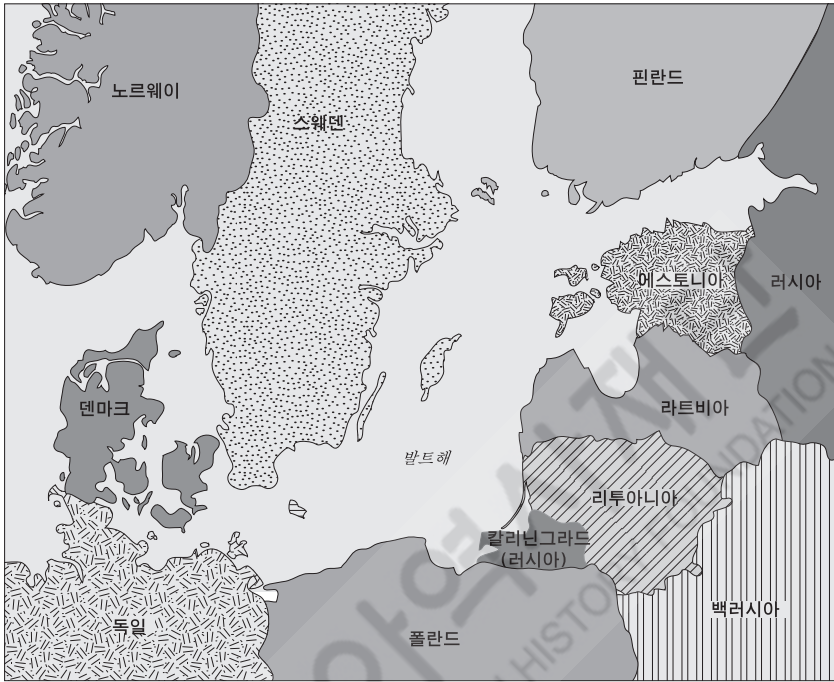


그림 10_ 그림영토 칼리닌그라드

러시아 주민의 자의식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동프로이센의 역사와 러시아의 역사가 빈번하게 교차했으며 여러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1990년대에 동프로이센과 표트르 대제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으며, 7년 전쟁 중 러시아가 동프로이센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은 볼로토프(Вологов)만이 아니었다. 칼리닌그라드 대학 역사학부는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쾨니히스베르크 대학과 18세기 러시아 계몽주의가 서로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으며, 이는 1996년에 발표되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⁷⁴⁾



그림 11_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트 지도

그러나 동프로이센의 역사에서 러시아의 흔적을 찾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었다. 즉, 동프로이센에서 러시아적 전통을 강조할수록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 대비되는 이 지역의 특수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포트르 1세의 서구정책이나 계몽시대에 볼 수 있었던 서구와의 다양하고 빈번한 접촉은 이 지역이 러시아 본토와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였다. 게다가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러시아 제국이 과거에 서구화, 개방, 초민족적 협력과 소통을 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들이었다. 포트르 대제로 상징되는 러시아와 서구 사이의 소통의 역사를 부각시키는 것은 칼리닌그라드의 편입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동시에 이 지

74) Eckhard Mattes(2001), p. 1390.

역이 자신의 비러시아적 전통을 인정하고 이를 자기 역사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민족국가를 전제로 한 전통적인 역사 인식을 통해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칼리닌그라드에서 내셔널 히스토리는 별로 생산적인 담론이 아니다.

칼리닌그라드는 18세기 페테르부르크처럼 오늘날 러시아의 서구를 향한 창이 되었다. 하지만 서구로 향한 이 창 의 뒤편에는 러시아가 있다. 칼리닌그라드는 이곳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에게 러시아 외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의 전통을 일깨움과 동시에 칼리닌그라드의 미래는 러시아의 발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바로 이 점에서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와 구별되며, 이러한 차이는 이곳 주민들의 의식 속에 점차 자리하고 있다. 변경지역의 공간적 특수성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한 역사담론이나 한시적인 정치적 지배가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영속적인 세계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칼리닌그라드는 탈경계 역사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주요 사례 중 하나이다.

• 쾨니히스베르크·칼리닌그라드 연표

연도	개요
1231	독일 기사단, 고대 프로이센인들의 거주지역 정복
1242	뤼벡 상인, 발트무역 거점 건설
1255	독일 기사단, 코닉스부르크 요새 건설
1262	프로이센인들의 반란과 요새 점령
1286	구도시(Altstadt) 건설
1300	뢰베니히트(Löbenicht)시 건설
1327	크나이프호프(Kneiphof)섬 건설
1457	독일 기사단 분부
1525	프로이센 공국의 수도
1544	브란덴부르크-안스바흐의 알브레히트 치하에 알베르티나 대학교 개교, 신교 선택
1660	쾨니히스베르크 봉기 진압 후 프리드리히스부르크(Friedrichsburg) 요새 건설
1701	프리드리히 1세, 1월 18일 왕위 즉위식
1724	세 도시인 구도시, 뢰베니히트, 크나이프호프를 하나로 묶어 쾨니히스베르크 탄생
1758~1762	러시아 지배
1807	프랑스 지배
1808~1809	프로이센의 개혁
1844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 페레이드 광장에 대학 건설 착공
1861	빌헬름 1세, 8월 18일 왕위 즉위식 거행
1919	베르사유 조약에 의거해 동프로이센 독일 제국에서 분리
1920~1941	쾨니히스베르크와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독일 동부박람회(Deutsche Ostmesse)' 개최
1933	나치, 3월 12일 개최된 도시선거에서 절대다수 득표
1944	8월 26~27일, 29~30일 영국 공군의 야간공습으로 도시 대파
1945	4월 9일, 쾨니히스베르크 독일군 사령관 오토 라슈(Otto Lasch) 항복 선언
1946	소비에트 러시아 연방공화국에 편입, 쾨니히스베르크에서 칼리닌그라드로 개칭
1947~1948	종전 후 잔류하던 2만 5000명의 독일 주민 추방

• 참고문헌

- Bayerlein, Bernhard (Hrg.)(2000), *Georgi Dimitroff. Tagebücher 1933~1943*, Berlin.
- Brandenberger, D.(2002), *National Bolshevism, Stalinist mass culture and the formation of modern Russian national identity, 1931~1956*, London : Cambridge.
- Brodersen, Per(2008), *Die Stadt im Westen. Wie Königsberg Kaliningrad wurde*, Göttingen.
- Faraldo, Jose M.(2003), “Teutonic Knights and Polish Identity. National Narratives, National Self-Image and Socialist Public Sphere,” Rittersporn, G. & Rolf, M. u. a. (Hrgg.), *Sphären in Öffentlichkeit in Gesellschaften sowjetischen Typs*, Frankfurt a. M.
- Galcova, Svetlana(1994), “Die Geschichte des Kaliningrader Gebietes in der sowjetischen Forschung,” *Nordost-Archiv*, N. F. III, pp. 480~504.
- Giesen, Bernhard(1999), *Kollektive Identität (Die Interkulturellen und die Nationen*, Vol. 2), Frankfurt(Main).
- Glinski, G. von & Wörster, P.(1990), *Königsberg. Die ostpreußische Hauptstadt in Geschichte und Gegenwart*, Berlin.
- Hoppe, Bert(2000), *Auf den Trümmern von Königsberg. Kaliningrad 1946~1970(Schriftenreihe der Vierteljahreshefte für Zeitgeschichte*, Vol. 80), München.
- Jähmig, Bernhard(1994), “Amtsrechnungen und andere Akten der Kriegs- und Domänenkammern des istoricalischen Stadtarchivs Königsberg im Gebietsarchiv Kaliningrad,” *Preußenland*, 32, pp. 16~29.
- Klosse, Mikkel(1991), *Bruderschaft “Prusa”: Königsberg heute. Handreiseführer zur individuellen Stadtbesichtigung im Wandel, Sehenswürdigkeiten, Daten*, Vilnius.
- Mattes, Eckhard (Hrg.)(1999), *Als Russe in Ostpreußen. Sowjetische Umsiedler*

über ihren Neubeginn in Königsberg/Kaliningrad nach 1945, Ostfildern,
Mattes, Eckhard(2001), “Verbotene Erinnerung, Die Wiederentdeckung
der ostpreußischen Geschichte und regionales Bewußtsein im Gebiet
Kaliningrad (1945~2001),” *Osteuropa*, 11/12, pp. 1350~1390.
Schulze Wessel(1994), Martin, *Rußlands Blick auf Preußen. Die polnische
Frage in der Diplomatie und der politischen Öffentlichkeit des Zarenreiches*,
Stuttgart.

Калининградская Правда.

Величко, В.(1945), *Падение Кёнигсберга*, М.

*Восточная Пруссия.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ён до конц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сторические очерки. Документы. Материалы*(1996). Калининград.

Грацианский, Н.(1945), *Кёнигсберг. Стенограмма публичной лекции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Н. П. Грацианского, прочитанной 19
Сентября 1945 года в Лекционном зале в Москве*, М.

Данилов, А., Рыжиков, А.(2001), *Рождение сверхдержавы. СССР в
первые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Москва.

Колганова, Э. М., Колганов, И. П.(1959), *Самая западная. Краткий
очерк о 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Калининград.

Колганова, Э. М., Колганов, И. П.(1967), *Путеводитель по Калининграду*,
Калининград.

Попадин, А.(1994), “Калининградец : проблема идентичности,” *Запад
России*, 2.

Суворов, В.(1998), “Древняя История края в исследованиях 1940~1960
годов,” Щеглова, Г. ed., *Калининградские архивы :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Vol. 1, Калининград.

Щербаков, В.(1947), *Сталинская Программа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В помощь агитатору),
Калинингра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국경 분쟁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조준배

- I. 머리말
- II. 지리적 배경
- III. 분쟁의 역사
- IV. 해결 전망
- V. 맺음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국경 분쟁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조준배

I. 머리말

1988년 2월 22일, 소연방 내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공화국의 한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에서는 시민들 간의 대규모 충돌이 발생했다. 약 50명의 아르메니아인 부상자가 발생했고, 경관이 발사한 총에 맞아 신원을 알 수 없는 두 명의 젊은이가 숨졌다. 나흘 뒤, 소연방 내 아르메니아(Armenia) 공화국의 수도 예레반(Yerevan)에서는 100만 명의 시민이 모여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에서 다친 부상자들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다음날,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수도 바쿠(Baku)에서는 소연방 검찰차장인 카투세프(Alexander Katusev)가 살해당한 두 청년이 아제르바이잔인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정확히 4년 뒤인 1992년 2월 26일, 아르메니아 공화국 군대는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우고 국경을 넘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도시인 호잘리(Khojaly)로 쳐들어갔다. 과거, 소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15개 공화국 가운데 캅카스 지역을 대표하던 아르메니아 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이 소련이

몰락한 이후 석 달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전면전에 돌입한 것이었다.

서로 다른 혈연을 지닌 사람들끼리 거리에서 부딪힌 일이 국가 간의 전쟁으로 비화된 이 사태는 외견상으로는 캅카스 지역의 단순한 민족분규로 보인다. 그러나 민족 분쟁의 외피를 한 꺼풀 벗겨내면 거기에는 언어나 종교와 같은 전통적 갈등 요인들 이외에도 국경 획정의 기준이나 영토의 통합성 등과 같은 근대적 개념들이 발견된다. 그리고 그 다양한 측면마저도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석유나 가스 같은 천연자원이라는 요인이 더해져 에너지 안보와 같은 국제적 위상이 부여되면 상황은 한층 더 중층적이고 복잡적이 된다. 민족 정체성과 국경, 자원과 외세의 문제들이 시공간적으로 중첩되고 포개어지면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하나의 거대한 미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글은 캅카스 남부의 분쟁지역 가운데 하나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전개되는 아르메니아 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간의 국경 및 민족 갈등을 살펴보려 한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포함하는 양 공화국의 오랜 역사를 추적해봄으로써 분규의 기원과 배경들을 통시적으로 규명해보려 한다. 그리고 소련 몰락 이후, 본격적으로 민족적 감정이 분출하는 1990년대와 이를 극복하려는 지역적·국제적 노력들을 검증해봄으로써 캅카스 지역 민족들이 지닌 개별적이면서도 집단적인 정체성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발산되었으며, 그러한 자아 확인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종적·영토적 갈등들을 해소하는 데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었는지를 점검해보려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갈등이 지닌 본질 및 근원을 파헤쳐보고,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상호 연관시켜 이해함으로써 캅카스 남부지역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안정성의 구조를 해명하려 한다.

II. 지리적 배경

캅카스 남부는 서남아시아와 동유럽의 경계에 위치한 캅카스산맥의 남쪽 부분과 저지대를 일컫는 지정학적 용어로, 영어로는 트랜스코카서스(Transcaucasus), 러시아어로는 자카프카지예(Zakavkazie)라고 불린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이 지역은 러시아의 남서쪽에서 출발하여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를 가로지르며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까지 이른다. 그루지야 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포함되며 아르메니아 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Armenia)의 경우, 전역이 해당된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아르메니아는 캅카스 남부지역에 위치한 산악국가로, 서쪽으로는 터키와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그루지야(Georgia), 동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 남쪽으로는 이란(Iran)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국토의 크기는 2만 9800km²이며, 예레반이 수도이다. 인구는 300만을 상회하며 국민의 98%가 아르메니아인이다. 장구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아르메니아는 4세기경 기독교화되면서 캅카스 지역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이후, 아랍 제국과 비잔틴 제국, 몽골, 오토만 제국과 페르시아 등에 의해 정복되거나 또는 일정한 자치를 조건으로 통치를 받아오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아르메니아 민주공화국으로 독립했다. 소련 시절에는 연방을 이루는 15개 공화국 가운데 하나였다가 1991년 8월, 소련 몰락 직전에 독립을 선언했다.

아제르바이잔 또한 캅카스 남부에 위치한 다국경 국가로, 동쪽으로는 카스피해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러시아에 닿아 있고 북서쪽으로는 그루지야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아르메니아와 대립하면서 남쪽으로는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국토의 크기는 8만 6600km²로 수도는 바쿠이다. 인구는 약 900만에 이르며 대다수는 터키계로 회교를 믿고 있다. 11세기 초,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투르크계 부족과 왕조들이 오늘날 아제르바이잔이라 불리는 지역에 이주해 오면서 1800년대 말까지 아제르바이잔인의 투르크화가 이루어졌다. 1917년 러시아혁명 발발 이후, 잠시 독립국가를 형성했다가 1936년 이래로 소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이 되었다. 반세기 뒤인 1991년 10월, 소련의 연방체계가 약화되는 틈을 타 독립을 선포했고, 두 달 뒤인 12월, 국민투표를 거쳐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다.

분쟁의 핵심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캅카스산맥 남동쪽에 있는 곳으로, 카라바흐 저지대와 잔게주르(Zangejur) 사이에 위치한다. 이곳은 대부분이 산이나 숲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쿠라(Kura)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많은 지류의 계곡들이 주요한 생활무대가 된다. 수도는 스테파나케르트(Stepanakert)시이며 지역 전체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 둘러싸여 있고, 라친 회랑(Lachin Corridor)이 아르메니아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인구는 2007년 3월 현재, 약 14만 명에 달하고 원래는 아제르바이잔인과 아르메니아인이 각각 25%와 75%를 차지하는 혼합 거주 지역이었으나 소련 해체 이후 분쟁을 겪으면서 95% 이상이 아르메니아인으로 바뀌었다. 아르메니아인들에게는 고대 아르메니아 왕국의 열 번째 주로 기억되고 있으며 18세기 중반까지도 아르메니아인들이 실질적인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곳이다. 러시아혁명 발발 이후 1923년 7월,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공화국 내에 자치주의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아제르바이잔인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1991년 소련이 몰락한 이후에도 공식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영토의 일부로 남아 있다.

III. 분쟁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나고르노카라바흐

논란 많은 카라바흐 지역의 역사는 먼저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카라바흐’라는 단어는 터키어와 페르시아어의 합성어로, ‘카라’는 터키어로 검정색을 뜻하며, ‘바흐’는 페르시아어로 정원 또는 터키어로 포도밭을 뜻한다. ‘나고르노’라는 단어는 러시아어로 산악지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지명만으로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오래전부터 페르시아, 터키, 러시아가 각축했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분쟁 당사국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 의해 각각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즉, 아르메니아는 아르차흐(Artsakh)라 부르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유카리(Yuqari) 또는 다그리크카라바흐(Daglıq Qarabag)라는 지명을 사용한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지배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양국의 노력은 역사에 대한 해석 싸움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아르메니아는 이 지역이 기원전 4세기부터 자신들의 거주지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료에 따르면 기원전 1세기에 아르메니아 왕국이 팽창하면서 비로소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즉,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붕괴되면서 아르메니아 왕국이 건설되었고 이후 팽창을 거듭하여 오늘날 아제르바이잔 남동쪽에 해당하는 카스피 해안과 우르미아(Urmia) 호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아르메니아는 캅카스 지역의 아르메니아를 중심으로 터키 동부지역과 이란 북부지역을 아우르는 넓은 제국이었으며, 오늘날과 같이 양국의 정체성이 확고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먼저 정체성을 형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 4세기경, 강력한 이웃국가였던 사산조(Sassanid dynasty) 페르시아와 대립하는 가운데 아르샤쿠니스(Arshakunis, 279~428) 왕조가 등장하면서 아르메니아인들은 주변 민족들과는 다른 자아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즉, 기독교로 개종하여 이 지역 최초의 기독교 왕국으로 거듭남으로써 종교적 차별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족 고유의 알파벳을 창건하면서 아르메니아인만의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일찍부터 왕국을 형성하며 많은 기록을 남겼던 아르메니아와는 달리, 고대의 아제르바이잔은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 고대 미디어(ancient Media)라고 불리던 현재의 아제르바이잔 지역은 기원전 6세기부터 1세기까지 페르시아와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의 침입에 시달렸다. 기원전 4세기 즈음에야 비로소 오늘날의 아제르바이잔과 경계가 대략 일치하는 지역에 알바니아계 국가가 등장하는데, 오늘날의 아제르바이잔 학자들은 바로 이 캅카스 지역의 알바니아(Caucasian Albania)가 아제르바이잔의 기원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아제르바이잔인들 또한 알바니아계 국가가 자신들의 역사를 기원전 4세기로 직접 연결해주는 증거라 확신하면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11세기 이전, 셀주크 투르크의 침공과 함께 이주해 온 터키계 주민들이 현지인들과 동화되면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한층 복잡해졌다. 아제르바이잔 학자들은 터키인들과 알바니아인들 사이의 인종적 연계를 강조한다. 알바니아인들은 4세기 이후부터 기독교도들이었고, 7세기에 아라비아인들의 침공으로 이슬람교가 전파되면서 알바니아인들의 다수가

이슬람교로 개종했으며 셀주크 투르크인들과 섞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카라바흐 주민은 주로 기독교도로 남은 알바니아인들로 이루어졌다가 알바니아의 나머지 지역이 이슬람화하면서 아르메니아의 문화적 영역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르메니아인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도로 남은 사람들은 아르메니아로 기울었고, 셀주크 투르크의 침공에 맞선 카라바흐의 저항이 성공을 거두면서 중세 말까지 일정 수준의 자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즉, 카라바흐의 주민들은 인종적으로 2000년 넘게 아르메니아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캅카스 남동지역의 주민은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슬람계 아르메니아인들도 수 세기 동안 통혼 등의 방법으로 다른 이슬람인들과 섞여갔고, 다만 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강한 지역적 애착을 가지면서 아르메니아인의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2. 제정 러시아와 러시아혁명 그리고 나고르노카라바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캅카스 지역의 민족 문제들은 과거 170년간에 걸친 러시아와 소련 통치의 유산이다. 그루지야의 경우, 1783년부터 러시아의 지배하에 놓였으며, 체첸(Chechnya)과 다게스탄(Dagestan)은 1859년에 통합되었다. 특히 1828년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 맺어진 투르크만차이(Turkmanchai) 조약은 러시아가 캅카스 남부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터키와 이란은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고, 러시아는 사실상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사실, 러시아가 캅카스 남부지역으로 향했던 주된 이유는 무역과 식민지

건설이라는 단순한 목적 이외에 본격적인 남방 진출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캅카스 남부지역을 제국에 합병함으로써 남쪽으로부터의 침입에 대비한 완충지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리하여 1722년 처음으로 표트르 대제가 이 지역에 진출하고자 시도하지만 실패로 끝나고, 1783년까지 캅카스 남부지역은 러시아의 영향권 밖에 있었다.

한동안 휴지상태에 머물러 있던 러시아의 남진 시도는 캅카스 북부지역의 합병과 발맞춰 재개되었다. 앞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러시아는 복잡다기한 이 지역의 민족구성을 이용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했다. 캅카스 남부지역의 주민들은 그루지야인과 아르메니아인,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그루지야인과 아르메니아인은 아제르바이잔인과는 달리 강한 민족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고, 여러 개의 한국(汗國)으로 나뉘어 이란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영향력이 컸던 교회를 통해, 그리고 독자적인 언어와 역사를 바탕으로 민족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 지역 내 한국들의 분열은 러시아에게 분리 통치라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캅카스 남부지역의 내부 상황 못지않게 외부 환경도 러시아에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강대한 이웃 제국들인 오토만 제국과 이란이 쇠퇴하면서 아르메니아인들과 그루지야인들은 러시아와의 제휴를 통해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온 이 제국들의 지배를 벗어나려 했다. 당시 캅카스 남부의 동쪽 지역은 오늘날 아제르바이잔에 속하는 곳으로 이란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고, 바쿠, 카라바흐, 그리고 예레반 시들을 포함하는 북쪽 지역은 오토만 제국의 세력권에 속해 있었다.

이 시기 캅카스 산맥을 통한 러시아의 남부 진출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그루지야로 바로 이어지는 흑해 연안, 두 번째는 오세

티아(Ossetia) 지역의 계곡들, 마지막으로는 카스피해 연안을 따라 진입하는 통로로, 이는 캅카스 남부지역에 접근하는 데 가장 용이한 곳이었다. 러시아는 오세티아 지역의 계곡들과 카스피해 연안을 통해 캅카스 남부에 진입하여 지역 전체를 손에 넣었다. 그루지야와 함께 카잔한국(Kazakh khanate)과 같은 아제르바이잔의 일부 지역들이 최초로 합병되었고, 19세기 초반, 마침내 카라바흐는 러시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1813년, 제1차 러시아-페르시아 전쟁으로 맺은 굴리스탄 조약(Gulistan Treaty)으로 카라바흐의 지배권은 공식적으로 페르시아에서 러시아로 이양되었다.

카라바흐를 장악한 러시아는 지역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주민의 구성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란이 지원하는 반란으로 인해 러시아-페르시아 전쟁이 재발하자 러시아는 투르크만차이 조약을 맺는 즉시 아르메니아인들로 하여금 페르시아와 오토만 제국을 떠나 러시아령 캅카스에 정착하도록 했다. 반면 이슬람교도들은 대거 캅카스 남부를 떠나 페르시아와 오토만 제국의 통치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다. 아르메니아인들이 산악 카라바흐로 옮겨 오고 이슬람교도들이 떠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민족의 구성 비율이 변화되고 뒤이어 일련의 전쟁과 사회적 변동들이 겹치면서 마침내 카라바흐 지역에서 민족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러시아-투르크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을 투르크의 잠재적 동맹자로 간주하게 된 반면, 아르메니아인들은 연합군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19세기 말, 바쿠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아르메니아인들이 몰려들어 공업과 기업의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하층의 원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계층이 다른 이민족 사이의 긴장은 처음에는 수면 아래에서 지속되었지만 1905년 러시아혁명에 관한 소식이 캅카스 남부에 도달

하면서 대규모 소요로 바뀌기 시작했다. 나흐치반(Nakhchivan)과 예레반을 필두로 카라바흐 남부에 위치한 슈샤(Shusha)까지 사태가 확산되었고 특히 슈샤에서는 최초로 인종폭동이 발생했다. 갈등은 1906년까지 계속되었고 그 결과, 슈샤는 도시가 분할되어 북부와 남부를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인이 각각 차지하게 되었다. 이 폭동은 아제르바이잔인들의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두 공동체 간의 무장대결을 조직화한 최초의 경우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카라바흐를 또 한 번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참전국인 독일과 오토만 제국이 패배하면서 캅카스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삼국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카라바흐가 분쟁지역으로 떠올랐다. 초반에는 투르크와 아제르바이잔이 우세했으나 오토만 제국이 패배하면서 아르메니아가 반격을 가했고, 이후 영국은 이 지역의 통치권을 확보하면서 슈샤에 무슬림 총독을 임명함으로써 아제르바이잔의 손을 들어주었다. 캅카스 남부지역에서의 영국의 의도는 볼셰비키의 팽창을 저지하는 것이었으나 영국의 영향력은 오래가지 않았다. 유전의 중요성으로 인해 러시아 혁명정부는 1920년 4월, 아제르바이잔을 제일 먼저 소비에트화하고 카라바흐를 장악했다.

그러나 혁명정부하에서 오히려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는 더 악화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은 1920년 겨울, 혁명정부의 명령에 의해 카라바흐를 아르메니아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12월에 선포된 스탈린의 포고령을 아제르바이잔 지도자인 나리마노프(Narimanov)가 거부했으나, 4개월 뒤에 소련과 터키 공화국 사이에 우호조약(Treaty of Brotherhood and Friendship)이 조인되면서 카라바흐를 아제르바이잔 치하에 둔다는 조항을 이행해야 했다. 터키는 미래의 잠재적 위협이 될 강력한 아르메니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캅카스 지역의 민족들을

분할하려는 스탈린의 입장에서도 아르메니아인들을 아르메니아 공화국과 나고르노카라바흐라는 2개의 지역으로 나누는 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이 조항은 아제르바이잔인들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과 나흐치반이라는 2개의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슨 까닭에서인지 1921년 7월, 러시아 공산당 내 담당부서인 캅카스 지역 부로는 카라바흐를 아르메니아 공화국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나리마노프는 반발했고 결정을 번복하여 부로는 카라바흐에 상당한 자치권을 보장한 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 진류토록 했다. 그리고 카라바흐에서의 소요가 계속 보고되자 1922년, 자치주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24년 11월에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NKAO : Nagorno-Karabakh Autonomous Oblast)가 공식 선포되었다.

한편 아르메니아인들의 입장에서는 초기의 약속이 번복되자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다. 이후 아르메니아인들에게는 이 결정을 뒤집어 카라바흐를 아르메니아 공화국에 합병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그리하여 1930년대에 아르메니아인들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회복하고자 했으나 1936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를 포함하는 캅카스 남부지역 사회주의 연방공화국(Transcaucasian Federative Socialist Soviet Republic)이 해체되고 삼국이 독자적인 공화국을 형성하면서 나고르노카라바흐와 아르메니아는 더욱 멀어졌다.

3. 고르바초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1930년대 이후 퇴행적인 민족주의 선동으로 간주되어 묵살되었던 카라바흐에 대한 아르메니아의 병합 요구는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과 더불어 재개되었다. 1987년, 아제르바이잔 북서쪽에 위치한

차르다클리(Chardarkli)라는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대다수인 아르메니아인들이 아제르바이잔 출신 집단 농장 책임자의 취임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뒤를 이어 아르메니아 수도인 예레반에서는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병합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중앙정부의 고위급 인물들을 통해 흘러나왔다. 1987년 11월, 고르바초프의 경제비서관인 아간베얀(Abel Aganbeyan)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가 아르메니아로 곧 이양될 것이라고 밝혔다. 1988년 6월에는 정치국 위원인 예고르 리가초프(Yegor Ligachev)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자치주에서 자치공화국으로 격상시키려고 제의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결이 지연되면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1988년 1월, 아르메니아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지방정부의 탄압을 피해 고향을 등지고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달 카라바흐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적대적 정책에 항의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시위가 발생하여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 소비에트가 아르메니아 공화국과의 합병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아르메니아에서는 카라바흐 특별위원회가 설립되고, 고르바초프가 나고르노카라바흐 소비에트의 결의안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1988년 2월에는 카라바흐 자치주의 수도인 스테파나케르트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아제르바이잔인 두 명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카라바흐 동쪽의 아그담(Agdam)시까지 퍼져나갔고, 이를 들은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즉각 카라바흐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을 상대로 인종사냥에 나섰다. 카라바흐의 옛 수도인 숨가이트(Sumgait)에서는 유혈 시위가 발생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앙정부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 1988년 봄, 소연

방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는 아르메니아와 합병하겠다는 카라바흐 소비에트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 결정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해 아르메니아 수도인 예레반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5월에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지도자들이 각각 바기로프(Bagirov)에서 베지로프(Abdulrahman Vezirov)로, 데미르치안(Demirchian)에서 아루투냘(Suren Arutyunyan)으로 교체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리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소련 지도부는 여전히 캅카스 남부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지방에 대한 연방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의 직접적인 맞대응이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6월, 아제르바이잔 최고 소비에트는 아르메니아와 합병하겠다는 카라바흐 주민들의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카라바흐로 가는 아르메니아 공급품들을 차단했다. 이에 맞서 아르메니아 공화국 최고 소비에트는 카라바흐와의 통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6월 말, 고르바초프가 당 대회에서 소련 영토 내의 지리적 경계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나 카라바흐 내 아르메니아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7월 12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과의 분리를 위한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소연방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는 즉각 이 결정을 무효화시키면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가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잔류해야 한다고 확고하게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양 공화국의 움직임을 감독하는 특별위원회를 설립한 뒤 향후 전개상황을 주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황을 돌이키기는 어려웠다. 1988년 겨울,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나고르노카라바흐와의 통합을 지지하는 총파업이 발생했으며, 아제르바이잔인들이 남김 없이 모두 강제추방되었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7만

8000명의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아르메니아에서 쫓겨나 난민으로 전락했고,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3만 1000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추방되었으며, 아르메니아에서는 4만 명의 아제르바이잔인들이 고향을 등졌다고 집계됐다.

사태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랐으나 쉽지 않았다. 이 분쟁은 12월에 스피타크(Spitak)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 중단되었고, 이 틈을 타 소련 중앙정부는 사태를 안정시키려는 조치들을 취했다. 그리하여 아르메니아의 카라바흐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을 체포하고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 군대를 진주시킨 뒤 계엄령을 선포했다. 1989년 1월, 소련 지도부는 카라바흐에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정부와는 별도로 비상 행정부를 설치하여 행정을 직접 관장하기 시작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 수반인 포고산(Pogosyan)은 강제로 물러났고, 볼스키(Arkadiy Volsky)가 소련 중앙정부에 의해 새로운 정부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했다.

1989년 봄, 일시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갈등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아르메니아 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들이 사태의 진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5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서는 인종충돌이 간헐적으로 재개되었고,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에서는 소련 중앙정부에 의해 체포되었던 카라바흐 위원회 위원들이 풀려나 국내의 정치세력들과 연대하면서 새로운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테르페트로산(TerPetrosyan)이 이끄는 민족주의 계열의 정치조직인 아르메니아 민족운동(ANM : Armenian National Movement)이 결성되어 1990년 5월 선거에서 공산당을 제치고 아르메니아 국회 내 최대 그룹을 형성했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1989년 6월,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AZF : Azeri Popular Front)이 결성되고, 카라

바흐 문제에 관해 이전보다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양 공화국 내의 정치세력 대다수가 강경파로 돌아선 것이었다.

카라바흐 지역 내의 상황도 점점 강경노선으로 치닫고 있었다. 해산된 카라바흐 소비에트의 아르메니아인 위원들이 국민회의(National Council)를 결성하고 아르메니아 공화국과의 통합 입장을 재확인했다. 거리에서는 통합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세력 간의 무장충돌이 잦아지면서 소련군이 유지하고 있던 치안이 무력화되었다. 1989년 11월 말, 소련 중앙정부가 돌연 나고르노카라바흐주의 직할통치를 포기하고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 행정권을 이양하면서 군사통치를 실시하자, 이에 맞서 아르메니아 공화국 최고 소비에트는 12월 1일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를 아르메니아 공화국으로 통합한다는 기념비적인 결정을 채택했다. 양자를 하나의 법적 실체로 보고 1990년 1월부터 통합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이었다.

1990년 벽두,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은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다. 국내의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인종청소가 시작되었고 장갑차와 헬리콥터와 같은 중화기가 최초로 사용되었다. 소련 중앙 정부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을 지원하고 나섰다. 1월 말, 소련 국방장관 야조프(Yazov)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에 의해 전복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아제르바이잔 수도를 무력 점령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태 해결을 위한 타협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당사국이 아닌 외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2월 초, 발트해 연안 소비에트 연방공화국들 내 인민전선 지도자들의 중재하에 아제르바이잔 공화국과 아르메니아 공화국 인민전선 지도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아르메니아 측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의 민족자결권을 옹호한 반면, 아제르바이잔 지도자들은 영토의 통합성 또는 보전원

칙을 주장했다. 즉, 아르메니아는 자국과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의 합병을 요구했고, 아제르바이잔은 이양이 불가함을 역설했다. 타협의 여지가 없었고 회담은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뒤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통제권이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으로 이양되면서, 그리고 지방에 대한 소련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양 공화국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시를 무시하며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구체적인 군사행동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아르메니아는 민족주의 무장세력의 해체를 요구하는 소련 중앙정부의 지시를 무시하면서 아제르바이잔 북서쪽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인 마을을 공격했다. 아제르바이잔군은 아르메니아인 마을을 장악하면서 보복했다.

1991년 9월, 카라바흐 소비에트의 후신인 카라바흐 국민회의(Karabakh National Council)가 나고르노카라바흐 독립공화국을 선포했다. 이 사건은 고르바초프에 대항하여 공산당 내 보수파가 일으킨 8월 쿠데타 이후 대부분의 소연방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포하자 이를 모방한 것이었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군은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했고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여기에 맞서 일부 마을을 무력으로 장악했다. 11월, 아제르바이잔 의회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자치를 박탈하고 영토를 분할하여 주변 행정구역으로 병합시켜버렸다. 12월, 카라바흐에서는 아제르바이잔에서의 분리를 확인하는 주민들 간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99%의 찬성을 얻었다. 또한 소련 군대가 이 지역에서 철수하게 되자 아제르바이잔 공화국과 아르메니아 공화국 혹은 카라바흐 아르메니아인들과의 대결은 일촉즉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양 진영의 직접적 충돌을 막아주던 완충지대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것이다.

4. 소련 몰락 이후

1) 전면전 : 1992~1994

소련의 붕괴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유지되고 있던 힘의 균형에 균열을 초래했다. 독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던 아르메니아와는 달리 소련 군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아제르바이잔은 소연방의 붕괴로 인해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협상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전되지 않아 만족스러운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자 사태는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전쟁의 책임은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정치세력들이 양 공화국에서 정권을 차지했다는 사실에 있었다. 이른바 동유럽과 구소련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던 민족주의 흐름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종폭동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도시들을 휩쓸게 되었다.

1992년 초, 소연방의 붕괴로 인한 소련군 철수로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아르메니아는 즉각 군사행동에 돌입하여 카르바흐로 진격해 들어갔다. 2월에는 아그담(Agdam)과 스테파나케르트(Stepanakert)를 잇는 도로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인 호잘리시를 점령하고, 5월에는 슈사와 라친을 장악하면서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잇는 보급로를 확보했다. 그리고 6월에는 아제르바이잔군이 반격에 나서 아그데레·마르다케르트(Agdere·Mardakert) 지역을 함락하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4만 명에 이르는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했다. 1993년 2월, 아르메니아는 전열을 정비하고 공세를 재개하여 아그데레·마르다케르트 지역을 탈환했다. 이어 3월과 4월에는 아르메니아의 지원을 받는 카라바흐 아르메니아인들이 공세에 나서 피줄리(Fizuli)를 점령했다.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 아르메니아군은 4월 16일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해버렸다.

아르메니아의 일방적 휴전 선언이 수용될 리는 만무했고,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이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이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발표하고 러시아, 터키, 미국이 합동으로 평화계획을 발표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각각 이를 수용했으나 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이 거부했다.

해결 전망이 어두워지자 6월 말, 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은 휴전을 깨고 공세를 재개하여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통제권을 완전히 회복한 뒤, 8월에는 피줄리시를 함락하고 계속 진격하여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사이의 국경 부근까지 도달했다. 알리에프는 전열을 정비하고 12월에 반격을 가해 일부 지역을 탈환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5월, 러시아 국방장관인 파벨 그라초프(Pavel Grachev)가 휴전을 발표하자 이를 계기로 두 달 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국방장관들, 카라바흐 아르메니아 군 사령관이 모여 휴전조약에 서명했다.

결과는 카라바흐 아르메니아인들의 군사적 승리였다. 아제르바이잔의 내정불안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알리에프는 1994년 10월, 후세이노프가 주도하는 쿠데타를 진압해야 했고, 1995년 3월에는 자바도프(Javadov)가 지휘하는 반란군을 막아야 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군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개입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아르메니아는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얻고 있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과 아르메니아 공화국 간의 통합노력이 가속화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탈환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2) 국제적 중재 노력들 : 1990년대

소련의 몰락 이후 캅카스 남부에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국제적 개입이 가

능해지자 국제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에도 특히 유엔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우선 유엔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에 해결 노력을 위임하고, 유럽안보협력회의는 1991년 3월, 다시 구체적인 분쟁 해결 노력을 위해 11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했다.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설립으로 서방은 캅카스 남부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이해관계 당사자인 이란을 유럽 국가가 아니라는 명분으로 제외할 수 있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은 2000년까지 대략 다섯 단계로 대별된다. 첫 번째 단계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압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1992년이다. 두 번째는 러시아가 일정한 영향력을 회복했던 1992년 하반기부터이며, 이는 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유럽과 대서양을 중시하는 노선에서 신유라시아 정책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국면은 1994년 12월부터 1996년 말까지로 러시아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사이에 신뢰구축과 협력이 증진되던 시기이다. 네 번째 국면은 러시아와 더불어 프랑스와 미국이 번갈아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공동의장을 맡으면서 소위 민스크 그룹(Minsk Group)을 이끌던 시기로 1997년을 가리킨다. 민스크 그룹은 유럽안보협력회의 산하 11인 위원회의 실무 그룹을 지칭하는 것으로, 민스크에서 최종 평화회의를 개최한다는 구상에서 그 명칭을 빌려왔다. 마지막 국면은 협상 재개를 목표로 1998년 11월, '공동국가(Common State)'안을 검토하던 시기이다.

첫 번째 국면에서는 러시아와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모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시기였고, 유럽안보협력회의

또한 경험이 없어 상황을 모니터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평화유지군을 투입할 수 있는 준비태세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보스니아 위기로 인해 국제사회가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다.

두 번째 국면은 1993년, 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이란 국경을 향해 진격하고 있어 이란과 터키의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 있는 상황이었다. 유럽안보협력회의는 중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고 미국, 러시아, 터키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섰다. 그 결과 1993년 6월, 민스크 그룹은 6개월의 시한 내에 영구적으로 휴전한다는 데 동의했으나 아르메니아인들이 공격을 재개하면서 합의안이 뒤집혔다. 민스크 그룹은 휴전을 강제할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평화유지군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의 수가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두드러졌다.

세 번째 국면은 러시아의 부상이 돋보이던 시기였다. 소연방의 해체 이후 체제 안정에 전력을 다했던 러시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대외행보를 시작하여 구소련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회복에 나섰다. 우선 아제르바이잔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그리고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중재 노력을 종종 저지하거나 방해하면서 그 활동영역을 축소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지니는 존재감을 확인하려 했다. 유럽안보협력회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교육지책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로 조직을 개편한 뒤 러시아를 민스크 그룹의 공동의장으로 선출했다. 1996년 12월, 리스본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안이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모든 참가국의 승인을 얻었다. 발표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통합성을 견지하는 원칙하에 카라바흐를 아제르바이잔 내에 잔존시키며, 최고 수준의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이유는 회원

국들이 알리에프가 주장하던 캅카스 남부지역에서의 제2의 아르메니아 건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수용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회담 참여국 대부분이 관심을 갖고 있던 석유가 때마침 아제르바이잔에서 대규모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은 리스본안에 반대했다.

네 번째 국면에서는 프랑스와 미국이 러시아와 함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97년 9월, 세 국가는 카라바흐 문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제안을 공동으로 내놓았다. 즉, 군대 철수와 난민의 귀환, 봉쇄 철폐와 평화 유지군 배치가 초기 단계에서 실시되며,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지위 문제는 두 번째 단계에서 논의된다는 것이었다. 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 지도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주권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에서 즉각 이를 거부했으나 아제르바이잔은 지지를 표명했다.

물론 단계적 접근안에 탄력적 입장을 보이는 실용주의자들이 아르메니아 국내에 등장하기는 했다. 아르메니아 대통령인 테르페트로샨은 나고르노카라바흐가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로의 합병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11월 12일, 이미 카스피해 유전 개통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고 있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 공화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제적 지위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은 거의 전무했다. 1998년 1월, 아르메니아 공화국 내각은 카라바흐 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의견이 양분되는 혼란상을 연출했고, 다음 달에 테르페트로샨은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그리고 강경 입장을 표명하는 코차랴(Robert Kocharyan)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최종 단계인 다섯 번째 국면에서는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공동 의장국인 미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른바 ‘공동국가’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즉, 단계적 접근을 포기하고 일괄 타결을 목표로 ‘자치’ 또는 ‘영토의 통합성’이라는 표현을 삼가고 나고르노카라바흐와 아제르바이잔을 한데 묶어 공동국가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자가 동등한 지위를 갖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이는 러시아가 제시한 방안으로, 압하지야(Abkhazia)와 트랜스드니에스트리아(Transnistria) 사이의 분쟁 해결에 활용했던 개념이었으나 아제르바이잔 내에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자치를 허용하는 리스본 원칙에서는 후퇴한 것이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은 이를 거부했고 아르메니아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동국가안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자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 그리하여 1999년 여름, 미국의 중재하에 아르메니아 지도자와 아제르바이잔 지도자 사이의 회담이 제네바에서 연쇄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회담은 양국 내 여론이 자국의 양보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졌고, 1999년 10월 이후, 직접 협상은 중단되고 아르메니아의 국내 정치가 혼란에 빠져들면서 사실상 결렬되었다.

3) 최근의 진전들 : 교착상태에 빠진 21세기

2000년 이후로 양국 정상들과 대표자들은 민스크 그룹의 공동의장들과 함께 꾸준히 접촉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01년 1월, 프랑스 대통령 시락(Chirac)은 코차란과 알리에프를 파리로 초청하여 회담을 갖고 이른바 파리 원칙이라 불리는 결과를 내놓았다. 곧 국방장관들끼리 휴전의 파기를 막고 항구적인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었다. 두 달 뒤, 파리에서 회담이 다시 열렸고 알리에프는 카라바

호 인근지역에서의 아르메니아군 철수를 대가로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의 통제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차랴는 이를 부인하면서 아제르바이잔에게 메그리(Meghri)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접근권만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4월, 미국의 중재하에 또 한 차례의 회담이 열렸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서로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하에 두 달 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던 회담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후 양측은 대표자들을 통해 꾸준히 접촉을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9월, 알리에프는 아르메니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네 도시인 장겔란(Zangelan), 쿠바틀리(Kubatly), 제브라일(Jebrail), 피줄리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바쿠와 예레반을 잇는 철로를 복구해서 분쟁을 종식시키자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코차랴가 거부한 사실을 밝히면서 아제르바이잔의 태도가 분쟁종식의 뜻이 없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2003년 봄까지 양측의 갈등과 만남이 반복되다가 5월, 알리에프의 병환으로 인해 모든 회담이 중단되었다.

2005년 이래로 양국 관료들은 핵심원칙들을 먼저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평화계획 협상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인근지역에서 아르메니아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는 작업과 비무장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법적 지위를 최종 결정할 주민 총투표와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군의 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2007년 11월, 미국무부 부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 프랑스 외무장관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외무장관에게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Nagorno-Karabakh Conflict)’이라는 제목의 협상 초안을 전달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회담이 개최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이른바 마드리드안(Madrid Proposal)이라 불리는 이 제안은 3년간의 협상 끝에 나온 결과물로 포괄적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드리드안과 이후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2008년 3월, 유엔총회는 점령지역에서 아르메니아가 무조건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평화 과정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2008년 8월, 아르메니아 대통령인 사르키샨(Sarkisyan)은 러시아와 그루지야 사이에 분쟁이 발발하자 캅카스 남쪽 지역에서의 군사적 해결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2008년 8월, 터키 수상은 러시아와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을 차례로 방문하여 에너지 안보와 경제협력, 지역 평화를 논의할 캅카스 지역 안정과 협력 그룹(Caucasus Stability and Cooperation Platform)을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이 그룹에는 터키, 러시아,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포함되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제외될 것이었다. 아르메니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 민스크 그룹의 중재 역할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

2009년에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렸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월, 알리에프와 사르키샨은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만났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 다만 7월 초,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개최된 양국 시민사회 대표자들 모임은 주목을 끌었다. 2009년 7월에는 모스크바에서 회담이 열렸으나 역시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7월 말, 이탈리아의 아퀼라(Aquila)에서 모인 8개국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는 카라바흐 문제를 둘러싸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에 남아 있는 이견을 해소하고, 마드리드안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IV. 해결 전망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분쟁 해결은 쉽지 않다. 갈등의 당사자들과 중재국들이 각각 모두 다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자국 내 아르메니아 점령지역의 회복을 통해 영토 통합성 원칙을 유지하기 바라고, 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은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의 국제적 인정과 독립을 원하며,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과의 병합을 희망한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참여국들은 아제르바이잔이 주장하는 영토 통합성을 옹호하면서도 동시에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주민들이 민족 자결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법적·정치적·국제적 지위 모두 문제가 된다.

분쟁에 관련된 국가들의 입장을 보다 상세히 서술한다면 우선 아제르바이잔은 독립국가의 영토적 통합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영토 내의 소수민족은 자치권과 더불어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나 영토 분리나 무장봉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컨대 자치를 허용하면서도 외교, 국방, 납세 부문에서는 독자적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이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르메니아는 영토의 통합성을 내세우는 아제르바이잔에 맞서 같은 피와 언어를 나눈 민족끼리 단일한 국가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민족을 형성하는 전통적 요소들인 문화적·신체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영토상의 괴리를 뛰어넘겠다는 심산이다. 그리하여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간의 병합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제르바이잔의 입장에서 보면 트로이의 목마나 다름없다. 자국 내 한복판에 적군을 품고 있는 셈이다. 아제르바이잔이 찬

성할 리는 만무하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전쟁과 인종청소 같은 격변을 겪고 난 뒤, 아제르바이잔인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나아가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정통성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분리를 통한 완전한 자결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전쟁을 통해 점령한 지역들을 포기할 전망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이 통제권을 회복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은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자결권을 인정할 경우, 캅카스 지역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 남 오세티야(South Ossetia)와 체첸 등이 나고르노카라바흐와 동일한 지위를 요구하며 분쟁지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의 태도이다. 과거 1990년대 초 국내 문제로 인해 주변 국가들에 관여할 여유가 없던 러시아가 내정의 안정과 경제력의 회복을 바탕으로 구소련 지역의 국가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공동국가’ 개념을 제시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활동에 러시아가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 러시아가 취했던 반서방주의 또는 선택적인 서방과의 협력이라는 대외적 태도를 고려해 본다면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에 대한 해결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이 석유를 갖고 있다는 사실 또한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된다. 석유수출을 통해 확보되는 외화는 각종 무기 구매로 이어져 아제르바이잔군의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이 재발할 경우, 아제르바이잔에게 승산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이 아르메니아가 주장하는 민족 자결권을 인정하면서도 아제르바이잔이 내세우는 영토 통합성을 수용하는 이면에는 아제르바이잔

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석유에 대한 관심이 숨어 있다.

V. 맺음말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매우 복잡적이어서 지리적 대립과 국민적 갈등 이외에도 경제와 인종 문제가 충돌하며 영토의 통합성과 민족 자결권이 대립각을 이룬다. 지구상의 민족 및 국경 분쟁에서 흔히 발견되는 전통적 요인과 근대적 측면이 그야말로 혼재해 있는 것이다.

19세기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아직 근대적인 독립국가로 떠오르기 이전의 상황이라 전통적 갈등요소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종교와 언어, 신체적 차이에 의해 민족의 정체성이 구분되고, 여기에 러시아라는 제국의 존재가 그림자를 깊게 드리우면서 두 민족 간의 갈등을 일시적이거나 잠재우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20세기 들어 제1차 세계대전과 혁명을 겪으면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공화국’이라는 근대적 국가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을 유지한 기간이 짧았고, 간헐적인 충돌이 발생하긴 했으나 소연방을 구성하는 15개 공화국의 일원으로 변모하면서 다시 중앙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어 쌍방 간의 대립이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되었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 내부에 위치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이 아르메니아인의 수용지로 정해짐에 따라 영토와 민족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근대와 전근대가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이한 상황은 연방정부라는 중앙의 구심력이 약해진다면 언제든지 전면적인 충돌로 비화될 수 있었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 소연방 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물밑의 갈등

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른바 완충지대의 무력화 내지 소멸로 인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이 독자적으로 실행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제르바이잔이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나고르노카라바흐 주정부를 제거하자 지역 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아르메니아인들은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시켰다. 이 과정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이 선포되고 이를 다시 무효화하려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노력이 이어졌다. 그리고 격렬한 독립의 움직임과 함께 민족 간 감정이 악화되면서 인종청소와 같은 비극도 발생했다. 중앙정부가 해체된 1992년에는 양국 간에 전면전이 벌어져 막대한 희생자를 낳기도 했다.

1994년 종전 이후, 양국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싸고 근대적 개념을 내세워 영유권을 주장한다. 전쟁에서의 승리로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아르메니아는 민족 자결권을 내세우며 자국과의 합병을 역설했던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영토의 통합성을 근거로 나고르노카라바흐와 인근지역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민족분규가 국경 분쟁으로 외양을 바꾸면서 영토 획정의 기준이나 국제사회에서 민족이 지니는 권리 같은 근대적 개념들이 피부색이나 언어와 같은 문화적 기준들을 대체한 것이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영유권의 정당성을 찾는 데에는 ‘역사’도 동원된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공히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과 자신들의 역사가 오래전부터 관련을 맺어왔다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근대적인 민족의 개념과 전혀 관련 없는 기원전의 조상들도 21세기로 불러 나온다. 또한 개종과 글자 창건, 고대 국가의 유무 등이 정체성의 증거임과 동시에 민족적 우월함의 근거로 기능한다. 교류나 통혼 등을 통한 민족 간 혼합 또는 융합의 가능성은 민족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전선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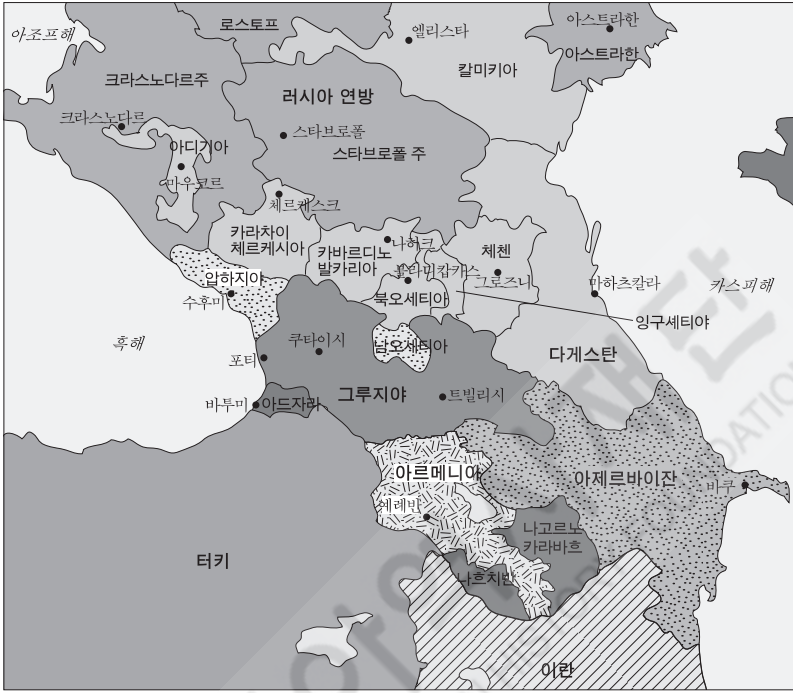


그림 1. 캅카스 지역

글로벌 시대의 국경 문제는 결코 분쟁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는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입장 이외에도 자원 확보와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특정 국가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주변 국가들의 계산이 숨어 있다. 러시아는 한때 자국의 영토였던 캅카스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 하고, 미국과 유럽은 이를 저지하면서 석유를 얻고 싶어 하며, 이란은 터키를 견제하고, 터키는 이란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충족되지 않는 한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는 결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해결만으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민족 문제가 국경 문제가 되고 국경 문제가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일깨워준다. 종교나 문화의 차이와 같은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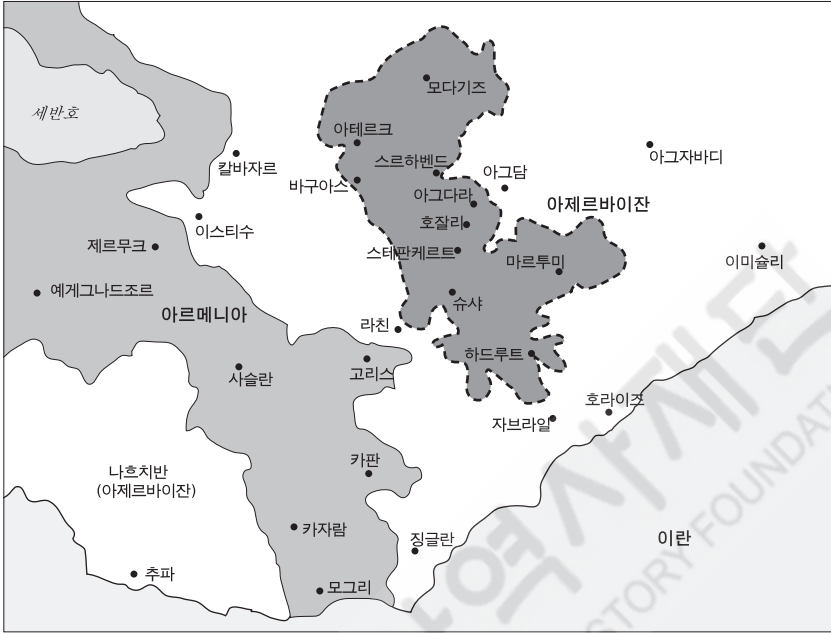


그림 2.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적인 갈등 요소들이 국경이라는 근대적 외피를 두르고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면서 얼마든지 재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분쟁 문제의 다양한 차원을 아우를 수 있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분쟁지역의 정치 및 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 조건들까지 모두 함께 고려해볼 수 있는 폭넓은 시야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종합적 안목이 갖춰진다면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민족 문제이자 국경 문제인 간도를 이해하는 데에도 커다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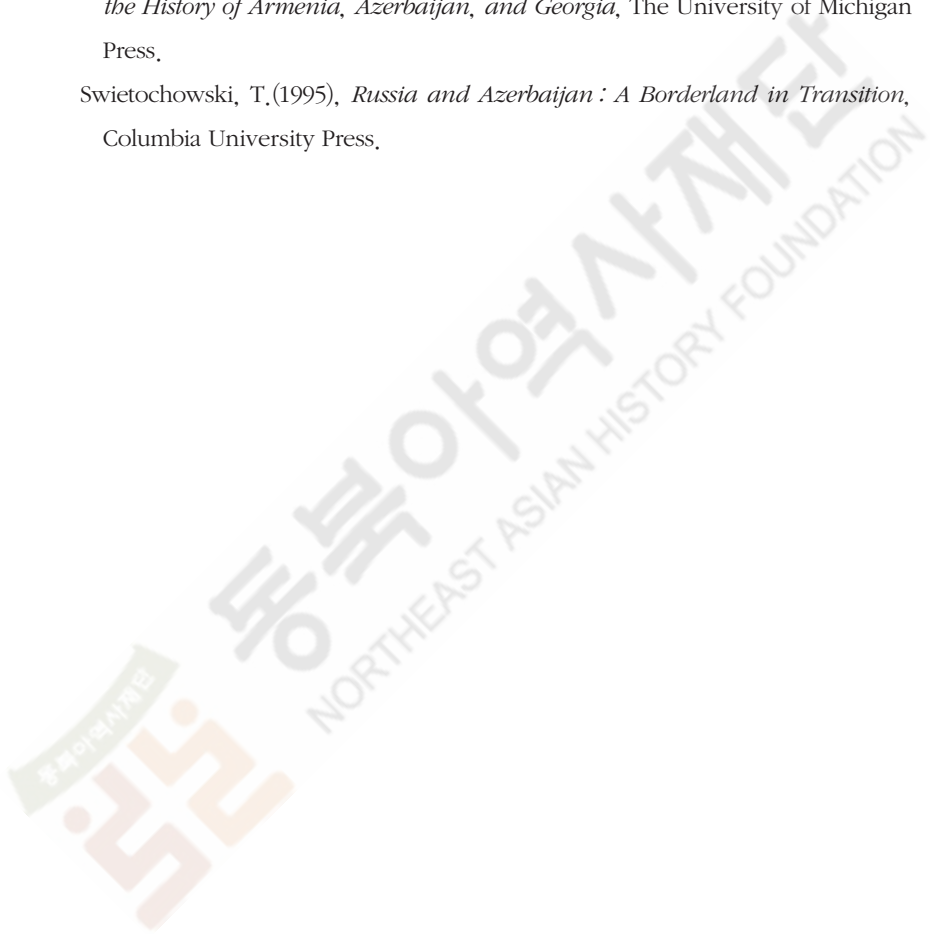
•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분쟁 역사

연도	개요
1918. 7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제1차 아르메니아 의회가 독립을 선언한 뒤, 정부수립
1923. 7	아제르바이잔 사회주의 공화국 내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NKAO : Nagorno-Karabakh Autonomous Oblast) 세워짐
1988. 2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 소비에트가 소연방 최고 소비에트에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서 아르메니아 공화국으로 이양할 것을 청원
1989. 1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를 소련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할하기로 결정
1989. 11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에 대한 소련의 직접 통치가 종료되고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으로 이관
1991. 9	나고르노카라바흐 의회가 독립적 지위를 갖는 공화국 수립 선포
1991. 11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최고 소비에트는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독립선언이 무효라고 발표
1991. 12	소련 해체
1992. 1	나고르노카라바흐 의회가 독립 선포
1992. 2	아르메니아의 지원을 받는 나고르노카라바흐 군대가 아제르바이잔 마을을 공격하면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전면전 발발
1994. 5	휴전 성립
1996. 12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리스본 정상회담 개최.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보전 입장 지지
1997. 5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 민스크 그룹(Minsk Group)이 일괄 타결안 제시
1997. 8	나고르노카라바흐가 일괄 타결안 거부
1998. 12	아제르바이잔이 민스크 그룹의 새로운 제안인 공동국가(Common State)안 거부
2001. 1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정상회담
2002. 여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외무 부장관(deputy foreign ministers) 간의 회담이 프라하에서 개최됨
2004. 1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인 알리예프(Aliyev)가 파리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독립이나 아르메니아와의 합병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2006. 1	런던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외무 부장관 회담 개최됨

• 참고문헌

- Altstadt, A. L.(1992), *The Azerbaijani Turks : Power and Identity under Russian Rule*, Hoover Institution Press,
- Asenbaur, H.(1995), *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Armenian People of Nagorno-Karabakh*, New York,
- Babayan, I.(1995), *Armenia and Mountainous Karabakh on the Political Scene of the World*, Yerevan,
- Baev, P.(1997), *Russia's Policies in the Caucasus*, London,
- Breyfogle, N. B.(2005), *Heretics and Colonizers : Forging Russia's Empire in the South Caucasus*, Cornell University Press.
- Cornell, S. E.(2001), *Small Nations and Great Powers : A Study of Ethnopolitical Conflict in the Caucasus*, London,
- Croissant, M. P.(1998), *The Armenia-Azerbaijan Conflict : Causes and Implications*, New Port,
- Henze, P. B.(1991), *The Transcaucasus in Transition*, Santa Monica, CA : Rand Corporation,
- Human Rights Watch/Helsinki(1994), *Azerbaijan : Seven Years of Conflict in Nagorno-Karabakh*, New York,
- Kazemzadeh, F.(1951), *The Struggle for Transcaucasia*, New York,
- Mesbahi, M. ed.(1994),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after the Soviet Union*, Florida University Press.
- Odom, W. E. & Dujarric, R.(1995), *Commonwealth or Empire? : Russian, Central Asia, and the Transcaucasus*, Indianapolis,
- Rubinstein, A. Z. & Smolansky, O. M. ed.(1995), *Regional Power Rivalries in the New Eurasia : Russia, Turkey, and Iran*, Armonk,
- Starr, S. F. ed.(1995), *The Legacy of History in Russia and the New States of Eurasia*, Armonk,

- Suny, R. G.(1983), *Armenia in the Twentieth Century*, Chico, CA : Scholars Press.
- Suny, R. G.(1993), *Looking Toward Ararat : Armenia in Modern History*, Indiana University Press.
- Suny, R. G.(1996), *Transcaucasia, Nationalism and Social Change : Essays in the History of Armenia, Azerbaijan, and Georgia*,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wietochowski, T.(1995), *Russia and Azerbaijan : A Borderland in Transi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중앙아시아의 민족 문제와 국경 분쟁

한국외국어대학교 **고가영**

- I. 머리말
- II. 중앙아시아 역사 개관
- III. 중앙아시아 민족정책과 체리 한인
- IV. 중앙아시아의 국경 문제
- V. 맺음말

중앙아시아의 민족 문제와 국경 분쟁

한국외국어대학교 고기영

I. 머리말

오늘날 세계는 국민국가의 경계와 틀을 넘어서려는 시도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는 달리 1991년 소연방 해체로 인해 독립하게 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개별 국가의 경계를 확정하는 일에 국력을 쏟고 있다. 신생독립국인 중앙아시아 각국들에게 국토의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은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민족의 전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개별 국가의 경계를 강화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아시아는 동양과 서양의 교차지점이자 기독교와 이슬람이 만나는 접경지역으로서 과거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다. 19세기에는 러시아가 인도로 진출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영국과 부동항을 찾아 남으로 팽창하려는 러시아와의 갈등이 유발된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 지역이었으며, 오늘



그림 1. 고려인 분포현황(총 53만 명)

※ 출처 : 외교통상부 2007년 12월 자료.

날은 서방과 러시아 간의 헤게모니 경쟁, 카스피해 석유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첨예화된 ‘뉴그레이트 게임(New Great Game)’ 지역이기도 하다. 더구나 2001년 9·11 사건 이후 미국이 이슬람 원리주의를 향한 대테러전을 감행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이 지역의 국경 문제도 한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약 30만 명 정도의 한인 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각 나라들은 소연방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주로 유목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토착화된 영토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역사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운영한 경험도 없었다. 따라서 소연방에서 정했던 경계선을 독립 이후에도 대체로 계승했으며, 경계를 설정하던 당시의 문제들도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소비에트 연방 정부는 1924년에 중앙아시아를 구성공화국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경계를 임의로 확정했다. 이때 소연방은 범투르크주의의 확산 방지와 개별 민족 단위의 분리주의를 막기 위해 연방구성 공화국들이 인종적·문화적으로 단일하고 동

질적인 구성을 갖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행정 경계를 설정했다. 소비에트 당국의 이러한 경계 획정에 따라 많은 이들이 자신의 민족에 해당하는 공화국에 배정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소연방 내에서 동일한 국가의 국민으로 거주할 때에는 이러한 인위적인 경계 갖기가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독립 이후 이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민족 문제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처럼 이 지역의 국경 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접경지역까지 명확하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가의 주권을 확립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인식한 신생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는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앙아시아가 복잡한 다민족 국가로 형성된 배경과 소연방의 민족정책에 따른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삶의 변화, 소연방 해체로 인해 독립국가로 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 문제와 국경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II. 중앙아시아 역사 개관

1. 혁명 이전의 중앙아시아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지역이었던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은 투르크계에 속하며 타지키스탄의 타지크족은 페르시아계이다. 19세기에 이르러 러시아에 의해 정복당하기 이전에 중앙아시아에는 강력한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유목민의 연합체들이 존재했었다. 현재의 중앙아시아 5개

국으로 구분된 것은 20세기 들어 소련방에 의해서였다.

러시아는 16세기 중엽 이반 4세의 통치하에 카잔한국과 아스트라한한국을 정복하면서 중앙아시아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러시아는 카잔한국을 정복한 후 우랄 산맥을 넘어 시베리아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시비르를 점령하였고, 카자흐 북부 스텝 지역에 일련의 요새를 건설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시도했다. 이후 1731년에 3개의 부족 연합체로 분리되어 있던 카자흐 유목 귀족들이 몽골계 유목민인 준가리아인들(Dzungarian)의 지속적인 약탈과 침략에 대항해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함으로써 카자흐의 자주성은 사실상 상실되었고 러시아에 본격적으로 복속되었다.

영국도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812년 동인도 회사의 대표단을 중앙아시아에 파견했다. 19세기 중반 영국은 산업화로 판로개척이 필요해지자 중앙아시아가 상업적 관심 대상으로 더욱 부각되었다. 동인도 회사의 대표단은 영국의 중앙아시아 식민지 진출을 위한 정보를 모아 정부에 보고했다. 이에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대대적 군사원정을 통해 19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카자흐 영토를 복속시켰다. 러시아는 1850년에 카자흐 지역을 인위적으로 나누었다. 4개 주의 중앙에는 우랄스크, 토르가이, 아크몰린스크, 세미팔라틴스크라는 도시를 건설했다. 이 도시들을 거점으로 삼아 카자흐 영토를 지배하면서 식민정책을 추진하여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을 이주시켰으며, 스텝 지역을 개간하는 등 제국의 영토를 확장했다. 이로써 러시아는 인종적으로 단일했던 스텝 지역의 유목사회인 카자흐를 다민족 사회로 바꾸었다.¹⁾ 아울러 제정 러시아는 알렉산드르 2세 치세인 1850~1870년대에

1) 1870년대 초반까지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에서 슬라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25%였다. 김상철(2007), 「중앙아시아의 소수민족관계 연구 : 카자흐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 카자흐스탄의 다민족 문화공동체 형성에 대한 역사적 접근」,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코칸트 공국, 타슈켄트, 부하라한국, 사마르칸트, 히바한국 등을 무력으로 정복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1855년 크림 전쟁의 패배에 따른 군사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려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한 국제 정치적인 전략과 더불어 경제적인 요인도 있었다. 19세기 전후 러시아는 섬유공업이 근간이 되어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의 면화는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당시 국제시장에서 남북전쟁으로 미국의 면화수입이 중단되어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면화 생산 증대가 매우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러시아는 1867년 타슈켄트에 투르키스탄 총독부를 설치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 중앙아시아를 정복하여 독자적인 영향권 아래 식민지 정책을 실시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농민들을 이주시켰고, 이주 농민들을 위한 농지 확보와 원료의 생산 증대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1881년에 총 길이 1,755km에 달하는 트랜스 카프카스 철도가 중앙아시아에 건설되어 러시아의 주요 공업지대와 단일 경제권으로 연결되면서, 러시아인들의 유입이 가속화되었다.²⁾

이 같은 러시아 제국의 식민화 정책에 대한 중앙아시아인들의 반발로 19세기 말 서구 문명의 도입과 국민의 계몽운동을 주창한 자디드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자디드 운동은 소비에트 혁명 과정을 거쳐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28-1호, 364쪽.

2) 1896년에는 이곳에 러시아인들이 약 1만 2000명에 이르게 된다. 이경희(2007), 「중앙아시아 지정학의 변화와 정체성」, 『중동연구』 제26권 1호, 296~298쪽.

2. 소련방의 형성과 중앙아시아

혁명 이후 수립된 소비에트 정부는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했던 범투르크주의와 범이슬람주의가 재등장할 것을 우려하여 중앙아시아 민족들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기 위해 분리주의 정책을 취했다. 소비에트 정부는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자디드 운동과 바스마치 운동³⁾의 잔재를 없애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많은 러시아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다. 또한 1924년에는 인위적으로 경계를 설정하여 공화국들을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본토에 인접하여 러시아인을 가장 많이 이주시켜 러시아화를 촉진시키던 지역을 카자흐스탄으로 명명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인 271만 7300km²를 배당했다. 이슬람-투르크 문화의 중심지였던 지역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분리하여 44만 7000km²를 배당했다. 이러한 임의적인 국경선 분리로 인한 부작용으로 타 민족명으로 명명된 공화국에 소수민족으로 전락하는 집단이 다수 발생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 연방공화국 내의 사마르칸트에 타지크인, 카라칼파크인과 투르크멘인 등이 포함되었다. 연방정부에 의해 의도된 복잡한 인구구조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긴장요인이 되었다.⁴⁾

3) 소비에트 점령에 대하여 페르가나 지역에서 일어난 일종의 무력저항운동. 1922년 8월 4일 중무기를 동원한 적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은 엔베르 장군의 사망 이후 바스마치 운동은 소멸되었다. 바스마치 운동은 투르크와 타지크 민족의 저항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 저항세력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결집력이 약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는 이 세력을 민족별로 분산시킴으로써 그 저항세력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김대성(1999), 「소련 해체 이후 강대국의 대 중앙아시아 지역패권주의 정책과 국제질서(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일반개황)」,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0-1호, 260쪽.

4) 김대성(1998), 「소련 해체 이후 강대국의 대 중앙아시아 지역패권주의 정책과 국제질서(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일반개황)」,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9호, 31쪽.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상실한 민족은 우즈베크인들이었다. 실제로 그들의 영토는 옛 한국(汗國)이 지배했던 현재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이었으며, 제정 러시아의 지배가 끝나기 전에 카자흐 지역을 제외한 통일된 국가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신생 소비에트 정부가 우즈베크인들의 영역을 대폭 축소시키는 국경을 획정함으로써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을 소연방의 구성공화국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러시아어의 공용화를 추진했으며, 이슬람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정책을 실시했고, 종속적인 경제구조를 건설했다.

소연방 형성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22년 12월 채택된 연방조약은 연방조직에서 ‘민족-영토원칙’을 채택했는데, 이는 소수민족에게 자결의식, 자치권의 약속, 자민족 대표권 등을 부여했다. 최초의 소연방 조약의 체결에는 러시아 공화국, 백러시아 공화국, 우크라이나 공화국 및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및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이 가담했다. 이후 1924년에 채택된 소연방 헌법은 연방과 구성공화국의 권력기관을 명시하고 소연방의 의미를 헌법적으로 명시했다.

스탈린 헌법으로 명명되기도 하는 1936년에 채택된 헌법은 연방과 구성공화국(당시 11개 공화국) 간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를 보다 상세히 명시하면서 소연방 체제를 체계화했다. 이 헌법에는 “소련은 대등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자발적인 연합에 의하여 조직된 연방국가”라고 기록되어 있다. 1936년 헌법에 나타난 연방제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중앙집권적 단일국가 체제라는 것이다. 각 구성공화국들이 헌법상으로는 자유로운 탈퇴의 권리와 타국과의 외교 및 군사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거나 행사되지 않았다. 브레즈네프 시기에 채택된 1977년 헌법은 연방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스탈린헌법에 명

시되었던 각 구성공화국의 타국과의 외교권이 제한되고 군대보유권이 삭제되었다. 이 헌법은 고르바초프 시기까지 변경 없이 시행되면서 연방과 각 공화국 간의 관계를 규정해왔다.⁵⁾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의 소연방 편입 과정은 다음과 같다. 16세기에 부하라 한국과 히바한국의 영지였던 이 지역에 제정 러시아는 1867년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제정 러시아령 투르키스탄주를 설치했다. 혁명 후 1920년에는 이 지역에 부하라와 호라즘 소비에트가 수립되었다. 1924년에 투르키스탄, 호라즘, 부하라 세 공화국이 투르크멘과 우즈베크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양분되었다가 1925년 5월에 두 공화국은 소연방에 가입하여 연방구성 공화국이 되었다.

또한 1920년 8월 26일에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전신인 키르기스 자치공화국이 수립되어 러시아 연방의 일부가 되었다. 192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카자흐스탄은 현재 영토가 확정되었고, 1925년에 러시아 연방 내 카자흐 자치공화국이 되었다가 1936년에 소연방에 가입하여 연방공화국으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은 혁명 후 투르키스탄 자치공화국의 일부에서 1924년에 자치주가 되었는데, 1926년에 자치공화국으로, 1936년에는 연방공화국으로 격상되었다. 타지키스탄 공화국은 1924년 타지크 자치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1929년 연방구성 공화국으로 소연방에 가입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연방 구성공화국이 된 중앙아시아 각 공화국은 향후 연방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5) 고재남(1991), 「민족문제와 소연방제도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 한국슬라브학회 편, 『소련과 러시아: 정체성의 위기』, 민음사, 116쪽.

3. 농업집단화와 중앙아시아

1920년대 말 소련에서는 농업생산량 증대와 공업노동력 확보를 위해 농업 집단화가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중앙아시아 남부 농업지대는 토지·수리 개혁을 통해 전면적인 집단화를 단행하여 농업 경영을 콜호스로 전환했으며, 면화를 전적으로 재배하기 위한 체제를 확립했다. 이 과정에서 농업집단화에 저항하는 이들에 대한 탄압도 행해졌다. 이 시기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농업집단화는 유목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은 정착하도록 강요받았으나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유목생활 방식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청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농경생활에 대한 지식도 없었다.⁶⁾ 농업집단화는 정치적으로도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민족들이 범이슬람주의나 범투르크주의로 연합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착정책에 대항한 폭동이 1930년과 1931년에 일어났고, 이 폭동은 부데니에 주둔한 기병대에 의하여 진압되었다. 1930년대에 카자흐인들의 대략 3분의 1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희생되었고, 80%가량의 가축이 도살되었다. 또한 이 기간에 많은 카자흐인들이 1920년대 말에 가축과 함께 인접한 중국으로 도망갔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의 농업집단화는 1937년에 완료되었는데, 카자흐인들의 희생은 인구에 비례해 볼 때 어느 민족보다도 컸다.⁷⁾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은 노동력이 매우 부족해졌고, 노동력 확보를

6) 20세기 초 카자흐인들의 60%가 유목이나 반(半)유목 생활에 종사하고 있었다.

7) 카자흐스탄의 전체 인구 중 카자흐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9년에 30%, 1970년에 32.6%, 1979년에 36%였다. 고재남(1993), 「카자흐스탄 공화국」, 『美蘇研究』 제6호, 단국대학교 미소연구소, 372쪽.

위해 강제이주가 시행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민족은 크림 반도의 타타르인, 우크라이나의 독일인, 폴란드인, 극동의 고려인⁸⁾ 등이었다. 이 소수민족들은 규모가 작아서 집단 전체의 이주가 가능했고, 집단 이주된 소수민족들은 중앙아시아에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지의 다수민족인 무슬림 투르크족의 총체적 연합을 제어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이 극동의 연해주 지역에 진출한 시기는 1863년경이었다. 고려인들은 가난을 피해 러시아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조선에서의 대기근의 시작과 1869년 조선 북부 지방의 대홍수로 인하여 한인 이주민 수는 점점 증가하여, 1869년 말까지 대략 4,500명 정도가 러시아의 극동으로 이주했다. 이후 한인들은 근면함과 뛰어난 농경기술로 불모지나 다름없던 극동지역 개발과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이 시기의 이주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항일독립운동을 위한 정치적인 이주도 포함되어 있었다. 1917년 혁명 당시 극동에 거주한 한인의 수는 9만 3696명(9,308가구)이었고, 1922년에는 13만 4412명(1만 8809가구)이었으며, 1927년에는 17만 명으로 증가했다.⁹⁾

그러나 극동의 한인들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중앙아시아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1937년 8월 21일에 소련인민위원회와 전 소련 공산당 최고회의는 스탈린과 인민위원부 위원장인 몰로토프가 서명한 ‘극동 국경지대로부터의 고려인 이주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

8) 재러 한인들은 스스로를 ‘고려인(고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명칭은 한인 1세대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고려 사람’이라고 부른 것에서 비롯되었다.

9) 극동에서 정착한 한인들은 1923년부터 『선봉』이라는 한인 신문도 발간하고 1924년에는 조선사범 전문학교를 비롯하여 국립학교가 117개, 사립학교가 31개 있었으며, 강제이주 직전인 1937년 8월에는 초등학교 300여 개, 초급중학교 60여 개, 중등학교 및 전문학교 20여 개 등이 존재할 만큼 한인사회는 발전을 거듭했다.

안에 따라 일본 스파이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명분하에 극동의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킬 것이 결정되었다. 결의안에는 이주 작업을 즉시 개시하여 1938년 1월 1일까지 종료할 것과 이주 대상 한인들에게 재산과 가재도구, 가금류를 가져갈 것을 허락하고 남겨지는 동산, 부동산(농지)에 대해 보상하라고 기록되어 있었다.¹⁰⁾ 그러나 이와 같은 조항들은 강제이주 과정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고려인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인민위원회회의는 1937년 8월 24일 압호 전문을 통해 극동으로부터의 한인 이주 계획을 통보받았다. 그들에게는 “조속히 이주 지역 및 위치를 선정하고, 한인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 새로운 지역에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이라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고려인의 강제이주는 스탈린 정부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확대되어 진행되었다.¹¹⁾

무리하게 진행된 강제이주 과정에서 고려인들의 인명 손실은 매우 컸다. 고송무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1925년경 소연방 내의 고려인 주민의 수는 이주민을 포함하여 25만 명에 달했다. 그런데 강제이주된 인원은 17만 2000명이었다. 대략 7~8만 명 정도의 고려인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다. 고려인들은 인명 손실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당한 탄압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다. 강제이주 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에 대한 증언이나 토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강제이주에 대한 언급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인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나 가능했다. 강제이주는 고려인들에게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작용

10) ГАРФ, Р-5446. Оп. 1в. Д. 497. Л. 27~28[*Сталинские депортации. 1928~1953*(2005), Под общ. ред. акад. А. Н. Яковлев, М.].

11) 고가영(2008), 「우랄지역 원로 고려인들의 생애사 연구」, 『역사문화연구』 제30호, 58~63쪽

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주정책이 또다시 시행된 계기는 흐루쇼프의 대규모 미개간지 개척 사업의 추진이었다. 1954년 2월에 발표된 미개간지 개척 사업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밀 경작의 실패에 대비해 밀 경작지를 확보하여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농지확보 정책의 일환이었다. 흐루쇼프는 대규모 미개간지 개척 사업을 통해 카자흐스탄과 시베리아 남부에 새로운 농경지를 조성했다. 당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지원자를 모집하여 약 8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인을 카자흐스탄의 북부 스텝 지역에 정착시켜 토지를 개간시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에서 다량의 목초지가 사라졌으며, 1960년 초에는 전체 930만 카자흐스탄 인구 중 러시아인이 43%, 카자흐인이 29%라는 기형적인 민족구성을 초래했다. 이와 같은 소비에트 연방 정부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이주정책의 결과는 소연방 말기까지 인구구성 비율에 영향을 미쳤다.

〈표 1〉 소연방 내 중앙아시아 5개국 민족구성비와 주요 소수민족 (1989년, 단위 : 100만 명)¹²⁾

공화국 (연방가입 연도)	총인구와 비율	각 공화국 민족구성비
우즈베키스탄 (1925)	19.9(6%)	우즈베크인 69%, 러시아인 11%, 타타르인 4%, 카자흐인 4%, 타지크인 4%
카자흐스탄 (1936)	16.6(3%)	러시아인 41%, 카자흐인 36%, 우크라이나인 6%, 타타르인 2%
타지키스탄 (1929)	5.1(1%)	타지크인 59%, 우즈베크인 23%, 러시아인 10%
키르기스스탄 (1936)	4.3(0.8%)	키르기스인 48%, 러시아인 12%, 우즈베크인 12%, 우크라이나인 3%, 타타르인 2%
투르크메니스탄 (1925)	3.5(0.8%)	투르크멘인 68%, 러시아인 13%, 우즈베크인 9%, 카자흐인 3%

12) 고재남(1991), 앞의 글, 105쪽.

4.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중앙아시아

198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의 후기에 접어들면서 중앙아시아 각지에 팽배한 사회·경제적 불만이 민족분규로 표면화되었다. 소연방 내에서 첫 번째 민족주의적 폭동이 1986년 12월 16일에 알마티에서 일어났다. 폭동 발발의 직접적인 동기는 카자흐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던 당 제1서기 쿠나예프가 정치적 부패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이유로 러시아 사람인 콜빈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12월 17일 콜빈의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약 1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알마티에서 발생했다. 시위대와 진압 경찰 간에 발생한 무력충돌로 인해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200명이 부상당하고 경찰요원 3명을 포함하여 1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는 1989년 3월 소연방 인민대표위원 선거에서 카자흐인 누루술탄 나자르바이예프가 카자흐스탄 제1서기로 임명됨으로써 진정되었다.¹³⁾ 알마티 폭동은 다른 공화국의 민족주의 운동과 민족분규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어 1987년에는 크림 타타르 자치공화국, 발트 공화국 및 우크라이나에서, 1988년에는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둘러싸고 아르메니아 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사이에 민족분규가 발발하면서 민족 문제의 심각성이 심화되었다.

이에 고르바초프 지도부는 민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단행할 필요를 실감했다. 1988년 6월 28일에 개최된 제19차 당 대회에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여 각 공화국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여 공화국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 대회는 민족 문제에 관해서 1920년대 이후 가장 솔직한 토론의 장이 되었

13) 김대성(1998), 앞의 글, 14~15쪽.

으며, 당 지도부는 민족정책을 수정하고, 비러시아 민족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었다.¹⁴⁾

그러나 연방정부가 19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입장을 철회하려 하자 이에 대해 강한 반대와 저항이 일어났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서 불만이 고조되었다. 1988년 12월 타슈켄트 대학생들은 우즈베크어를 공화국 공용어로 하자고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1989년 5월 초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로 인한 폭동이 일어났으며, 이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훨씬 심각한 소요가 일어났다. 경제상황의 악화는 민족적 증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며, 1989년 6월에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 계곡(Ферганская долина)에서 적어도 99명이 살해되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민족 문제는 증폭되어 1991년 12월 마침내 소연방이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페레스트로이카는 소수민족에게 민족 자의식을 싹트게 했고, 민족 관계에서도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1989년 11월 14일 소련 당국이 강제이주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고려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공식적으로 향상되었다. 고려인들은 불법을 행한 민족으로 낙인 찍힌 굴레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나는 도덕적인 해방감을 맛볼 수 있었다.

1990년대에 러시아는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안을 법제적으로 마련했다. 1991년 4월에 제정된 ‘탄압받은 민족의 복권법’의 채택은 고려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 법령들은 강제이주 이후 마치 죄인처럼 숨죽이고 살아온 고려인들의 명예를 법적으로도 완전히 회복시켜주었으며,

14) 보흐단 나할일로·빅토르 스보보다 지, 정옥경 역(2002), 『러시아 민족문제의 역사』, 신아사.

고려인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고려인 협회를 건설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⁵⁾

III. 중앙아시아 민족정책과 재러 한인

1991년 소연방 해체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수립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독립을 획득했다. 독립을 준비해온 정치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전의 공산당 최고위 간부들이 대통령의 위치에 올랐고,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들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고, 이로 인한 민족 문제가 복잡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안정된 국가 건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민족 갈등의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는 카자흐스탄의 북부와 페르가나 계곡을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북부 영토는 러시아와 국경을 길게 접하고, 러시아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므로 민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정책이 실시될 경우 이 지역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촉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민족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지역은 페르가나 계곡이다. 이 계곡은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관통하고, 타지크인과 우즈베크인 그리고 키르기스인이 혼재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 간 분쟁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아시아에서 국가체제의 존립이나 정부구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격한 민족 갈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5) 고가영(2008), 앞의 글, 71쪽.

소연방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자민족의 특성을 강조하는 민족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각 민족들의 역사를 다룬 역사서적이 출판되었고, 자국 언어를 강조하는 언어정책이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996년 ‘우즈베키스탄 새 역사 중심지’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이 기관은 새로운 역사서적을 편찬하는 작업을 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제정 러시아 식민지 시기』와 『우즈베키스탄의 소비에트 식민지 시기』, 『우즈베키스탄의 새 역사』를 출판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민족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중요하게 시도한 것이 언어정책이었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언어법의 내용은 러시아어와 민족어의 위상을 단기간에 역전시키려는 입장을 취한 발트3국과 달리, 자국어의 지위를 고양시키면서 러시아어 위상과 역할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01년의 헌법 개정에 의해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명기하고, 카자흐스탄에서도 1995년 헌법에서 카자흐어와 함께 러시아어를 2010년까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2010년 이후에는 카자흐어만 공용어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타지키스탄 헌법에서는 러시아어를 민족 간 교류어로 규정하고 있다.

각 공화국의 언어법은 캐나다 퀘벡 주의 언어법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서로 유사하며, 문구의 70~80% 이상이 동일하다. 이 법안에는 주로 공화국 내의 모든 공공업무와 공식문서에 자국어를 사용하고, 의회와 각종 주요 회의를 자국어로 진행하며, 표지판, 우표, 문장 등은 자국어로 표기하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치 지도자나 공무원은 자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고등교육기관의 졸업 요건으로 자국어 시험이 포함되고, 학위논문 등은 자국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¹⁶⁾

이와 동시에 소련시대의 러시아 지명의 명칭도 바뀌었다. 카자흐스탄의 트

셸리노라드는 아크몰라로, 그 이후 1998년에 다시 지금의 수도 이름인 아스타나로 바뀌었다. 키르기스스탄의 프룬제는 비슈케크로 개칭되었다. 국기제정에서도 민족주의 특징이 드러났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국기에는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이 그려져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기에서 5개의 양탄자와 5개의 별은 5개의 투르크 종족을 상징하며, 키르기스스탄의 40개의 광선은 키르기스스탄의 40개의 종족을 의미하고, 태양 안에는 3줄로 이루어진 2세트의 선들이 교차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키르기스스탄의 천막인 유르트를 표현하고 있다.¹⁷⁾ 이처럼 민족주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기본 정책이 되었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발현은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중앙아시아를 떠나는 계기로 작용하여 중앙아시아 내의 민족별 인구구성 비율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중앙아시아 각국의 민족구성비

국가	종교	민족
카자흐스탄	이슬람 47%, 러시아정교 44%, 기타 9%	카자흐인 53.4%, 러시아인 30%, 우크라이나인 3.7%, 우즈베크인 2.5%
키르기스스탄	이슬람 75%, 러시아정교 20%, 기타 5%	키르기스인 64.9%, 우즈베크인 13.8%, 러시아인 2.5%, 기타 8.8%
타지키스탄	이슬람 90%, 기타 10%	타지크인 64.9%, 우즈베크인 25%, 러시아인 3.5%, 기타 6.6%
투르크메니스탄	이슬람 89%, 동방정교 9%, 기타 2%	투르크멘인 72%, 러시아인 12%, 우즈베크인 9%, 기타 7%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88%, 동방정교 9%, 기타 3%	우즈베크인 80%, 러시아인 5.5%, 타지크인 5%, 카자흐인 3%, 기타 6.5%

※출처 : CIA, The World Factbook 2008.

16) 박창규(2007), 「현대의 민족문제와 다문화주의 ; 중앙아시아 : 중앙아시아 다문화주의의 가능성 - 민족화와 중앙아시아 디아스포라」, 『민족연구』 Vol. 30, 162~165쪽.

17) 정세진(2007), 「중앙아시아 민족 정체성 및 민족주의 연구 :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 제11권 2호, 759쪽.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민족정책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에게도 커다란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자국 역사와 언어에 대한 강조로 인해 러시아어를 사용해온 고려인들은 실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자녀교육 문제를 겪게 되었다. 이처럼 자국 언어에 대한 강조는 직업 선택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이 가능한 러시아로 고려인들이 다시 이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아시아 독립 이후 고려인 이주의 양상은 1990년대 초반과 후반을 구분지어 분류해볼 수 있는데, 초반에는 타지키스탄 내전으로 인해 난민이 되거나 현지 사회의 민족주의적 갈등에 의한 위협상황을 벗어나려는 대규모적이고 강제적인 이주의 성격을 지녔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종교 분쟁과 타지키스탄 내 지역별 종족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1992~1994년 내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만 8000명의 고려인들이 순식간에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피신하는 난민이 되었다. 이들 중 러시아로 이주한 대다수가 타지키스탄과 기후조건이 유사하고 거리상 가까운 볼고그라드를 중심으로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볼고그라드 지역으로 재이주하는 고려인들 중에는 우즈베키스탄 내 자치공화국 카라칼파크스탄 고려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소연방 시절 무리한 계획 경제로 아랄해가 오염되면서 발생한 환경난민이다.¹⁸⁾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상당수가 내전이나 군사적 충돌 혹은 민족 차별로 인해 분쟁지역을 탈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환경 개선과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이주를 감행하게 되었다. 이주 대상 지역은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와 러시아 남부지역

18) 최이운(2005),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재이주와 민족NGO의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쪽.

이나 연해주이다. 러시아 남부지역은 주로 과거 계절성 이동 농업 대상 지역이었다. 계절성 이동 농작인 ‘고본질’은 1940년대 행해지기 시작한 농업형태로,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들이 볼가강 유역, 우크라이나, 몰다비아, 카프카스, 시베리아, 우랄 등의 러시아 각지로 떠나 임시 거주하였다가 농업이 끝나면 거주지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는 처음에는 불법이었으나 1960년대 합법화된 이후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고소득을 내는 상업성 농업으로 성행하게 되었으며, 이미 1960년대부터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고본질을 통해 러시아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후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면서 중앙아시아 생활환경이 어려워지자, 고려인들은 고본질을 통해 이미 생활환경에 익숙해진 러시아 농업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고려인들의 재이주 형태는 친인척이나 콜호스를 구성했던 사람들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이주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주한 곳에서의 마을구성도 몇 가구의 친인척으로 구성되거나 콜호스의 구성원의 관계로 이루어진 곳들이 많다.¹⁹⁾

연해주로의 이주는 1993년 3월 ‘재러시아 고려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이 제정되어 고려인의 강제이주가 범죄로 인정되었고,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전 원래 거주지로 귀환할 권리를 갖게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권리는 러시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문화되었지만, 연해주 이주에 대한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로의 재이주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 거주 증명, 고용 증명 등 서류상의 어려움으로 러시아에 거주등록을 하지

19) 김재기·이복철(2006),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 볼고그라드 재이주 현상」, 『한국 동북아논총』 제40집, 252쪽.

못하고,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는 사례가 많으며, 국적을 취득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고려인 중에는 교사, 의사, 기술자 등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이들은 러시아 남부나 연해주로 이주한 이후 처음으로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모스크바를 비롯한 대도시로 이주한 경우에도 본래의 전문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단순노동(가정부, 운전수, 식당종업원 등)에 종사하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IV. 중앙아시아의 국경 문제

소연방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은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에 봉착했고, 그중에서 보다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국경 문제였다. 현재 중앙아시아의 국경선은 원칙적으로 구소련 시기의 경계선을 계승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국경 문제는 크게 2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은 신생독립국이 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인접국가들과 국경협정을 새롭게 체결하는 문제이다.²⁰⁾ 두 번째는 중앙아시아 5개국 내부에서 국경선을 확정하는 문제이다.

20) 중앙아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가들로는 러시아, 중국,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이 있다. 이란은 투르크메니스탄과 992km²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국가이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 독립을 가장 먼저 승인하는 등 별다른 국경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란-투르크메니스탄 국경 문제는 제외했다.



그림 2. 중앙아시아 지도

1. 중앙아시아와 인접국 간의 외부 국경 문제

1)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국경 문제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공화국들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커다란 면적(271만 7300km²)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러시아·캐나다·중국·미국·오스트레일리아·인도 다음으로 일곱 번째로 영토가 큰 나라이다.²¹⁾ 카자흐스탄은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서시베리아와 서쪽으로는 카스피해, 동쪽으로는 중국 국경과 알타이산맥을 접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과 접해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카자흐스탄만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그 길이는 무려 7,500km

21) 인구 규모로는 50번째이다. 총인구는 1,514만 명(2006. 1)이다.

에 달한다. 이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길이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 중 하나이다. 카자흐스탄 영토는 행정적으로 14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7개 지역이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다. 인구의 30% 이상이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영토가 분할될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매우 조심스러운 민족정책을 펴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주로 북서지역과 북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다.²²⁾

2005년 1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방문하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영토적 경계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양국은 무역량의 증대와 에너지 개발, 통신 및 방송용 인공위성 발사를 비롯한 우주개발, 지적재산권 분야와 국가안보 분야 등 포괄적인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양국 간의 경계 설정에 대한 2005년 1월의 합의는 같은 해 11월에 이르러 양국의 국내법적 절차에 의해 승인되었다.²³⁾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양국 간의 접경지역은 경계를 삼을 만한 자연적인 방벽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스텝과 준사막지역이기 때문에 기나긴 국경선을 따라 일정한 거리마다 국경수비대를 배치하고 국경검문소를 설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양국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국경수비대 운영에 합의하여 국경 수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양국 모두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량의 마약이 불법적으로 밀수되는 것이 가장 큰 난제이다.

22) Потенциальные Конфликтные зоны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с. 3~4.
<http://forumrostov.ru/index.php?showtopic=18449>.

23) 우준모(2006), 「지정학적 탈근대성과 영토·국경 갈등의 평화적 해결-러시아-카자흐스탄의 국경 간 정책 사례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6집 2호, 296쪽.

마약은 주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밀수된다. 마약밀매 조직은 비교적 월경이 쉬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접경지대에서부터 러시아의 서쪽과 동쪽 국경의 끝부분까지 잘 조직된 마약 유통로를 구축하고 있다. 마약 외에도 비철금속, 목재, 건설자재, 농산물과 식자재, 주류, 중국산 소비재, 석유, 윤활유,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이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러시아로 밀거래된다. 향후 마약을 비롯한 밀수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양국 정부의 당면한 과제이다.

2)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경 문제

(1) 중국과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카자흐스탄은 1,700km, 키르기스스탄은 800km, 그리고 타지키스탄은 400km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 국경들은 19세기 후반기 러시아가 태평양과 중앙아시아로 영토 확장을 하던 중 중국에게 강요된 여러 조약에 의해 경계가 정해진 것이다.²⁴⁾ 이는 북경당국에 의해 그동안 불평등조약으로 인식되어 왔다. 1924년 5월 31일 중국과 소연방은 “양 정부는 국경 획정을 재고하고, 평등, 상호성, 그리고 정의를 원칙으로 하여 모든 협약과 조약, 협정, 의정서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데 동의한다”고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1926년 봄에 회담이 열렸으나 성과 없이 연기되었다. 그 후 이 회담은 재개되지 않았다.²⁵⁾

1950년대 내내 중국은 비밀리에 소련과 국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으

24) 9세기에 결정된 러시아 제국과 중국의 총 국경은 7,200km였다. В. Парамонов, О. Столповский(2009), Погранич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в Китайско-центрально азиат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http://www.centraisra.ru/newsA.php?st=1235032800>, c. 1.

25) Anne Gordon(1995), 「中蘇 국경분쟁 調整에 관한 고찰」, 『中蘇研究』 통권 67호, 191~192쪽.

나 무위로 끝났다. 1960년대 초 이데올로기 논쟁과 더불어 서쪽의 국경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분쟁이 노출되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경에서 긴장이 높았고, 때때로 소규모의 무력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중소 간의 이념 분쟁에 따라 소련 당국에 의하여 주도된 신장지역에서의 선동과 선전 그리고 중국의 대약진운동 실패로 중국 내에 살고 있던 카자흐인들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의 소요가 유발되기도 했다. 이 소요로 인해 1961~1962년에 약 12만 명 가량의 카자흐인과 위구르 난민들이 카자흐스탄 공화국 동부지역으로 유입되어 정착하기도 했다. 중국과 국경선을 공유하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소련의 반중국 선전의 중심지였고, 따라서 수많은 소련군이 주둔했으며, 이 지역에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시설이 배치되었다.²⁶⁾

이후 중국은 1963년 3월 2일 『인민일보』에 발표된 공식 선언에서 ‘불평등조약’으로 인한 중소의 국경선 문제를 제기했다. 소련의 요구로 북경에서 1964년 2월 23일 일련의 협상이 열렸으나 곧 결렬되었다. 이 회담을 통해 중국은 국경선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빼앗긴 150만 km²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소련과 상호 평등의 원칙하에 새로운 협정을 도출하는 협상을 하기를 원했다. 동쪽에서 영토분쟁 지역은 국경을 이루는 강에 산재해 있는 1,845개의 섬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었고, 서쪽에서는 2만 km² 면적의 파미르 산악지대이다. 소련 당국자들은 국경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전체 경계선을 재협상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전체 길이를 통틀어 국경선은 협정과 의정서, 그리고 지도를 통해 명확하고 자세하게 결정되었다”고 단언했다. 1969년에서 1978년 사이에 양국은 9차례나 회합을 가졌으나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26) 고재남(1993), 앞의 글, 366쪽.

국경 문제의 개선은 1985년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나 가능해졌다. 1986년 7월 28일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에서 고르바초프는 “중소 국경은 주요 수로를 근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선언했다. 이는 고르바초프가 중국과 동일한 법적 근거 위에서 분쟁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었다. 1987년 2월 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협상에서 양국은 전 국경선을 다시 확정할 것을 합의했다.²⁷⁾ 이후 소연방의 붕괴로 이 문제는 ‘4+1’ 회담(러시아 연방, 중앙아시아 3개국+중국)으로 계승되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경 1,700km에 대한 합의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와 리펑[李鵬]이 알마티에서 1994년 4월 26일 공식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²⁸⁾ 1997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중국은 국경으로부터 100km 이내에는 국경수비대를 제외할 부대를 주둔시킬 수 없다는 추가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국경선 협상이 완성된 것은 2002년부터 2003년 10월까지였다.²⁹⁾

소연방 해체 이후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27) 중소관계사에서 국경 확정에 관한 최초의 협정문서인 「공동국경에서 동쪽 구역에 관한 중소협정」은 1991년 봄에 이루어졌으며, 5월 16일 중국 공산당 서기장 장쩌민의 모스크바 방문 시 양국 외무장관에 의해 합의 문서는 조인되었다. 10개 조항으로 규정된 이 예비협정은 동부구역의 국경선을 명시하고 있다. 이 협정에 대해 중국 측은 1992년 2월 25일 개최된 제7차 전국인민회의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하였으며, 러시아는 소련이 승인했던 대로 러시아 연방이 아무런 수정 없이 승계했다. 비준절차는 1992년 2월 13일 당시 투표에 부쳐졌는데, 찬성 174표, 반대 2표, 기권 24표로 통과되었다. 이 협정은 1992년 5월 16일자로 효력을 발휘했다.

28) 두 번째 합의서는 알타이 변방에 있는 중소 국경(55km)에 관한 것이다. 이는 1994년 6월에 완성되었으며 같은 달 28일 모스크바에서 가서명되었다. Anne Gordon(1995), 앞의 글, 193~200쪽.

29) Sergey Golunov, Border Security in Centural ASIA : before and after september 11, p. 92. http://se2.dcaf.ch/serviceengine/Files/DCAF/23780/ieventattachment_file/AFDC987B-5E15-4B55-A322-4740B44F0BD6/en/ev_reichnau_041105_papers_golunov.pdf.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중국은 1998년에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원유와 가스를 우송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9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3,300km에 달하는 이 원유관은 카스피해 북쪽 연안의 유전지역에서 시추된 카자흐 원유와 천연가스를 위구르 투르크인들이 거주하는 신장을 통해 중국 동부 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이다. 한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독립은 중국의 신장지역에 거주하는 카자흐 투르크인들과 키르기스 투르크인들에게 자극을 주어 새로운 긴장을 가져오기도 했다.³⁰⁾

(2)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1996년 키르기스스탄과 중국은 1,100km에 달하는 양국 국경선의 한 지역에 국경선을 확정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의 일환으로 키르기스스탄이 3500ha에 달하는 외판 산골지역을 중국에 양도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이 협약을 비준하였지만 몇몇 의원들은 행정부가 심지어 양도한 지역의 지도조차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 표결이 이루어졌다고 항의했다.

1999년 키르기스스탄은 추가 협정을 통해 중국에 추가적으로 9만 ha에 달하는 나룬지역과 이시크쿨 연안의 한 부분을 양도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산악지역이지만 베텔 지역에 있는 강을 포함하고 있고, 만년설이 있어 물 부족으로 시달리는 중국에게는 이 지역을 획득한 것이 중요한 성과가 되었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 지역의 국경선 확정에 대한 지도 역시 공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을 둘러싼 혼란

30) Ali Riza Balaman(1998), 「소련 해체 이후 강대국의 對 중앙아시아 패권주의 정책과 국제질서-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종교와 민족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9호, 124~125쪽.

이 가중되었다. 영토 양도에 반대하는 야당의 일부 세력들은 아카예프 대통령과 고위 각료들이 중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영토를 양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여 2001년 12월 키르기스스탄 의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으며, 분노한 시민들의 소요가 발생하기도 했다.³¹⁾

현재 중국 신장지역에는 약 16만 9000명의 키르기스족과 90만 명의 카자흐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과의 국경은 중요한 무역로와 운송 경로가 되고 있다.³²⁾

3)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3국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는 지리적인 국경 획정의 문제보다는 아프가니스탄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경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부작용, 즉 마약, 난민, 무장세력 등을 다루는 것이 난해한 문제가 되고 있다.

(1)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1895년에 제정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확정했던 판지(Panji)강을 국경으로 하고 있다. 소연방 시기 국경선에 대해 이미 명확하게 협정을 체결했으며, 독립 이후에도 이를 계승하여 1993년 12월에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국경에 대해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31) Central Asia : Border Disputies and Conflict Potential 4 April 2002, *International Crisis, Group Asia Report*, No. 33, 2002, p. 18.

32)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경우 아직까지 국경선 확정이 완수되지 못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양국 사이에 국경 획정을 둘러싼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양국 간에 심각한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내부에 30년 이상 무장충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타지키스탄은 매우 긴장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아프간 전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지역이다. 양국의 국경선은 1,280km에 이르며, 타지키스탄은 독립 이후에도 이 지역을 통제할 수 없었다. 타지키스탄 내전³³⁾ 동안 반정부 투쟁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피난을 갔으며,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에는 현재 130만 명이나 되는 타지키스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내전 종결 이후에도 타지키스탄에 주둔한 러시아 군대는 철수하지 않았고, 그 대신 아프간 국경을 수비하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 국경은 소련 시기에는 결코 침투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타지키스탄은 파키스탄이나 이란과 같은 심각한 난민 문제에 직면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난민 6,000명을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공식통계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는 1만 5000명에 가까울 것으로 여겨진다. 타지키스탄은 현재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더 이상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001년 3월 거의 1만 2000명이나 되는 난민이 파니 지역 국경선에 나타났을 때, 타지키스탄은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라는 유엔의 요청에 대해 이들을 돌봐줄 자원도 없으며, 이들 중 일부는 전사로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

33) 타지키스탄은 독립 후 18개월 동안 끊임없이 정치적 혼란에 시달렸다. 구 노선 공산주의자들과 개혁가, 이슬람 민족주의자 및 지역 지도자들의 연합체 사이에 벌어진 장기적 투쟁은 1992년 5월에 내전으로 폭발했다. 1993년 초에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적 중재를 통해 질서가 회복되었으며, 1994년 중반에 유엔, 파키스탄 및 이란의 중재 노력의 결과 라흐모노프 타지키스탄 정부와 반대파 지도자들은 휴전에 합의했다. 1994년 11월 선거에서 새 헌법이 채택되었고, 라흐모노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물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타지키스탄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습격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일부는 인질로 잡혀가거나 가축을 도난당하기도 했다.³⁴⁾

또한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무장세력들의 근거지로 존재하고 있다. 알카이다와 이슬람 운동 단체의 무장세력(IMU, Islam Movement of Uzbekistan ; ИДУ, Исламское движение Узбекистана, 이하 IMU로 표기)이 운영하는 양성장이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타지키스탄과 다른 중앙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종교적인 극단주의 영향하에 있는 종교 단체(학교)들로 가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국경을 통과하는 마약 문제이다. 아프가니스탄은 마약 생산량에서 세계에서 선두 그룹에 있는 나라이다. 지난 9년 동안 타지키스탄 영토에 불법적으로 유통된 아편이 60톤이었는데 그중 28톤이 헤로인이었다. 이러한 양의 헤로인은 3,000만 명을 마약중독자로 만들 수 있는 양이다. 타지키스탄에서 불법 유통된 마약을 몰수한 양은 CIS 전체의 43%이고, 중앙아시아의 66%에 해당한다. 세 번째 문제는 무기 밀매 문제이다.

이처럼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국경선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분쟁을 겪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통과하는 난민과 마약·무기 밀매로 인해 국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 아프가니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총 744km에 달하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처음 독립했

³⁴⁾ Central Asia : Border Disputies and Conflict Potential 4 April 2002, p. 20.

을 때 투르크멘족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형식적인 발언에 불과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주변 국가에도 많은 투르크메니스탄족이 거주하고 있다. 니야조프 대통령은 난민이 대량 유입될 경우 자신의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도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정책을 펼쳤다.³⁵⁾

(3)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상대적으로 짧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난민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150만 명의 우즈베크인들에 대해서도 비우호적이다. 난민이 유입될 경우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IMU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침투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은 자연요새인 아무다리야 강 때문에 잘 통제되어왔다. 아프가니스탄으로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은 '우정의 다리'로, 테르메스 지역으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다리는 지난 수년간 폐쇄되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탈레반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 국제사회에서 이 다리를 다시 개통하여 인도주의적인 원조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이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안보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때문이다. 이처럼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역시 국경선 확정을 둘러싼 긴장이 아니라, IMU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둘러싼 긴장이 국경지역에 감돌고 있다.

35) Central Asia : Border Disputies and Conflict Potential 4 April 2002, p. 21.

2.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경 문제

소연방 와해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은 지역 안보를 위하여 서로의 경계를 침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화했다. 1993년 8월에 카자흐스탄, 러시아 연방,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이 원칙에 서명한 후 공표했다. 그러나 각 나라 사이에는 심각한 민족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한 국경선들이 존재하고 있다.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사이의 분쟁지역은 60군데가 넘는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경에 대한 다툼은 1991년 소연방 해체 이래로 지속되어왔다. 중앙아시아 각 나라 사이의 국경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는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나머지 모든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크인이 최대의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데, 1991년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 우즈베크인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1997년에는 80%에 이르렀다. 우즈베키스탄이 국경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999년과 2000년에 다국적 이슬람 무장세력(Multi-national Islamist groupings)이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공격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각 나라들은 국경 강화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은 총 2,150km나 된다. 2000년 초 우즈베키스탄 국경수비대가 카자흐스탄 영토 깊숙이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국경초소를 세우는 것이 발각되었다. 몹시 놀란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1년 1월



그림 3_ 우즈베키스탄 전도

27일 외교적으로 항의를 했다. 그리고 남부 군사 구역을 수립하여 즉각적으로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더 이상의 국경 침투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수립하고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공동위원회는 2000년 2월 17일 첫 회담을 마쳤고, 이후 9월 까지 몇 차례에 걸쳐 국경 문제를 논의했다.³⁶⁾

2000년 중반까지 총 2,150km에 달하는 국경지역 중 194km에 대해서 합의하고, 2001년 11월 16일에는 양국 대통령이 전체 국경선의 96%에 달하는 협정에 조인했으며, 마침내 2003년 7월 두 나라 사이에 국경선을 확정하는 최종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경 분쟁은 해결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4%의 미확정 지역을 비롯하여 국경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³⁷⁾

36) Central Asia : Border Disputies and Conflict Potential 4 April 2002, p. 8.

37) Nurzhan(2005), Border issues between Kazakhstan and Uzbekistan, <http://www.neweurasia.net/category/kazakhstan/2005/11/30/border-issues-between->

구체적인 사례로 2002년 11월 6일에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수비대원들이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혼성 밀수업자들을 검문하려고 했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국민인 엘무라트 바이투르가노프(Эльмурат Байтурганов)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 두 나라의 국경 관문인 기시트-쿠프리크(Гишт-Куприк)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란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쥐벡-잘리(Жибек-Жали) 마을의 주민들이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주민들의 다수가 밀수와 금품탈취에 관여되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우즈베키스탄 국경수비대원들과 사격전을 벌인 적도 있었다.³⁸⁾ 이처럼 국경 문제는 여전히 불안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2)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경은 약 1,700km에 달한다.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는 석유, 가스 설비에 대한 영토 임대를 놓고 벌어진 분쟁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이 투르크메니스탄 영토 내에 있는 설비를 장기 임대하는 것에 대해 자국의 실질적인 수입이 박탈당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반대로 우즈베키스탄은 설비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양국 간의 관계는 이 문제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어 1990년 중반에는 상호 교역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상황까지 갔고, 철도, 버스, 항공의 연결조차 중단되었다가 1996년에 타협이 이루어졌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이 투르크메니스탄 내에 있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우즈베키

kazakhstan-and-uzbekistan, p. 1.

38) Людвиг Гибельгауз, Пограничные конфликты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http://www.dw-world.de/popups/popup_printcontent/0,,721240,00.html cc. 2~3.

스탄은 현존하는 임대설비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내 영토에서 채취한 석유로부터 나오는 수입의 일부를 투르크메니스탄에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³⁹⁾

1998년 투르크메니스탄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비자체계를 강화했다. 그리고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보복조치로 이어졌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희생자는 국경 주변에 사는 거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이후 양국 정부는 국경지역 거주자의 경우 국경에서 150km 이내에 10일 동안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자를 면제해주었다. 이 조치로 보파리 장사와 국경지역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비자체계가 완화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공동위원회는 2000년 8월 국경선 확정에 대한 작업을 끝마쳤다. 9월 21일 양국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위원회의 활동을 법제화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는 양국 간 경계선을 결정하는 작업의 시작이 되었다. 양국은 협정에 따라 국경검문소를 세우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영토에 울타리를 쳤다. 2001년 3월 니야조프 대통령은 포고령을 발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과 국경 사이에 1,700km에 달하는 울타리를 2001년 말까지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국경의 20% 정도가 석유산지이므로 경계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⁴⁰⁾

39) Central Asia : Border Disputies and Conflict Potential 4 April 2002, pp. 9~10.

40) ВПК : Дружба дружбой, а пограничные конфликты не решены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спыхивают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конфликты, с. 3. <http://www.centrasia.ru/newsA.php?st=1211958660>.

3)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사이의 국경은 1,304.88km이다. 이 중에서 양국이 합의를 본 국경은 2002년 10월에는 1,102.20km였으며, 그 이후에 106.86km 국경을 추가로 합의에 이르러 합의를 하지 못한 국경은 93.82km 정도이다. 영토 분쟁이 있는 대표적인 곳은 파르하드담 지역과 민니 들판지역이다. 파르하드담 지역은 타지키스탄 지역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영토이고 민니는 우즈베키스탄과 접경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전문가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지역에서 약 70건의 총격사건이 발생했고, 그 결과로 155명의 타지키스탄 주민이 희생당했다. 그중 71명은 사망했고, 84명은 부상을 입었다. 이들 중에는 36명의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양국 국경 문제에서 영토 분쟁과 더불어 심각한 문제는 우즈베키스탄이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놓여 있는 지뢰를 제거하기로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제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심지어 지뢰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조차 타지키스탄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과 물건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11월 21~22일에 두산베 회담에서 결정된 ‘중앙아시아에서 국경 관리와 마약 통제’에 관한 결정사항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또한 125만 명의 타지크인들이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부하라 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이 소수민족들의 분리운동이 발화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⁴¹⁾

4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당시 타지키스탄 북부에도 120만 명의 우즈베크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타지키스탄 내전 기간에 많은 이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났다. Central Asia : Border Disputies and Conflict Potential 4 April 2002, pp. 11~12.

4)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국경선 확정을 위한 회담은 2000년 2월에 시작되어 총 1,375km의 국경지역 중 209km만 국경으로 확정되었고, 2008년 5월에는 993km가 추가로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경선이 약 400km에 이르고, 이 지역들은 아직까지 분쟁지역이다.⁴²⁾ 전문가들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여기고 있는 곳은 중요한 수자원이 있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토권 주장이 있는 페르가나 계곡이다. 소련은 1924년 국경선을 획정하면서 페르가나 계곡과 오슈 지역(Ошской область)을 키르기스스탄 소유로 정했고, 이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은 매우 불만스러워했다.

오슈 지역의 경우 2001년 1월 기준으로 지역 전체 인구의 31%에 해당하는 37만 6249명의 우즈베크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 우즈베크인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키르기스화하려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반면 일부 키르기스인들은 우즈베크인들이 자신들에 대항해서 동원될 수 있는 제5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심하기도 한다.

1998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비자체계를 키르기스스탄에게 적용했다. 비자법에 의하면, 남부 키르기스스탄 거주자들은 비자 없이 우즈베키스탄 영토를 100km까지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지만, 타슈켄트까지 갈 경우에는 비자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국경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교역을 어렵게 만들었다. 키르기스스탄 역시 동일한 비자체계를 동원해서 맞대응했다. 그런데 두 나라 모두 국경의 어떤 도시에도 영사관을 갖고 있지 않아 우즈베키스탄 국경에서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오슈 지역 거주자가 비자를 받

42) ВПК : Дружба дружбой, а пограничные конфликты не решены, с. 3.

기 위해 수도인 비슈케크까지 여행을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경 협력을 위해서는 지역의 영사관을 개설하거나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연방 해체 이후 1999년 2월 타슈켄트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페르가나 계곡에 있는 국경선들을 봉쇄했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이후 제한조치들을 완화했지만 1999년 여름에서 2000년 동안 IMU의 공격을 받았던 정부는 국경수비를 더 강화했다. 1999년 8월 우즈베키스탄은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동의 없이 키르기스스탄 남부에 있는 IMU 주거지에 공습을 시작했다. 이 공습 도중 12명의 키르기스 민간인이 사망하기도 했으며, 우즈베키스탄 보안요원들이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동의 없이 키르기스스탄 국내로 들어와서 이슬람 극렬 분자들을 체포함으로써 양국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⁴³⁾

이러한 문제 외에도 키르기스스탄 내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영토로 인해 분쟁을 겪는 지역들이 있다. 키르기스스탄 내에는 4개의 우즈베키스탄 영토인 안클라바(Анклава)⁴⁴⁾가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소크와 사이마르단 지역이다. 소크는 1920년대 이래로 분쟁이 지속되는 지역이고, 두 지역 모두 국경이 확정된 적은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속적으로 로비를 벌여서 키르기스스탄 내에 위치한 자국 영토인 소크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수자원과 산업시설 이용과 관련되어 있어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소크는 잠정적으로 위험지역으로 간주되는데 이 지역은 우즈베키스탄 사회와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어 IMU가 침투하기 더 쉬운 곳으로 여겨진다.

43) Central Asia : Border Disputies and Conflict Potential 4 April 2002, pp. 13~14.

44) 안클라바는 영토의 외곽이 다른 나라 영토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섬처럼 고립된 영토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림 4_ 키르기스스탄 전도

우즈베키스탄은 소크가 IMU 게릴라 활동의 본거지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 지역 외곽에 지뢰를 설치했고, 국경검문소를 세워서 통과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들을 검문하고 있다. 이곳이 국경이 확정되지 않은 분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검문을 실시하자, 키르기스스탄 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일방적인 국경선 확정 시도이며 자국민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은 지뢰가 설치된 곳은 우즈베키스탄 영토이고 분명한 표시를 해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크 주민들은 그 표시가 너무 작아서 가까이 가야만 읽을 수 있고, 그런 경고 조치는 가축들에게는 아무 효과도 없다고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⁴⁵⁾

2001년 1월에 키르기스스탄의 바트켄주(Баткенская область) 주지사 마마트 아이발라예프(Мамат Айбалаев)는 지역 신문 『바트켄 타니(Batken tany)』에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공개서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불법적으로 키르기스

45) Central Asia : Border Disputies and Conflict Potential 4 April 2002, p. 14.

스탄 영토 내에 지뢰를 설치함으로써 선린관계를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사망과 부상, 가축 사망, 재산 파손 등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지사는 보상은 물론 우즈베키스탄이 키르기스스탄 영토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 전기 설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공개서한 공표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자신들의 국경체계를 완화했으나 2001년 여름 내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IMU 공격이 재개될 것을 두려워하여 지뢰를 제거하지는 않았다. 2001년 8월 아이발라예프 주지사는 지역 회의에서 비슈케크나 타슈켄트 어느 쪽의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2001~2002년 사이에 탈레반 정권에 대한 연합 공격이 있는 이후 IMU의 위협은 상당히 퇴조했기 때문에 타슈켄트가 지뢰를 제거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다. 그러나 2002년 2월까지 바트켄 지역 내의 148km에 달하는 지역의 지뢰가 제거되지 않았다.⁴⁶⁾

두 나라 사이에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또 다른 지역은 샤이마르단이다. 2002년 초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수비대가 키르기스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이후, 키르기스스탄의 바자르베이 맘베토프 부수상은 우즈베키스탄령 샤이르마르단은 법적으로 키르기스스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관리들은 이러한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찾으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렇지만 우즈베키스탄이 이 지역을 양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5)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의 모든 나라와 국경 분쟁이 있는 우즈베키스탄 이외의 다른 국가들 사이에도 심각한 국경 분쟁을 겪고 있다. 그중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

46) Central Asia : Border Disputies and Conflict Potential 4 April 2002, p. 14.

탄도 포함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남동쪽 변경에 위치한 타지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남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주요 민족인 타지크족은 이란의 주요 민족과 같은 페르시아계 민족으로 페르시아 문명과 이슬람 문명, 남쪽의 인도 문명과 불교문화, 그리고 동북쪽의 투르크 유목 문명, 슬라브 문명, 그리고 소비에트 공산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왔다.

타지키스탄 국토의 총 면적은 14만 3100km²로 남한의 약 1.5배 정도이며, 영토의 절반 이상이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파미르 산지로서 3,000m가 넘는 고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타지키스탄 공화국 외무부 자료에 의하면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국경은 987.6km이고 합의되지 않은 분쟁지역은 3만 4000~5만 2000ha에 이른다. 소연방 해체 이후 10년 정도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사이의 국경은 사실상 수비되지 않고 있었다. 국경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된 것은 1999년 여름부터 2000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IMU가 남쪽 키르기스스탄에 침입한 것 때문이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은 3,000명의 군대를 바트켄 지역으로 파견했고, 오슈 지역으로 4,000명의 예비 병력을 파견했다. 아울러 2001년에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IMU의 침투를 막기 위해 국경검문소를 9개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경 수비의 강화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수비대의 총격으로 1999년 11월부터 1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기도 했으며, 새로운 국경 수비 법규는 상거래를 방해하여 많은 지역 농민들의 중요한 수입 원천을 제거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⁴⁷⁾

47) Алишер Хамидов, Беспорядки на Кыргызско-Таджикской Границе

키르기스스탄 남부에는 페르가나 계곡의 키르기스 영토 내의 2개[바루흐(Варух)와 카라차(Калача)]의 타지키스탄 안클라바를 포함한 40개의 분쟁지역이 있다. 분쟁지역에서의 국경검문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더욱 갈등의 요소가 되어 양국 간의 긴장을 초래한다. 2002년 12월에 타지키스탄 정부가 이스파라 지역(Исфаринской район)에 2개의 검문소를 신설하자 2003년 1월 5일 라디오 방송 ‘자유(Свобода)’와의 인터뷰에서 바트켄주의 주지사인 마마트 아이발라예프는 타지키스탄이 분쟁지역에 검문소를 세우지 않기로 한 양국의 협상을 위배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키르기스스탄 정부 역시 코크 테레크(Кок Терек) 지역에 검문소를 세웠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양국은 2000년대에 이르러 국경선 확정을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2002년 12월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양국 간의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을 비슈케크에서 가졌다. 타지키스탄의 협상대표는 외무부 차관인 살로히딘 나스리지노프(Салохиддин Насриддинов)였고, 키르기스 협상 대표는 국제정치부 부의장인 오마프 술탄노프(Омар Султанов)였다.⁴⁸⁾

이후 두 국가 사이의 국경 중 오랜 분쟁지역이었던 고르니 마치(Горный мял) 지역과 이스파라 영토를 포함하여 482.2km를 1924~1927년 자료를 근거로 2008년 4월 1일에 합의에 이르기에도 했다. 2008년 5월에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양국 대통령은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동의 중요한 원인은 키르기스스탄 남부의 타지키스탄과의 접경지역인 바트켄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росте межэтническ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Средней Азии. с. 3.

48) Людвиг Гибельгауз, Пограничные конфликты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 1. http://www.dw-world.de/popups/popup_printcontent/0,,721240,00.html.

주에서 발생한 땅과 수자원 이용에 대한 갈등 때문이었다. 키르기스스탄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로와 영토 분쟁으로 인해 150명의 타지키스탄 주민이 키르기스스탄 영토로 침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들판으로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댐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키르기스스탄이 국경수비대를 이곳에 파병함으로써 타지키인들은 물러났다. 이후 협상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방향으로 댐의 수문을 여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댐 주변 영토는 여전히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고 양국 간에 경계가 확정되지 못했다.⁴⁹⁾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국경 확정을 위한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길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가까운 수십 년 내에 두 나라가 국경에 대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나라 정부의 위원회들이 전혀 다른 아카이브 문서들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6)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2001년에 국경선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국가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이시크쿨 지역의 관광 휴양지 네 곳을 카자흐스탄에 양도한 것에 대해 부채를 갚는다는 핑계로 정부가 국토를 팔아먹었다고 분노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카자흐스탄과 맺은 국경 협정을 폐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야당이 지지하고 있다.⁵⁰⁾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9) ВПК : Дружба дружбой, а пограничные конфликты не решены, с. 1.

50) ВПК : Дружба дружбой, а пограничные конфликты не решены, с. 3.

V. 맺음말

유목민족인 투르크족과 이란계의 타지크족이 주로 거주하던 중앙아시아 지역이 복잡한 민족구성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이었다. 19세기 중반에 러시아 제국은 중앙아시아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으며, 이 지역에서의 식민정책도 본격화되었다. 이에 이슬람에 기반을 둔 범투르크주의를 내세운 저항운동이 일어나자 제정 러시아는 이주정책을 통해 범투르크주의를 막으려 했다. 새로이 획득한 중앙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관리하려는 의도하에 다수의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을 이주시켰던 것이다. 혁명으로 권력을 획득한 소비에트 정부 역시 이민족 이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앙아시아 내 민족구성을 조정함으로써 범투르크주의의 확산을 막으려 했다. 소비에트 정부가 농업집단화와 고려인들을 포함한 강제 이주 정책, 미개간지 개척 사업 등을 통해 많은 민족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킴으로써 중앙아시아는 복잡한 인구구성을 가진 다민족 국가가 되었다. 또한 소연방 구성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임의적인 행정 경계 설정으로 중앙아시아의 민족 문제와 국경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연방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들이 독립국가가 되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신생 중앙아시아 정부들이 민족주의 정책을 표방함에 따라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지 언어보다는 러시아어를 채택했던 고려인들 역시 어려움을 겪었으며 다수가 러시아로 재이주하는 혼란을 겪었다.

소연방 해체 이후 독립국가를 수립한 중앙아시아 각국들이 독립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통치권을 확립해 나감에 따라 국경 분쟁은 더욱 표면화되었다.

비록 대규모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분명한 영토 경계에 따른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울러 중앙아시아 각국 간에 수로와 영토 이용과 관련된 문제, 환경 문제를 둘러싼 분쟁들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각국들로 하여금 국경수비를 강화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IMU의 위협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IMU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국경수비 정책을 펼침으로써 접경국가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 외에도 마약 유통 문제, 밀수품 거래 등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국경을 둘러싸고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9·11사건 이후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은 국제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신생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영토 분쟁을 비롯한 국경 문제들이 평화롭게 해결되어야 한다. 향후 중앙아시아 각국들이 국경 분쟁을 평화적으로 잘 해결하여, 지역 동맹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중앙아시아 연표

연도	개요
9세기	투르크 민족화 진행, 타지크에는 페르시아계의 사만 왕조 수립
13~15세기	몽골 지배
16세기	이반 4세의 카잔한국과 아스트라한한국 정복으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 발판 마련
1731	카자흐 유목 귀족들 러시아에 보호 요청으로 사실상 러시아에 복속됨
1850~1870년대	코칸트 공국, 타슈켄트, 부하라한국, 사마르칸트, 히바한국이 러시아에 무력 정복 당함
1867	타슈켄트에 투르크스탄 총독부 설치
1881	트랜스 카프카스 철로 개통
19세기 말	자디드 운동 - 혁명 과정에서 무력 진압됨
1917. 10	소비에트 혁명정부 수립
1920	부하라와 호라즘 소비에트 수립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신인 키르기스 자치공화국 수립
1922. 8	바스마치 운동 진압됨
1922. 12	연방 조약 채택
1924. 1	연방 헌법 채택
1924	행정구역 재조정(중앙아시아 공화국 간 경계 설정) : 투르크스탄, 호라즘, 부하라 세 공화국이 투르크멘과 우즈베크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양분
	투르크스탄 자치공화국의 일부에서 키르기스스탄 자치주 수립, 타지크 자치공화국 수립
1925. 5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으로 소연방에 가입
	키르기스 자치공화국에서 카자흐 자치공화국이 됨
1926	키르기스 자치주에서 자치공화국으로 바뀜
1929	타지키스탄 연방공화국으로 소연방 가입
1936	키르기스스탄 연방공화국으로 격상되어 소연방에 가입
	카자흐스탄 연방공화국으로 격상되어 소연방에 가입
1937	고려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연도	개요
1954. 2	미개간지 개척 사업 발표 - 이 사업의 일환으로 80만 명의 러시아인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킴
1986. 12	소연방 내 첫 번째 민족주의적 폭동이 알마티에서 일어남
1988. 6	제19차 당대회에서 민족 문제 언급
1988. 12	우즈베크어를 공용어로 요구하는 타슈켄트 대학생들 시위 발발
1989. 5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폭동 발생
1989. 6	페르가나에서 민족 분쟁으로 99명 살해, 1,000명 이상 부상당하는 소요 발생
1989. 11	강제이주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성명 발표
1989	카자흐스탄, 우즈베크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민족어 사용 촉진을 위한 언어법 제정
1990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민족어 사용 촉진을 위한 언어법 제정
1991. 4	‘탄압받은 민족의 복권법’ 채택
1991. 12	소연방 해체
1991. 12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크스탄 공산당 제1서기를 대통령으로 선출 카리모프 장기집권
1992~1994	타지키스탄 내전 발발로 1만 8000명의 고려인 난민 발생
1993	재러시아 고려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 제정
1993. 12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협약 체결
1995	카자흐스탄 헌법에서 2010년 이후 카자흐어만 공용어로 사용하기로 결정
1995. 12	유엔 총회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영구중립국(permanent neutrality)’으로 승인
1996	우즈베크스탄 새 역사 중심지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 공포
2002~2003. 10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경선 협상 완료
2005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양국 국경 설정에 합의

• 참고문헌

- 고가영(2005), 「모스크바 고려인 사회의 현황과 한민족 공동체」, 『역사문화연구』 특집호
- 고가영(2008), 「우랄지역 원로 고려인들의 생애사 연구」, 『역사문화연구』 제30호.
- 고송무(1990), 『소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이론과 실천.
- 고재남(1991), 「민족문제와 소연방제도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 한국슬라브학회 편, 『소련과 러시아: 정체성의 위기』, 민음사.
- 고재남(1993), 「카자흐스탄 共和國」, 『美蘇研究』 제6호, 단국대학교 미소연구소.
- 기광서(2001), 「구소련 한인의 민족정체성 상실과 회복: 역사와 현재」, 『재외한인연구』 제10호.
- 김대성(1998), 「소련 해체 이후 강대국의 대 중앙아시아 지역패권주의 정책과 국제 질서(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일반개황)」,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9호.
- 김대성(1999), 「소련 해체 이후 강대국의 대 중앙아시아 지역패권주의 정책과 국제 질서(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일반개황)」,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0-1호.
- 김 블라지미르 저, 김현택 역(1995), 『러시아 한인강제이주사』.
- 김상철(2007), 「중앙아시아의 소수민족관계 연구: 카자흐스탄 사례를 중심으로-카자흐스탄의 다민족 문화공동체 형성에 대한 역사적 접근」,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8-1호.
- 김영진(2008), 「중앙아시아의 지역통합: 기회, 제약성, 전망」, 『슬라브학보』 제23권 3호.
- 김인성(2007),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 분석」,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25집.
- 김재기·이봄철(2006),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 볼고그라드 재이주 현상」, 『한국동북아논총』 제40집.
- 김형주(1998), 「소련 해체 이후 강대국의 대 중앙아시아 지역패권주의 정책과 국제 질서(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9호.

- 남혜경 외(2005), 『고려인 인구 이동과 경제환경』,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세계
한상·문화연구단 총서 4, 집문당.
- 레이 초우 저, 장수현·김우영 역(2005), 『디아스포라 지식인. 현대 문화연구에서 개
입의 전술』, 이산.
- 리 블라지미르 표도로비치(우효), 김 예브게니 예브게니예비치(영웅) 저, 김명호 역
(1994), 『스탈린 체제의 한인 강제이주-구소련 국립문서보관소 공개 극비문서』,
건국대학교출판부.
- 마라트 라우산베크올리·갈음잔 라우산베크올리(2002), 「카자흐인, 그들은 누구인
가」, 『민족연구』 제8호.
- 박 보리스·부가이 니콜라이(2004), 『러시아에서 140년간』, 시대정신.
- 박상남(2007), 「중아시아 정치문화 변동 : 정치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중동연
구』 제26권 1호.
- 박창규(2007), 「현대의 민족문제와 다문화주의 ; 중아시아 : 중아시아 다문화주
의의 가능성-민족화와 중아시아 디아스포라」, 『민족연구』 Vol. 30.
- 반병률·권희영·한 발레리(2001),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정체성 연구』,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 보호단 나할일로·빅토르 스보보다 저, 정옥경 역(2002), 『러시아 민족문제의 역사』,
신아사.
- 성동기(2002), 「중아시아의 정세변화와 전망」, 『민족연구』 제8호.
- 성동기(2007), 「체제전환기 우즈베키스탄의 민족 간 민족의식 및 민족동화 변화 연구-
우즈베크인과 러시아인 대상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중아시아연구』 제12호.
- 심현용(2005),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정과 그 변화」, 『재외동포 사
회의 역사적 고찰과 연구 방법론 모색』, 국사편찬위원회.
- 안성호(2008), 「독립국가연합(CIS)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 중아시아 5
개국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48집.
- 우준모(2006), 「지정학적 탈근대성과 영토·국경 갈등의 평화적 해결-러시아-카자
흐스탄의 국경 간 정책 사례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6집 2호.
- 윤영미(2004), 「중·러 국경지역의 변화-러시아 극동으로의 중국인 이주 및 활동을
중심으로, 1990~1998」, 『이순신 연구논총』,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 이경희(2007), 「중아시아 지정학의 변화와 정체성」, 『중동연구』 제26권 1호.

- 이문영(2003),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관계의 역사와 전망」, 『평화연구』 제11권 2호.
- 임영상(2003),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구술사」, 『역사문화연구』 제19호.
- 임영상(2005), 「시베리아의 고려인 과학자 : 크라스노야르스크의 물리학자 김 포트르」, 『국제지역연구』 제9권 1호.
- 임영상, 황영삼 외(2005), 『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임채완(2002),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統一問題研究』 제14권 제2호.
- 장병욱(1998), 「소련 해체 이후 강대국의 대 중앙아시아 지역패권주의 정책과 국제질서-미국과 이란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9호.
- 전신욱(2007),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재이주 요인과 정착현황 :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제11권 제3호.
- 정세진(2007), 「중앙아시아 민족정체성 및 민족주의 연구 :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 제11권 2호.
- 최이윤(2005),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재이주와 민족NGO의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한우(1997), 『중앙아시아학 입문』, 퍼내기.
- 피터 홉커스 저, 정영목 역(2006), 『그레이트 게임.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숨겨진 전쟁』, 사계절.
- Anne Gordon(1995), 「中蘇 국경분쟁 調整에 관한 고찰」, 『中蘇研究』 통권 67호.
- Balaman, Ali Riza(1998), 「소련 해체 이후 강대국의 對 중앙아시아 패권주의 정책과 국제질서-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종교와 민족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9호.

ВПК : Дружба дружбой, а пограничные конфликты не решены.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спыхивают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конфликты(<http://www.centrasia.ru/newsA.php?st=1211958660>).

Бугай, Н. Ф.(2002),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и политика Солнечного тепла*, ГАРФ, Р-5446. Оп. 1в. Д. 497. Л. 27~28[*Сталниские диспортации. 1928~1953*(2005), Под общ. ред. акад. А.Н. Яковлев].

Гибельгауз, Л. Пограничные конфликты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http://www.dw-world.de/popups/popup_printcontent/0,,721240,00.html).

Корейцы-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 СССР 1934~1938 гг.(2000), Книга первая/Ку Светлана.

Ли В. Ф.(2003), Проблемы завершения реабили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Доклад на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65-летию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ССР, Москва, 11 сентября 2002 г.)//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140 лет в России.* под ред. Цой Брони. Москва.

Национальные окраины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тано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управления(1998), под ред., С.Г. Акаджанов.

Парамонов В., Столповский(2009), Погранич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в Китайско-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их отношениях(<http://www.centrasia.ru/newsA.php?st=1235032800>).

Потенциальные Конфликтные зоны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http://forumrostov.ru/index.php?showtopic=18449>).

Хамидов, А., Беспорядки на Кыргызско-Таджикской границе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росте межэтническ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Средней Азии//(<http://www.eurasianet.org/russian/departments/insight/articles/eav010903ru.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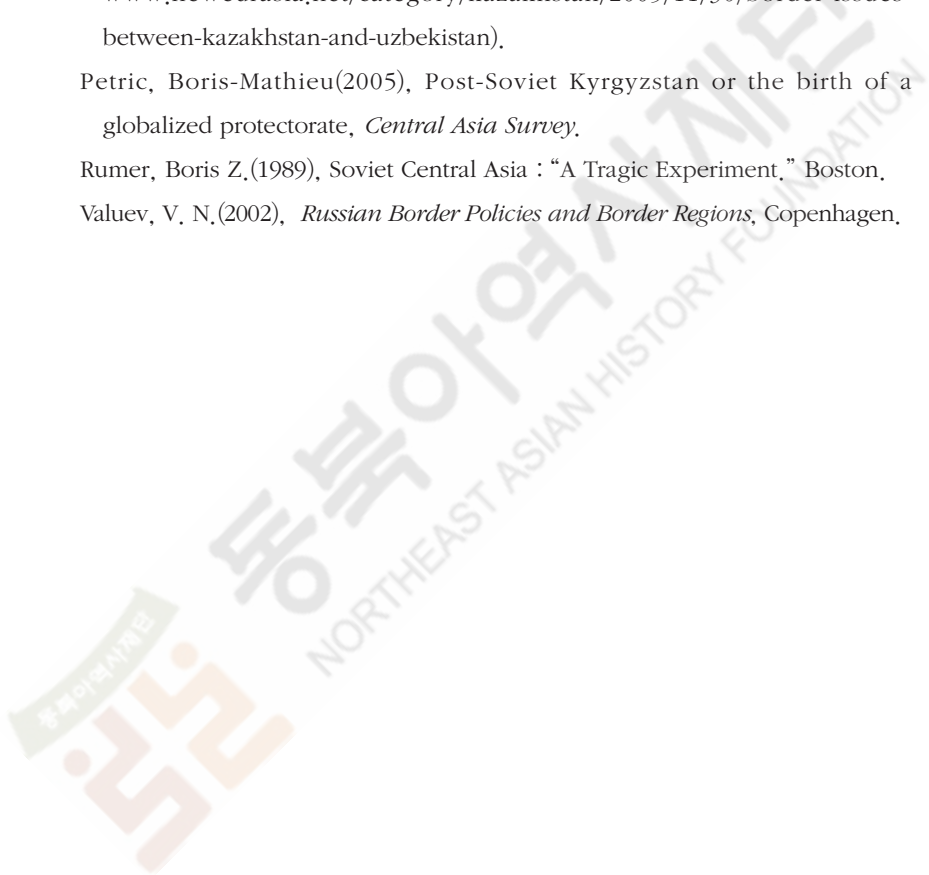
1937 год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 Приморье-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Сталинград (Депортация)(2004).

Central Asia : Border Disputies and conflict Potential//((4 April 2002), *International Crisis Group Asia Report No. 33.*

Golunov, Sergey, Border security in Centural ASIA : before and after september 11(http://se2.dcaf.ch/serviceengine/Files/DCAF/23780/ieventattachment_file/AFDC987B-5E15-4B55-A322-4740B44F0BD6/en/ev_reichnau_041105_papers_golunov.pdf).

Islam, oil, and geopolitics : Central Asia after September 11(2007), edited by Elizabeth Van Wie Davis and Rouben Azizian (Maryland : Rowman &

- Littlefield Publisher).
- Karaev, Zainiddin(2005), Border Disputes and Regional Integration in Central Asia, *Harvard Asia Quarterly* Vol. IX, No. 4.
- Lewis, Robert A. ed.(1992), *Geographic Perspectives on Soviet Central Asia*, London and New York.
- Nurzhan(2005), Border issues between Kazakhstan and Uzbekistan(<http://www.neweurasia.net/category/kazakhstan/2005/11/30/border-issues-between-kazakhstan-and-uzbekistan>).
- Petric, Boris-Mathieu(2005), Post-Soviet Kyrgyzstan or the birth of a globalized protectorate, *Central Asia Survey*.
- Rumer, Boris Z.(1989), Soviet Central Asia : "A Tragic Experiment." Boston.
- Valuev, V. N.(2002), *Russian Border Policies and Border Regions*, Copenhagen.



‘대(大)세르비아’를 위하여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세르비아 팽창 민족주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오승은

- I. 머리말 : 유고슬라비아 해체, 포스트-유고슬라비아 국경선 문제 그리고 전면전
- II. 역사적 배경 : 남슬라브인들의 공동국가 ‘유고슬라비아’
- III. 와해되는 유고슬라비아와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대두
- IV. ‘서진하는 세르비아’ : 크로아티아에서의 전쟁
- V. ‘서진하는 세르비아’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의 전쟁
- VI. 맺음말 : ‘대세르비아’에서 ‘축소된 세르비아’로

‘대(大)세르비아’를 위하여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세르비아 팽창 민족주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오승은

I. 머리말 : 유고슬라비아 해체, 포스트-유고슬라비아 국경선 문제 그리고 전면전

1991년 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해체된 유고슬라비아는 공산주의 붕괴의 와중에 해체된 유일한 다민족 연방은 아니다. 소연방이나 체코슬로바키아 연방도 유고슬라비아와 마찬가지로 해체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는 다른 연방국가의 해체와는 달리 엄청난 인적·물질적 희생을 동반했다. 같은 사회주의 연방인데도 체코슬로바키아는 평화적으로 해체되었다. 소련은 유고슬라비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이지만 온 나라가 전쟁에 동원되는 전면전을 겪지는 않았다. 이 두 나라와 대조적으로 유고슬라비아는 20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잔혹한 전쟁을 겪어야 했다. 이제는 유고슬라비아를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인종청소’를 동반한 전쟁이었다.

그렇다면 유고슬라비아는 왜 예외적일 정도로 피비린내 나는 전면전까지

치르며 해체되어야 했을까? 해체 원인에 대한 해석은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는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된 것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탈퇴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해 자연 붕괴되었고, 자신들은 자연사한 유고슬라비아에서 떨어져 나왔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고슬라비아 해체 전쟁도 ‘같은 나라의 구성원끼리 싸운 내전’인지 아니면 ‘다른 민족끼리 싸운 국제전’인지를 놓고 논쟁이 분분하다. 이렇듯 같은 상황을 놓고 의견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명백한 답을 찾기란 쉬운 작업이 아니다. 또한 유고슬라비아 해체 연구를 주도하는 서구 학계의 논의도 나뉘기는 마찬가지이다.¹⁾ 일부 서구 학계나 언론에서는 유고슬라비아 구성 민족들이 본래 지니고 있던 ‘폭력적 민족성향’이나 ‘수 세기간 지속되어온 민족 간(특히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민족 간) 집단적 증오’를 이유로 들기도 한다.²⁾ 그러나 민족국가 수립과 이를 위한 국경선 확보가 지극히 근대적인 속성의 문제임을 고려한다면, 이들 주장을 공정한 평가로 보기는 힘들다. 이들은 1,200년간 발칸반도에서 서로 뒤섞여 살았지만 별다른 갈등 없이 공존하였고, 민족 갈등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0년간의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근대의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중정치, 도시화, 산업화, 새로운 국

-
- 1) 유고슬라비아의 해체 원인에 대한 입장 차이는 유고슬라비아 연구의 대가라 할 수 있는 라메(Sabrina P. Ramet)의 연구를 참조. Sabrina P. Ramet(2004a), “For a charm of pow’rful trouble, like a hell-broth boil and bubble : Theories about the Roots of the Yugoslav Troubles,” *Nationalities Papers*, Vol. 32, No. 4(Dec.).
 - 2) 유고슬라비아 해체에 대한 서구 중심주의적 해석은 Robert Kaplan(1994), *A Journey Through History*, Vintage ; John Keegan(1993), “A primitive conflict only anthropologists can understand,” *Daily Telegraph*, April 15 ; John Keegan(1993), *A History of Warfare*, London, pp. 6·55~56 ; Mark Mazower(1998), *Dark Continent : europe’s twentieth century*, Vintage, Preface xiv에서 인용.

가 구조의 탄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³⁾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다민족·다종교' 동유럽에 민족 순수성에 입각한 민족국가 수립을 원칙으로 한 베르사유 체제에서 많은 책임을 찾아야 할 것이다.⁴⁾ 이렇게 일부 극단적인 서구 중심주의적 해석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서구 우파는 세르비아나 크로아티아의 민족주의 역할에 주목하는 반면, 좌파는 국제사회의 개입에 주목하고 있다.⁵⁾

이 글에서는 좀 더 쉽고 분명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유고슬라비아라는 퍼즐의 가장 큰 조각을 차지했던 세르비아를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 세르비아는 유고슬라비아 구성 최대 민족으로서,⁶⁾ 유고슬라비아의 형성과 발전뿐만 아니라 해체 과정과 해체 전쟁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부분은 “세르비아가 왜 유고슬라비아 해체의 주범으로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모든 세르비아인을 한 나라에 살게 하자”는 나름대로의 민족적 정당성을 가진 문제가 어떻게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이라는 팽창주의적·공격적 민족주의 프로젝트

3) Mark Mazower(1993), *The Balkans : From the End of the Byzantium to the Present Day*, Phoenix, pp.17~18.

4) Mark Mazower(1998), *Dark Continent : europe's twentieth century*, Vintage, 제 2장 Empires, Nations, Minorities 참조.

5) 세르비아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Sabrina P. Ramet(2004b), “A Theory about the Causes of the Yugoslav Meltdown : The Serbian National Awakening as a Revitalizing Movement,” *Nationalities Papers*, Vol. 32, No. 4(Dec.)에서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구 좌파가 유고슬라비아 해체를 이해하는 시각의 한 예는 Edward S. Herman and David Peterson(2007), “The Dismantling of Yugoslavia : A Study in Inhumanitarian Intervention(and a Western Liberal-Left Intellectual and Moral Collapse),” *Monthly Review*(Oct.).

6) 세르비아는 유고슬라비아 전체 인구의 34.8%(1991년 인구조사 결과)를 차지하는 최대 민족이었다. 그다음으로는 크로아티아가 18.9%로 2위, 보스니아 무슬림이 10.1%로 3위, 슬로베니아가 7.5%로 4위, 마케도니아가 6.6%로 5위를 차지했다.

로 성격이 변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르비아와 세르비아가 76년간 몸담고 있던 국가 유고슬라비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 개별 민족의 민족주의가 강한 발칸반도에서 왜 유고슬라비아라는 공동국가가 두 번씩이나 수립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세르비아 민족주의는 무엇을 추구하고자 했으며, 그것이 유고슬라비아를 구성한 다른 민족들의 민족주의와는 어떻게 충돌하게 되는지 고찰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세르비아가 1991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1992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전쟁을 일으키며 ‘대(大)세르비아’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세르비아인을 세르비아’에 통일시키겠다는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추구가 유고슬라비아가 처한 현실에서 비(非)세르비아 민족을 억압하고 절멸시키고자 하는 침략주의로 변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II. 역사적 배경 : 남슬라브인들의 공동국가 ‘유고슬라비아’

‘남슬라브인들의 나라’라는 뜻을 가진 유고슬라비아는 지구상에 두 번, 76년간 존속했다.⁷⁾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과정에서 수립된 제1차 유고슬라비

7) 1992년 수립된 신(新)유고슬라비아 연방까지 포함한다면 세 번이다. 그러나 신유고슬라비아 연방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연합으로 기존의 유고슬라비아보다는 훨씬 축소된 것일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세르비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확대된 세르비아에 가깝기에 본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신유고슬라비아 연방도 2005년 몬테네그로의 독립 선언으로 해체되었다.

아(1918~1941)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과정에서 수립된 제2차 유고슬라비아(1945~1946)가 바로 그것이다. 6~7세기 ‘남슬라브족’의 한 무리로서 현재의 발칸반도로 이주해 온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등은 이후 1,200년간 발칸의 중앙부 곳곳에 흩어져 살아왔다.⁸⁾ 그 기간에 이 남슬라브족들은 다른 문명권(동방정교, 서방 가톨릭, 이슬람)에 속하게 되었고, 다른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별개의 국가를 이루며 살아왔다.⁹⁾

남슬라브족이라는 같은 연원을 공유하지만 별개의 민족으로 별개의 국가에서 살아온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등이 다시 통일된 통합국가에서 살고자 한 것은 이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 즉 ‘국경선 밖의 자민족 통합’이라는 주요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잔틴, 오토만 투르크, 오스트리아-합스부르크 제국들의 잦은 침공으로 인한 피난과 제국들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인해 남슬라브인들은 빈번하게 이주해야 했다. 그 결과 세르비아를 비롯한 남슬라브인들은 한 곳에 정주하는 사람만큼이나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로 인해 세르비아인은 세르비아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도 살며, 크로아티아인은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보스니아에도 살게 되었다.

이런 문제가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19세기 민족주의가 동유럽

8) 불가리아도 ‘남슬라브족’의 일원이었지만, 유고슬라비아라는 공동국가 수립에서는 제외되었다.

9) 1014년 기독교가 동방정교와 서방 가톨릭으로 분리될 때, 그 분리선은 공교롭게도 이 남슬라브인들이 사는 지역의 한가운데(현재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관통했다. 그 결과 기독교 분리선의 동쪽에 위치한 세르비아는 동방정교 문화권에 속하게 되었고, 분리선의 서쪽에 위치한 크로아티아는 서방 가톨릭 문화권에 속하게 되었다. 여기에 다시 15세기 오토만 투르크 제국이 침입하면서, 다시 이슬람 문명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등은 원래의 (남)슬라브 문화를 근간으로 하여, 동방정교와 서방 가톨릭, 이슬람 문명의 교차되는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다.

에서 발흥될 때, 남슬라브인들 사이에서 민족주의 운동은 두 갈래로 나타났다.¹⁰⁾ 한편으로는 개별 민족 단위로 민족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탄생했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의 남슬라브인들은 모두 대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이들로부터 독립하여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슬라브인들의 통일’을 추구하는 범(汎)남슬라브주의 운동인 ‘유고슬라비아주의(Yugoslavism)’가 대두되었다.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살지만 원래 같은 연원을 공유하는 남슬라브인들 사이에 통일을 이루어 같은 나라에서 살자는 것이었다. 양대 민족주의 경향 중 유고슬라비아주의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지배하의 크로아티아에서 생겨나 전반적으로 크로아티아에서 우세한 민족주의 경향이었다. 반면 이미 민족국가를 이룬 세르비아에서는 세르비아주의가 우세했다. 세르비아는 발칸 민족 중에서는 처음으로 1815년부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작게나마 독립국가를 수립했다. 이제 세르비아의 꿈은 작은 독립국가를 확대시켜,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세르비아인들을 자신들의 나라에 모여 살게 하는 것이었다. 세르비아 국경선 밖의 세르비아인들을 통일시키는 것이 민족 최대의 화두가 되었다.

10) Ivo Banac(1994), *The National Question in Yugoslavia, Origins, History, Politics*, Ithaca and 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 Fred Singleton(1995), *A Short History of the Yugoslav Peop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ven, K. Pavlovitch(1998), *The Improbable Survivor Yugoslavia and Its Problems 1918~1988*, London : Hurst ; 두산 바타코비치 저, 정근재 역(2001), 『세르비아 역사』, 선인 ; Ivo Goldstein(1999), *Croatia A Short History*, London : Hurst & Company.

1. 제1차 유고슬라비아의 탄생 : 준비 안 된 공동국가와 민족 갈등

확대된 민족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던 세르비아는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범(汎)남슬라브주의로 선회하게 되었다. 세르비아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르비아인들을 비롯한 남슬라브인들이 독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큰 국가가 낫다는 전략적 필요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여기에 강대국들의 압력이 가해져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등은 개별 독립국가보다는 유고슬라비아를 수립하는 쪽으로 선회했다.¹¹⁾ 이렇게 복잡한 내적·외적 정치역학의 작용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과정에서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왕국이 탄생하게 되었다.¹²⁾ 세르비아의 입장에서 보면 ‘세르비아 밖의 세르비아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별로 믿질 것이 없는 거래였다.

별다른 준비 없이 탄생하게 된 유고슬라비아는 곧 구성 민족들 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인해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통일은 이루어졌다지만 사실상 유고슬라비아는 기존의 6개 국가와 그들이 속한 문화권(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이 병존되는 상황이었다.¹³⁾ 정치적으로 보면,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는 세르비아 정부가,

11) 유고슬라비아 탄생의 국제적 맥락에 대해서는 Ivo Lederer(1963), *Yugoslavia at the Paris Peace Conference*, New Heaven ; Mark Mazower(1998), *Dark Continent : europe's twentieth century*, New York : Vintage, pp. 73·78 참조.

12) 처음 명칭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삼왕국’이었으나 1929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개칭했다.

13) 유고슬라비아 역사에 대해서는 Sabrina P. Ramet(2006), *The Three Yugoslavs : State-Building and Legitimation, 1918~2005*, Indiana ; Fred Singleton(1995),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는 크로아티아 정부 구실을 하던 민족협의회가 존속되는 등 이중 정치체제가 유지되었다. 여기에 서로 다른 4개의 헌법체제가 3개의 은행체제, 4개의 철도망 체제, 5개의 화폐와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세르비아는 유고슬라비아 최대 구성 민족으로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벗어나기 위해 중앙집권화를 단행하여 하나의 통합된 국가를 만들고자 했다. 이런 이유로 유고슬라비아 국왕 알렉산더 1세(세르비아 출신)는 헌법 개정을 하며 개혁을 단행했다. 1921년 선포된 비도브단(Vidovdan) 헌법은 단일 민족, 단일 언어, 단일 국가라는 전제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¹⁴⁾ 1929년 국가명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삼왕국’에서 유고슬라비아로 개칭한 것도 통합된 국민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비(非)세르비아 민족에게는 세르비아 동화정책으로 비추어졌다.¹⁵⁾ 특히 유고슬라비아의 제2대 민족인 크로아티아인의 눈에 유고슬라비아 왕국은 사실상 ‘유고-슬라비아’가 아닌 ‘세르비아-슬라비아(Srbislavia)’와 다를 바 없었다.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를 다양한 남슬라브인들이 함께 모여 동등하게 살 수 있는 공동국가 혹은 연방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세르비아가 유고슬라비아 최대 민족으로서 헤게모니를 쥐고 중앙집권화를 주도하자, 크로아티아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런 입장 차이로 제1차 유고슬라비아는 민족 갈등이 끊이지 않았었다. 끝내는 1928년 크로아티아 농민당 당수 스테판 라디치(Stjepan Radić)가 국회에서 세르

제7장 The kingdom of Serbs, Croats and Slovenes 참조.

14) 두산 바타코비치 저, 정근재 역(2001), 앞의 책, pp. 334~335.

15) 제1차 유고슬라비아의 민족 갈등에 대해서는 Ivo Banac(1973), *The National Question in Yugoslavia*: George Schöpflin, “The Ideology of Croatian Nationalism,” *Survey*, Vol. 19, No. 1 참조.

비아 국회의원에겐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정쟁이 끊이지 않던 유고슬라비아 왕국은 1941년 독일의 유고슬라비아 침공이 시작되면서 해체되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독일 나치주의나 이탈리아 파시즘에 대항하는 항쟁만은 아니었다. 대독 항쟁 안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와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자, 세르비아 왕당파와 티토가 이끄는 빨치산 간의 싸움도 진행되었다. 유고슬라비아 왕국에서 세르비아의 독주에 극도로 반감을 갖고 있던 크로아티아의 극우 민족주의자들인 우스타쉬(Ustaši)는 나치 괴뢰정권을 세우며 세르비아 민족 말살 정책을 감행했다. 이에 맞서, 한편으로는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인 철티닉(Četnik)이 투쟁을 벌이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티토가 이끄는 빨치산 부대가 크로아티아 극우민족주의자들에 맞서 싸움을 벌였다. 나중에는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과 티토가 이끄는 빨치산 운동 간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삼파전의 최종 승자는 티토가 이끄는 빨치산 부대였다. 티토는 전쟁을 성공적으로 싸운 것에 힘입어 제2차 유고슬라비아를 수립하게 되었다.

2. 제2차 유고슬라비아 : 티토와 민족 갈등의 불완전한 봉합

티토는 유고슬라비아를 6개 공화국(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으로 이루어진 연방으로 구성했다.¹⁶⁾ 각 민족에게 자

16) 제2차 유고슬라비아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는 Jill Irvine A, (1993), *The Croat Question : Partisan Politics in the Formation of the Yugoslav State*, Boulder, San Francisco, Oxford : Westview Press,

결권을 인정해주는 연방안이 전쟁 중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무슬림 등을 다시 포섭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취한 결정이었다. 또한 유고슬라비아의 복잡한 민족구성 현실에 비추어 가장 현실성 있는 해결책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유고슬라비아는 ‘2개의 문자, 3개의 종교, 4개의 언어, 5개의 민족, 6개의 공화국, 7개의 접경국’을 둔 연방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연방 수립 후 티토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세르비아를 견제하기 시작했다.¹⁷⁾ 티토는 제1차 유고슬라비아의 실패가 세르비아의 헤게모니 장악에 따른 독주라고 판단하여 견제책을 실시했다. 티토의 대(對)세르비아 견제책이 잘 드러나는 것은 바로 세르비아 공화국 내의 자치주 설립이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소속된 공화국 중 유일하게 세르비아에만 북쪽에는 보이보디나(Vojvodina)를, 남쪽에는 코소보(Kosovo)를 자치주로 설립했다. 제1차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 세르비아의 힘을 대폭 줄이고자 한 조치였다.

세르비아가 견제를 받는다고 해서 비(非)세르비아 민족들의 세르비아 헤게모니에 대한 의심과 불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정치적 헤게모니는 견제 받는다 할지라도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중심지로서 세르비아가 누리는 경제적 특권은 만만치 않았다. 또한 세르비아인들은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NA)의 주요 주축을 이루면서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세르비아의 특권에 대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의 불만도 커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티토는 한때 연방의 수도를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사라예보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¹⁸⁾

17) 제2차 유고슬라비아의 전반에 대해서는 Sabrina P. Ramet(1992), *Nationalism and Federalism in Yugoslavia, 1962~1991*,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 Indiana University Press.



그림 1. 제2차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 민족과 비(非)세르비아 민족 간의 갈등은 적어도 티토가 유고슬라비아의 지도자로 살아 있는 한 봉합될 수 있었다. 봉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첫째, 티토 정권은 동유럽에서는 예외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소련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이끈 정권이기에 막강한 정통성을 행사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져 비동맹 맹주로서의 국제외교 무대를 누비고 다니는 티토에 대한 유고슬라비아 국민들의 자부심은 더욱 강화되었다. 둘째, 1948년 이후 소비에트 진영에서 이탈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위치를 이용한 서구 경제원조와 그에 힘입은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

18) Sabrina P. Ramet(1992), p. 24.

〈표 1〉 유고슬라비아의 민족 분포, 1992년 인구조사

(단위: %)

세르비아인	34.8
크로아티아인	18.9
무슬림(보스니아)	10.1
슬로베니아인	7.5
마케도니아인	6.6
알바니아인	93.0
헝가리인	88.9

〈표 2〉 유고슬라비아 각 공화국별 다수 민족 분포

(단위: %)

세르비아인	66.4 (코소보/보이보디나 빼면 85.4%)
크로아티아인	75.1
무슬림(보스니아)	39.5
슬로베니아인	7.5
마케도니아인	67.0
몬테네그로	68.5

었다. 티토는 “서방의 적대자 가운데 서방의 도움으로 정권을 유지한 최초의 공산당 지도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적극적으로 서구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¹⁹⁾ 그에 힘입어 생활수준은 급격히 향상되었고,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유고슬라비아 여권이면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된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굳이 내세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봉합은 봉합일 뿐이었다.

19) 두산 바타코비치 저, 정근재 역(2001), 앞의 책, 405~406쪽,

III. 와해되는 유고슬라비아와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대두

성공적으로 통합되는 듯했던 유고슬라비아의 민족 갈등은 1980년 티토가 사망하면서 다시 터져 나왔다. 1980년대부터 유고슬라비아는 높은 인플레이, 증가하는 실업률, 거대한 외채 등의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했다.²⁰⁾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을 가던 유고슬라비아인들은 이제 식료품을 사기 위해 자신들이 비웃던 다른 동유럽 사람들처럼 줄을 서야 했다.²¹⁾ 총체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가운데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다시 민족분규에 휩쓸리게 되었다.

가장 먼저 불만을 터트린 것은 티토에게 계속 견제를 받던 세르비아였다. 세르비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티토의 민족정책은 의식적으로 ‘세르비아’를 죽이려는 정책과 다름없었다. 특히 1974년 신헌법 채택 이후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군사권과 외교권을 제외하고 각 공화국은 이제 준국가(quasi-state)로 기능하게 되었다. 세르비아의 두 자치주, 보이보디나와 코소보조차도 공화국과 다를 바 없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문제가 된 것은 두 자치주는 세르비아 공화국의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세르비아는 두 자치주의 결정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20) Sabrina P. Ramet(1999), *Balkan Babel : The Disintegration of Yugoslavia from the Death of Tito to the War for Kosovo*, 3rd edition, Westview Press ; Lenard Cohen(1995), *Broken Bonds : Yugoslavia's Disintegration and Balkan Politics in Transition*, 2nd edition, Westview.

21) 2007년 필자가 베오그라드에서 만난 한 신진 학자는 “우리가 동유럽 사람들은 비웃은 대가를 지금 이렇게 전쟁과 전쟁 후의 빈곤한 삶으로 치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든다”라고 토로했다.

었다.²²⁾ 1986년 세르비아 예술과학 아카데미(SANU)가 발표한 비망록은 세르비아가 1974년 헌법을 어떻게 문제 삼았는지, 세르비아의 민족적 불만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유고슬라비아의 헌법 구조하에서 세르비아는 희생자일 뿐이며, 더 잘사는 북쪽 공화국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와 대비해서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유고슬라비아의 위기에 대해 세르비아가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연방을 다시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연방이 지나치게 느슨해져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인 만큼, 다시 강화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물론 유고슬라비아 안에서 세르비아의 힘은 다시 강화됨을 의미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 같은 비(非)세르비아 공화국들은 세르비아의 ‘연방안(federation)’을 받아들이지 않았다.²³⁾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입장에서 보면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재건은 사실상 세르비아의 재건과 다름없었다. 유고슬라비아가 아닌 ‘세르비아-슬라비아’를 의미했다.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연방제도 자체가 비효율적이어서 생긴 문제이므로 유고슬라비아를 국가연합으로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연합안(confederation)’을 내놓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유고슬라비아는 ‘연방파’와 ‘연합파’ 간의 대립으로 시달렸고, 결국 양측의 대립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달았다. 각 공화국 대표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논쟁은 1989년 공산주의 붕괴 후 각 공화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민족주의자들의 논쟁으로 옮겨갔다.²⁴⁾ 이제 세르비아의 지도자가 된 밀로셰비치와 슬로베

22) Stevan K. Pavlovitch(2004), “Serbia and Yugoslavia-The Relationship,”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Vol.4, No.1(Jan.), p. 104.

23) Marcus Tanner(1997), *Croatia A Nation Forged in War*, New He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니아의 밀란 쿠찬(Milan Kučan) 대통령, 프란요 투지만(Franjo Tuđman) 크로아티아 대통령으로 공은 넘어갔다. 결실 없는 협상은 1990년 내내 지속되었다.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자,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1991년 6월 25일 독립국가 수립 선언을 발표했다.

문제의 시작 : 시대착오적인 ‘대세르비아’주의의 재등장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가 불가피해지자, 세르비아에서는 ‘대(大)세르비아’주의가 다시 등장했다.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적인 엘리트들과 세르비아 지도자 밀로셰비치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 엘리트들은 변한 시대상은 생각지 않고 19세기 민족주의 목표를 20세기 말에 다시 실행하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인 목표를 추구하고자 했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적 야망이 강한 밀로셰비치는 더 많은 영토를 통치하겠다는 욕심에 ‘대세르비아’ 건설을 추진해 나갔다. 밀로셰비치의 목표는 세르비아 민족주의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헤게모니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다. 민족주의를 등에 업고서라도 권력의 아성을 지킬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밀로셰비치의 정치적 계산이었다. 이제 밀로셰비치에 의해 세르비아 민족주의 목표는 실행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갖게 되었고, 밀로셰비치는 철저히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켜 나가하고자 했다. 세르비아 민족주의가 밀로셰비치의 정치적 야망으로 오염되는 순간이었다.

- 24) 1990년 봄 유고슬라비아 내 공화국 전역에서 자유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를 통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무슬림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부상했다. 1987년 세르비아의 지도자로 부상한 밀로셰비치도 자유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았다.

세르비아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탈퇴한다면,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에 있는 세르비아 민족도 민족 자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각각의 공화국으로부터 탈퇴하여 모국인 세르비아 공화국에 합류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었다. 1974년 헌법에 명시된 연방 탈퇴권을 포함하는 자결권은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지 ‘공화국’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며 자신들의 크로아티아 탈퇴와 그 뒤에 이은 세르비아 공화국과의 통합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공화국 간 경계선을 바꾸겠다는 의도였다. 이것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슬로베니아에는 세르비아인들이 거의 살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는 달랐다. 이 두 공화국은 ‘세르비아 밖의 세르비아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세르비아인들은 크로아티아 인구의 11.6%, 보스니아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세르비아 밖의 세르비아인’들이 사는 지역을 원래 소속된 공화국에서 떼어내 세르비아에 통합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적어도 수백 년간 내려온 남슬라브인들 간의 국경선 그리고 46년간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부 국경선으로 인정받은 국경선을 다시 그리겠다는 의도였다.

밀로셰비치는 ‘대세르비아’ 건설을 오만할 정도로 자신하고 있었다.²⁵⁾ ‘모든 세르비아 사람들을 한 나라(세르비아)’에 살게 하기 위한 세르비아 민족주의

25) 밀로셰비치가 어느 정도로 자신하고 있었는지는 도청당한 그의 전화 통화에서 잘 드러난다. 1991~1992년 사이 밀로셰비치가 세르비아계 주요 인사들과 나눈 통화가 도청되었고, 2004년 6월 헤이그 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소(ICTY)에 증거로 제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밀로셰비치가 1991년 8월 보스니아 세르비아 지도자 라도반 카라쭌치(Radovan Karadžić)와 나눈 통화를 보면 “우리는 강력해. 우리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수립할 수 있어…… 누구든지 우리와 싸우고자 한다면 오라고 그래. 우리가 더 강력해”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Josip Gludrić(2009), “Inside the Serbian War Machine : The Milošević Telephone Intercepts, 1991~1992,”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February, p. 94에서 인용.

는 시대착오적인 목표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화국 간 전쟁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밀로셰비치는 자신이 있었다. 밀로셰비치가 자신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 5대 군대’로 손꼽히는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의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은 ‘티토’, ‘유고슬라비아 공산당’과 함께 유고슬라비아를 지탱해주는 3대 버팀목이었다.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은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면 자신들의 존재 이유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연방의 강화를 주장하는 세르비아 주장을 지지하고 있었다. 밀로셰비치가 처음에 내세운 것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강화와 보존이었기 때문에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은 자연스럽게 밀로셰비치의 목표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후에 유고슬라비아 인민군 지도부는 밀로셰비치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만, 이미 군 통제권은 밀로셰비치에 넘어가 있었다.

IV. ‘서진하는 세르비아’ : 크로아티아에서의 전쟁

밀로셰비치의 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세르비아의 서진(西進)을 추진했다. 세르비아가 목표로 하는 ‘대세르비아’는 구체적으로 본다면, 크로아티아에서는 동남부 지역(크라이나 지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면해 있는 동남쪽 지역)과 북동부 지역(슬라보니아 지역, 세르비아와의 북서쪽 국경지역)으로 확대되는 지역을 말한다(앞의 그림 1 크로아티아 부분 참조). 특히 크라이나(Krajina) 지역이 중요한 전쟁 목표로 떠오른 것은 이 지역이 세르비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지역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남쪽 경계선이 맞닿고 있는 지역이므로, 세르비아의 국경선이 중간에

끊이지 않고 연속해서 서쪽으로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동원과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들

크로아티아 전쟁의 주요 무대가 된 크라이나는 ‘보이나 크라이나(Vojina krajina)’, 즉 15세기에 세워진 ‘군사 국경’으로부터 유래하는 지역으로, 세르비아인들이 집단 거주를 해온 지역이다.²⁶⁾ 이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들(Croatian Serbs)은 밀로셰비치가 추진하는 세르비아의 영토 확대 프로젝트의 주요 교두보가 되었다. 이들에게 유고슬라비아는 자신들의 생존을 지켜주는 보호막과 같았다. 이들은 수백 년간 크로아티아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민족주의가 발흥될 때마다 자신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됨을 수 차례 경험해왔다. 가장 폭력적인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자 손에 의한 대량 학살 경험이었다. 그런 만큼 유고슬라비아 체제의 위기는 이들의 존재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모(母)공화국인 세르비아에서는 연일 밀로셰비치가 대규모 집회를 열며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선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세르비아 민족주의 공세의 주요 목표물이 되고 있었다.²⁷⁾

26) 오토만 투르크 제국이 발칸반도를 거쳐 서진(西進)함에 따라 합스부르크 제국은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에 현재의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영토에 군사 국경선을 세워, 세르비아인들을 이곳에 이주시켜 일종의 ‘인의 장막’을 형성하고자 했다. 이주해온 세르비아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며 이들에게 군사방어의 의무를 부과시켰다. 이후 많은 세르비아인들이 크로아티아 영토에 거주하게 되었다.

27) 전쟁 전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들의 혼란과 두려움에 대해서는 Jasmina Udovički & James Ridgeway ed.(1997), *Burn This House: The Making and Unmaking of Yugoslavia*, 제8장 Ejub Štikovac, “Croatia: The First War,” pp. 154~163 참조.



그림 2. 크로아티아에서의 전투지역

밀로셰비치는 60만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의 동원에 나섰다. 특히 전체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의 40%를 차지하는 ‘크라이나 세르비아인들’(Krajina Serbs)이 주요 공격 대상이었다.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크라이나 세르비아인들’은 밀로셰비치를 적극 지지하며 ‘대(大)세르비아’의 일원이 되고자 했다. 반면 60%를 차지하는 크로아티아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들은 크로아티아 국민이라는 정체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밀로셰비치에 동조하기보다는 경계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일부는 밀로셰비치의 민족주의 공세에 넘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신중함은 결과적으로 빛을 발하지 못했다. 밀란 마르티치(Milan Martić)와 밀란 바비치(Milan Babić)가 이끄는 분리와 ‘크라이나 세르비아인들’은 세르비아 비밀경찰과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의 지원하에 크로아티아 정부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들과 크로아티아 정부 간의 대립이 본격화된 것은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이 크로아티아에서 집권한 1990년 5월부터였다.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은 집권 후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세르비아 민족주의에 동원된 세르비아인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크로아티아 정부 내 강경파들이 주도해 세르비아인들을 정부, 경찰, 학교 등에서 숙청하는 상황에서 유화적 제스처는 그저 제스처로 받아들여질 뿐이었다. 1974년 헌법에 명시된 연방 탈퇴권을 포함하는 자결권은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지 ‘공화국’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며 자신들의 크로아티아 탈퇴와 그 뒤에 이은 세르비아 공화국과의 통합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이 탈퇴 옹호자들은 자신들보다 10배 이상이나 강한 크로아티아 정부군과 충돌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2. 전쟁의 발발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들은 1991년 8월 본격적인 전쟁 발발 전후로 4단계에 걸쳐 크로아티아 정부군과 투쟁을 벌였다. 제1단계는 1990년 4월 크로아티아 총선이 열린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6월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들, 즉 ‘크라이나 세르비아인들’은 세르비아인들의 집단 거주지역인 크라이나, 슬라보니아에서 세르비아인들의 ‘자치지역’ 설립을 선언하여 정치적 조직화에 나섰다. 정치적 조직화는 군사적 조직화와 발맞추어 진행되었다. 세르비아인 다수 지역에서 경찰관, 유고슬라비아 지역 방위 예비군, 지원자를 중심으로 하여 1만 2000명의 크라이나 민병대를 조직했다.

제2단계는 1990년 8월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들이 이른바 ‘발반혁명(balvan

revolucija)’이라는 것을 일으키며 시작되었다. ‘발반’은 세르비아어(혹은 크로아티아어)로 통나무를 의미하는데,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들이 통나무로 바리케이드를 쌓은 데서 나온 말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분리주의자들은 유고슬라비아 인민군 장교에 의해 무장되었다.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에 반대하는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은 자연스럽게 세르비아 편을 들게 되었고, 분리주의자들의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무장을 완비한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들은 크로아티아 경찰과 관리들을 반군지역으로부터 내쫓기 시작했다.

제3단계는 1991년 봄부터 시작되는데,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들은 드디어 크로아티아로부터의 탈퇴를 발표했다. 2월 21일 분리주의자들은 ‘세르비아 자치지역’ 설립을 선포하고, 한 달 뒤 크로아티아 공화국으로부터의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이 자치지역은 후에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epublic of Krajina Serbs)’으로 명칭을 바꾼다. 제4단계는 전면전이 발발한 시기이다. 크로아티아는 6월 26일 독립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맞추어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들은 크라이나 지역과 슬라보니아 지역에서 크로아티아군과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크로아티아 전쟁의 대명사로 불리는 슬라보니아의 작은 마을 부코바르(Vukovar)에서의 싸움을 보면 왜 유고슬라비아 해체 전쟁에 ‘인종청소’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인종청소는 “대량 학살과 추방, 의도적인 테러 행위, 약탈, 사회적 모욕, 집단 강간 등의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자기 지역이라고 인식되는 곳에서 다른 민족을 제거하는 정책을 의미한다.²⁸⁾ 베오그라드에서 80km 떨어진 부코바르는 1991년 7월 17일부터 유

28) Mark Mazower(2002), “Violence and the State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7, No. 4(Oct.), p. 1162.

고슬라비아 인민군과 밀로셰비치가 조직한 준군사조직(paramilitary) 체트닉(제2차 세계대전 대독일 항전을 한 세르비아 저항군의 이름에서 따옴)과 ‘티그레(Tigre, 호랑이들)’의 집중 포화공격을 받았다. 밀로셰비치는 자신의 군사 목표를 위해 유고슬라비아 인민군 외에도 별도의 준군사조직을 만들었고, 이들은 전쟁기간 내내 민간인 학살과 약탈 등을 저질렀다.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의 포화가 시작되자 부코바르의 주민들은 부코바르 병원의 지하로 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국 부코바르는 함락되었고, 병원에 있던 420명의 환자는 크로아티아 정부군하의 영토로 이송하기로 주선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0명의 성인 남자는 어디론가 끌려가 학살되었다. 그리고 1992년 부코바르에서 멀지 않은 오브차라(Ovčara)라는 곳에서 이들을 묻은 임시 공동묘지가 발견되었다. 이들뿐만 아니라 부코바르에 남아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처형되어, 부코바르는 그야말로 유명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세르비아군은 크로아티아 영토인데도 자신들의 전쟁 목표 지역에 사는 크로아티아인들을 내쫓고 죽였다. 전쟁 발발 6개월 만에 세르비아 반군들은 크로아티아 영토의 3분의 1에서 크로아티아인들을 ‘인종청소’한 것이다.

1992년 1월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는 유엔 주재로 크로아티아 정부군과 휴전에 조인했다.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는 휴전에 응하기는 하였지만, ‘대(大)세르비아 건설’에 동참한다는 이들의 전쟁 목표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 전쟁 발발 6개월간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는 크로아티아 영토의 26%를 차지하며 파죽지세로 크로아티아군을 물리치고 있었다. 크로아티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은 직후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는 자신들의 자치지역을 공화국으로 격상시켰다. 크로아티아 입장에서 보면 휴전과 함께 찾아온 것은 ‘반쪽짜리’ 독립이었지만, 세르비아 분리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확장된 세르비아 공화국에서 세르비아 국민으로 살 수 있는 꿈은 현실로

다가온 듯했다.

그러나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들의 꿈은 실현되지 않은 채 끝났다. 밀로셰비치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더 이상 ‘대세르비아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개입하고자 하지 않았고, 서방세계의 방관 속에서 밀로셰비치는 자신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 미국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밀로셰비치는 점점 더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밀로셰비치의 입장변화는 1995년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들이 크로아티아 정부군에 의해 참패당하면서 분명히 드러났다. 5월 크로아티아 정부군은 ‘번개(Bijesak)’ 작전을 감행하여 우선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들을 슬라보니아 지역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8월에는 ‘폭풍우(Oluja)’ 작전을 감행하여 작전 감행 48시간 만에 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 작전 감행 전에 크로아티아 대통령 투지만은 밀로셰비치의 의중을 타진했고, 밀로셰비치가 더 이상 이들 세르비아 반군지역에 대해 관심이 없음을 간파했다. 세르비아 반군 지도자들도 전혀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세르비아 민간인 1만 5000명은 크로아티아 정부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25만 명은 하루아침에 살던 곳에서 쫓겨나 긴 행렬을 이루며 세르비아로 쫓겨 갔다.

3. 국경의 확립과 인종청소된 세르비아인

‘대(大)세르비아’ 프로젝트는 크로아티아에서 실패로 끝났다. 2002년 크로아티아 인구조사에 따르면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의 수는 4%로 나타났다.²⁹⁾ 1991년 인구조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2%였다. 10년 만에 크

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들의 수가 3분의 1로 감소한 것이다. 전쟁에 적극 가담한 ‘크라이나 세르비아인들’뿐만 아니라 밀로셰비치에게 경계심을 보였던 도시 세르비아인들조차 크로아티아를 떠나야 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도시 거주 세르비아인들은 크라이나 지역의 세르비아인들과는 달리 크로아티아 실정법을 준수하며 크로아티아 시민으로서 살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이 크로아티아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냉대와 차별뿐이었다. 전쟁의 발발로 크로아티아 전역에서 반(反)세르비아주의가 팽배해지자 이들은 주요 공격의 목표물이 되었다. 수십 년을 크로아티아에서 살아온 세르비아인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민권(domovinka) 발급이 거부되기 일쑤였으며, 다니던 직장에서도 쫓겨났다. 공산주의 시절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이나 다른 정부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민족주의에 의해서만 정체성 구분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분리주의 ‘전쟁에 참여한 크라이나 세르비아인’이나 아니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세르비아인’이라는 구분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점점 더 배타적이고 국수적이 되어가는 크로아티아에서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밀로셰비치의 ‘대(大)세르비아주의’ 동원은 크로아티아가 순수 혈통의 단일 민족국가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공해준 셈이 되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들은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민족주의 게임의 희생자가 되었다.

29) “Croat census sparks ‘cleansing row’,” BBC News(May 23, 2002).

V. ‘서진하는 세르비아’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의 전쟁

1. ‘작은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

전쟁의 무대가 1992년 4월을 기점으로 크로아티아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이하 보스니아)로 넘어감에 따라 세르비아의 국경 확대를 위한 전쟁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다. 유고슬라비아 해체가 예상되면서 보스니아 공화국의 해체도 함께 점쳐졌다. 보스니아는 ‘작은 유고슬라비아’라는 별명이 말해주듯이, 유고슬라비아의 복잡한 민족구성을 축소판으로 보여준다. 보스니아는 ‘복잡한 다민족국가’ 유고슬라비아 안의 ‘가장 복잡한’ 다민족 공화국이었다. 그런 만큼 유고슬라비아의 정세변화가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는 곳이 보스니아였다. 보스니아 인구의 31%는 세르비아인으로, 이들의 탈퇴는 보스니아의 붕괴를 의미했다. 또한 보스니아계 세르비아 민족이 탈퇴한다면, 보스니아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크로아티아 민족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리는 없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세르비아인과 크로아티아인은 보스니아 무슬림을 두고, ‘이슬람으로 개종한 세르비아인’, ‘이슬람으로 개종한 크로아티아인’이라고 서로 주장하며 각축을 벌여왔다. 1960년 티토 정권하에서 보스니아 무슬림은 별개의 민족으로 처음 인정받았는데, 세르비아나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전쟁의 발발

보스니아에서의 전쟁도 크로아티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밀로셰비치의 사주를 받은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들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정치적·군사적 준비에 들어갔다. 1991년 4월 26일 라도반 카라취치 주도하에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은 ‘보스니아 크라이나 자치시(Municipal Community of Bosnian Krajina)’의 설립을 공표하고 보스니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바냐 루카(Banja Luka)를 본부로 선포했다. 이를 시작으로 자치지역은 1991년 가을까지 보스니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1991년 4월 7일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가 보스니아의 독립을 선언하자,³⁰⁾ ‘보스니아계 세르비아 자치지역’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공화국(Republika Srpska)’으로 승격 선포되었다.³¹⁾

3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의 무슬림 지도자인 알리야 이제트베고비치(Alija Izetbegović) 대통령은 2월 29일과 3월 1일 양일에 걸쳐 보스니아의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전체 투표자의 90%(총 유권자의 63%)의 지지를 얻어 3월 독립선언을 했다.

31)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들뿐만 아니라 보스니아계 크로아티아인들도 보스니아 무슬림 정부에 대해 전쟁을 일으켰다.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들은 서부 헤르체고비나에 헤르체그 보스나(Herceg Bosna)라는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크로아티아와 통일하고자 했다. 이들 간의 전쟁은 1993년 본격화되어 1994년 미국 주선의 워싱턴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지속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Seung Eun Oh(2001), “The Croatian Democratic Union and Croatian Nationalism,” *Department of War Studies*, King’s College London, 제6장 Unification Nationalism : The Croatian Democratic Union and The Pursuit of Greater Croatia 참조.

3. 보스니아의 인종 분포

그리고 바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들은 2년여 전부터 전쟁준비를 하고 있었다. 무기는 이미 1990년부터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의 개입하에 ‘람(RAM)’이라는 작전명으로 보스니아에 유입되고 있었다.³²⁾ 1991년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들의 자치지역이 수립되는 동시에 이들의 군대도 조직되었다.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의 군사 목표는 세르비아와 국경을 면하고 있는 보스니아의 동쪽 지역과 크로아티아와 국경을 면하는 북쪽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을 쟁탈하여 세르비아에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원래 목표는 보스니아 전역을 세르비아에 통일시키는 것이었지만 정부의 독립선언이 있자 계획을 축소하여 세르비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세르비아에 통일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온 보스니아계 세르비아군은 파죽지세로 영토를 확장해갔다. 전쟁 발발 1년 반 만에 보스니아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는 세르비아인들은 전체 영토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보스니아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에서도 가장 민족 분포가 복잡한 곳이었다.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이 많이 사는 곳이라 해도 세르비아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스니아 무슬림과 보스니아계 크로아티아 인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를 뒤집기 위해 보스니아계 세르비아 측은 ‘인종청소’를 실행했다. 일단 자신들이 목표로 삼는 도시나 마을을 포위하며 들어가 그곳에 사는 비(非)세르비아계 민족을 위협하여 내쫓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성인 남자들을 사살하거나 집단 수용소를 설치해 고문한 뒤 처형했

32) James Gow(2003), *The Serbian Project And Its Adversaries : A Strategy of War Crimes*, London : Hurst & Company, p. 174.

다. 보스니아 전쟁의 상징처럼 된 보스니아 동남부에 위치한 스레브레니차(Srebrenica)의 경우 1995년 7월 13~19일 사이에 7,200명 이상의 남자가 학살당했다. 여성들은 집단 강간을 비롯한 성고문의 대상으로 삼아, 임신시킨 뒤 중절이 불가능할 때까지 수용소에 수용한 뒤 풀어주었다.³³⁾ 무슬림 사회에 ‘세르비아 민족의 씨’를 퍼트리겠다는 의도로 저질러진 일이었다.

그러나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들의 민족주의 목표는 반쪽짜리 성공으로 끝났다. 1994년 여름을 기점으로 보스니아 무슬림 정부군은 전세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한 1995년 8월에는 나토군의 보스니아계 세르비아군 주요 거점 공습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군사적으로 수세에 몰리기 시작한 보스니아계 세르비아군은 그동안 거부하기만 했던 외교협상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1995년 11월 드디어 외교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맺는다. 전쟁 시작 3년 반 만의 일이었다.

4. 데이튼 평화협정과 보스니아의 실질적 분단

전쟁은 1995년 미국의 주선으로 종결되었다. 데이튼 평화협정(Dayton Peace Accords)은 보스니아에서 민족 간 대립을 종결시키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었다. 해결은커녕 보스니아 내의 민족 간 대립을 합법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확립시켰다. 데이튼 평화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보스니아를 실질적으로 분할시켰다는 것이다. 보스니아 세르비아인이 무력으로 세운 반군(叛軍)

33) Beverly Allen(1996), *Rape Warfare: The Hidden Genocide in Bosnia-Herzegovina and Croatia*, Minneapolis·London: Minnesota; CID(2000), *I Begged Them to Kill Me: Crime Against The Women of Bosnia-Herzegovina*, Sarajevo.



그림 3_ 실질적으로 분단된 보스니아

공화국 ‘레프블리카 스프스카(Republika Srpska)’는 무슬림과 크로아티아인들로 구성된 ‘보스니아 연방(Bosna I Hercegovina Federacija)’과 동등한 정치적 실체(the political entities)로 인정받았다.³⁴⁾ 보스니아 무슬림과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이 함께 세운 보스니아 연방도 사실상으로는 보스니아 무슬림이 담당하는 지역과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이 담당하는 지역으로 나뉜 상태이다.³⁵⁾ 보스니아 무슬림, 세르비아인(그리고 크로아티아인)이 각기 독립적으로 힘을 발휘하

34) ‘레프블리카 스프스카(Republika Srpska)’는 ‘세르비아 공화국’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이우한 모국(母國) 세르비아와 구분하기 위해 세르비아 원음 그대로 표기한다.

35) 보스니아 무슬림과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 간의 싸움은 1994년 4월 미국의 주선으로 체결된 워싱턴 협정(Washington Agreement)으로 종결되었다. 워싱턴 협정에 따라 보스니아 무슬림과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은 보스니아 연방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연방 자체도 60 : 40의 비율로 보스니아 무슬림과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는 2개(혹은 3개)의 독립정부가 있는 명목상의 통합국가로 전환된 것이다.

데이튼 평화협정의 원래 취지에 따르면 ‘레프블리카 스프스카’ 공화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보스니아 연방’으로 통합되어 단일 정부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종청소까지 감행하면서 수립한, 더군다나 이제는 국제사회의 인정까지 받은 ‘레프블리카 스프스카’ 공화국의 세르비아 정치 지도자들이 순순히 자신들이 쟁취한 권력을 양도할 리는 없었다. 그 결과 종전 14년째에 접어드는 현재도 ‘레프블리카 스프스카’ 공화국은 여전히 해체되지 않고 존속되고 있으며, 보스니아는 실질적 ‘분단국가’로 통치되고 있다. 그나마 이렇게 불안정 체제가 존속될 수 있는 것은 6만 명의 나토 평화유지군(S-For)이 파견되어 치안을 유지하고, 유럽연합 측에서 파견한 ‘고등대표(High Representative)’가 적대적 두 세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강력한 제3자의 개입이 없는 한 보스니아를 구성하는 두 정체(政體) 간의 간격이 좁혀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VI. 맺음말 : ‘대세르비아’에서 ‘축소된 세르비아’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시대착오적인 세르비아의 ‘대(大)세르비아’ 건설 프로젝트는 ‘대(大)실패’로 끝났다. 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 영토의 2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영토의 65%를 세르비아 영토에 통합시키고자 하였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르비아의 영토는 전쟁 시작 이전보다 오히려 축소되었다. 2005년 세르비아와 ‘신(新)유고슬라비아 연방’을 구성했던 형제 공화국 몬테네그로가 독립하였고, 2008년 2월에는 ‘세르비아 민족의 요람’이자, 세르비아 영토의 15%를 차지하는 코소보도 독립을 선언했다. 1990년대 세르비

아가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으켰던 민족주의 도미노는 결국 세르비아 안으로 옮겨 왔고, 그로 인해 세르비아 국경선은 확대는커녕 축소일로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비극적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분명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세르비아의 지도자 밀로셰비치이다. 밀로셰비치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오염시킨 주변으로 비판받는다. 유고슬라비아의 붕괴로 인해 ‘세르비아 밖의 세르비아인들’이라는 세르비아의 역사적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고, 세르비아로서는 당연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경주되어야 했다. 이 오랜 세르비아 민족 문제에 대해 밀로셰비치가 제시한 해결책은 ‘무력을 사용하여 국경선을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상대편 공화국, 즉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세르비아 국경을 서쪽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밀로셰비치가 선택한 ‘공화국 간 경계선을 무력으로 바꾸는’ 방법은 ‘세르비아 밖의 세르비아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당한 방법은 아니었다. 자신들의 영토주권을 침해당한 상대편 공화국이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밀로셰비치가 강행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세르비아의 힘과 무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즉, 무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경선을 무력으로 다시 그리고, 그 새로운 국경선 안의 사람들을 ‘인종청소’하는 무리한 국경선 확대 작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밀로셰비치는 결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밀로셰비치 사후에도 그가 남긴 ‘불행한 유산’들은 지속된다는 점이다. 2006년 3월 밀로셰비치는 헤이그 국제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문제들은 여전히 세르비아 사회를 괴롭히고 있다. 밀로셰비치의 ‘대(大)세르비아주의’ 정

책의 긴 희생자 목록에는 분명 64만 명에 달하는 세르비아 난민도 있다.³⁶⁾ 이 세르비아 난민들은 ‘먹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하는 일 없이 생존을 이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매년 8월 4일이 되면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 시내에서 세르비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회를 연다. 바로 1995년 크로아티아 정부군이 크라이나에서 감행한 ‘폭풍우 작전’으로 살해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함이다. 추모회가 열리는 교회 밖에서는 실종자들의 가족들이 크로아티아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인다. 그러나 정작 크로아티아 정부는 그날을 ‘승전 기념일’, ‘건군 기념일’로 기념할 뿐 이들의 문제 해결에 별다른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같은 민족임을 내세운 세르비아 지도자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인데도 내쫓고 추방한 크로아티아 지도자에게도 버림받았다. 하지만 세르비아 측의 크로아티아 비판은 힘을 신지 못하고 있다. 무모한 ‘대세르비아’ 건설에 세르비아 동포들을 동원한 것은 세르비아 지도자였으며, 그런 지도자를 지지하고 추종한 것이 바로 세르비아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르비아 밖의 세르비아인들’이 처한 상황은 ‘자민족 보호’라는 위대한 이상과는 달리 결코 자민족을 보호해주지 못한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어두운 면을 우리로 하여금 반추시켜보게 한다. ‘대세르비아주의’라는 시대착오적인 꿈을 다시 불러들인 대가를 너무나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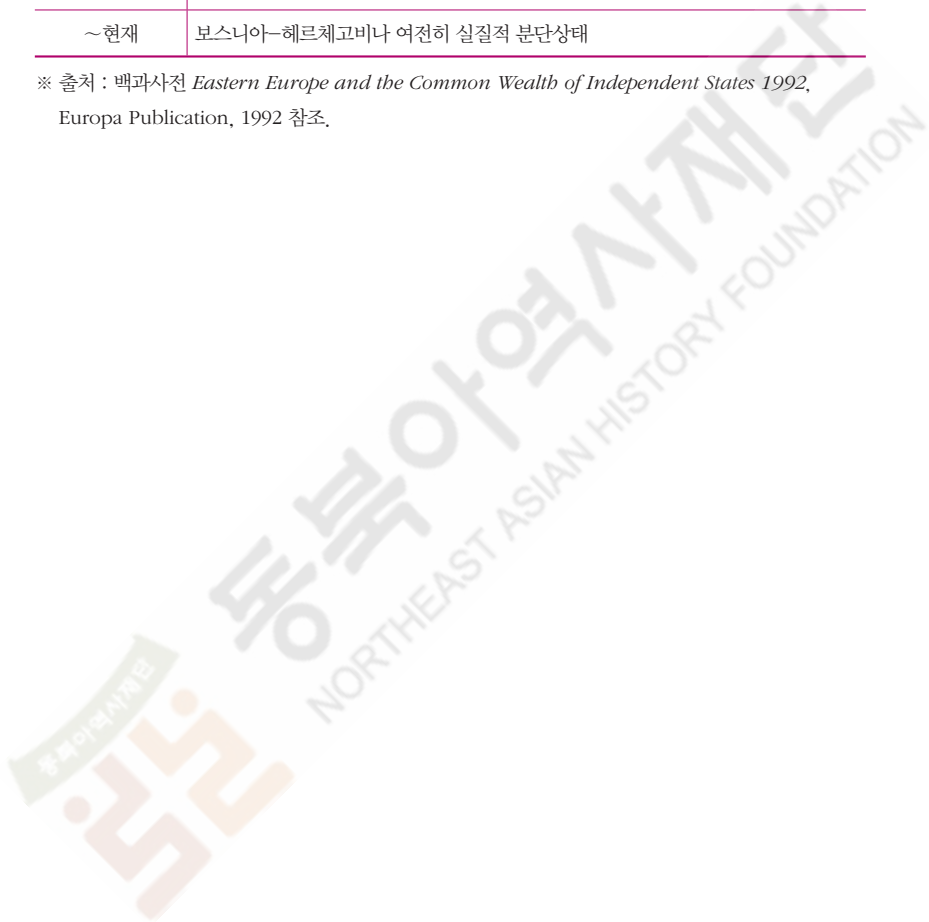
36) Julie Mertus, et al.(1997), *The Suitcase : Refugee Voices from Bosnia and Croat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유고슬라비아 해체와 해체 전쟁 연표

연도	개요
1974. 2. 21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신헌법 채택
	포스트-티토 체제를 위한 준비,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더욱 느슨한 국가연합(confederation)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
	세르비아의 두 자치 주, 보이보디나(Vojvodina)와 코소보(Kosovo)는 준공화국 지위로 승격
1980. 5. 4	유고슬라비아의 종신 대통령 티토 사망
1986. 2. 21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선출
1986. 9	세르비아 과학예술 아카데미(SANU) 비망록, 세르비아 일간지에 공표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억압받고 차별받는 세르비아 민족의 운명'이 주요 내용
1987. 4	밀로세비치 코소보를 필두로 보이보디나, 몬테네그로 등 유고슬라비아 전역에서 '진실의 집회'를 개최하며 세르비아 민족주의 동원에 나섬
1988. 6	대규모 파업, 급격히 떨어지는 생활수준에 대한 비판과 임금인상 요구
1989. 9	슬로베니아 의회, 슬로베니아 주권과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으로부터의 탈퇴권 천명
1990. 4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50년 만의 자유 총선거 실시, 야당(슬로베니아, <데모스(Demos)>,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민주연합(HDZ)>)이 공산당에 승리 거듭
1990. 5	세르비아 국민투표 실시 신(新)세르비아 공화국 헌법 승인, 신헌법하에서 두 자치주 보이보디나와 코소보의 자치권 박탈
1991. 6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공화국 독립선언
1991. 8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 자치지역 수립, 대(對)크로아티아 정부와의 전쟁 개시
1992. 1	유럽공동체(EC) 주선, 세르비아 반군과 크로아티아 정부 간 휴전협정 체결
1992. 4. 7	유럽공동체, 보스니아 독립 인정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 자치지역 수립 선포하여, 대(對)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와의 전쟁 개시
1992. 3. 18	포르투갈 외무장관 쿠틀레오(Cutileior)가 주선하는 평화협정안 발표,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과 보스니아 정부 간의 권력분배가 주요 내용
1993. 1~5	벤스-오웬 평화협정안 제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3등분할이 주요 내용, 보스니아 의회 거부

연도	개요
1995. 11. 21	미국 주선하의 데이턴 평화협정 체결, 보스니아의 사실상 분단 확정
	보스니아를 세르비아가 주도하는 '세르비아 공화국(레프블리카 스크프스카 공화국)'과 보스니아 무슬림이 관할하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의 분리 통치로 일단 시작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세르비아 공화국'과 '보스니아 연방'을 통합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
~현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여전히 실질적 분단상태

※ 출처 : 백과사전 *Eastern Europe and the Common Wealth of Independent States 1992*, Europa Publication, 199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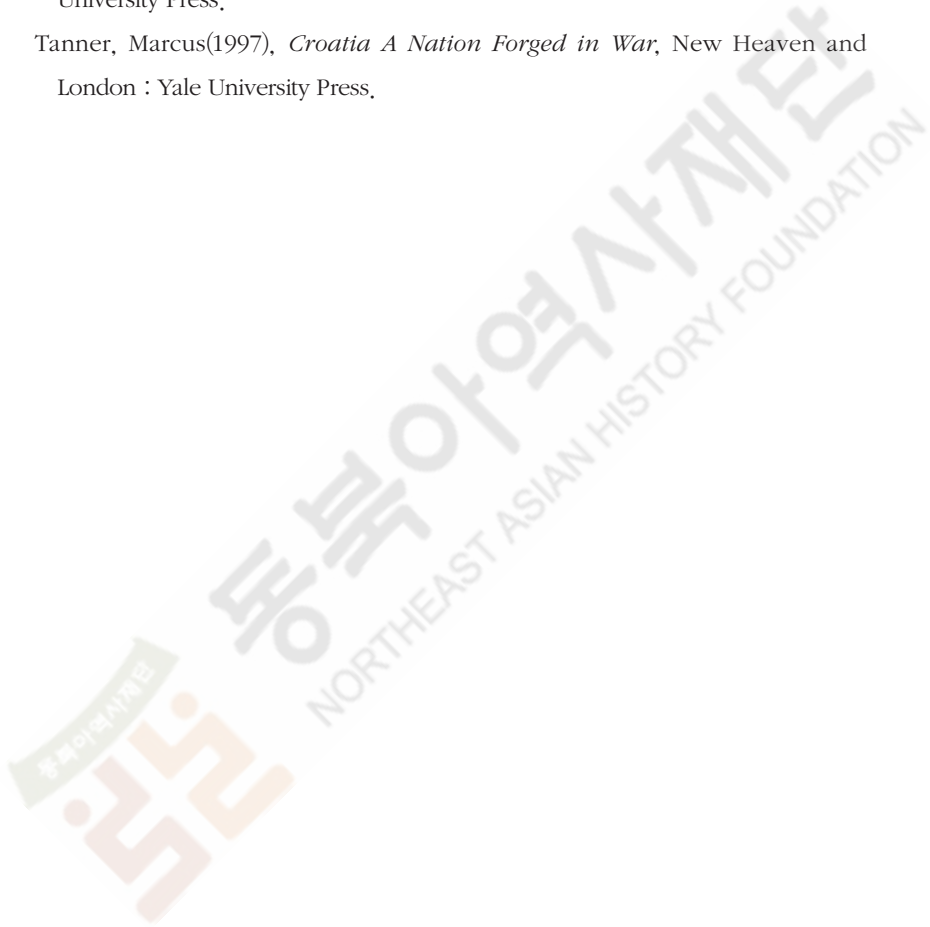


• 참고문헌

두산 바타코비치 저, 정근재 역(2001), 『세르비아 역사』, 선인.

- Allen, Beverly(1996), *Rape Warfare: The Hidden Genocide in Bosnia-Herzegovina and Croatia*, Minnesota, Minneapolis · London.
- Banac, Ivo(1994), *The National Question in Yugoslavia, Origins, History, Politics*, Ithaca and 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 CID(Center for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the Association of Former Prison Camp Inmates of Bosnia-Herzegovina)(2000), *I Begged Them to Kill Me: Crime Against The Women of Bosnia-Herzegovina*, Sarajevo.
- Cohen, Lenard(1995), *Broken Bonds: Yugoslavia's Disintegration and Balkan Politics in Transition*, 2nd edition, Westview.
- Goldstein, Ivo(1999), *Croatia A Short History*, Hurst & Company, London.
- Gow, James(2003), *The Serbian Project And Its Adversaries: A Strategy of War Crimes*, London : Hurst & Company.
- Irvine A., Jill(1993), *The Croat Question: Partisan Politics in the Formation of the Yugoslav State*, Boulder, San Francisco, Oxford : Westview Press.
- Mazower, Mark(1998), *Dark Continent: europe's twentieth century*, New York : Vintage.
- Mazower, Mark(2002), "Violence and the State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7, No. 4(Oct.).
- Oh, Seung Eun(2001), "The Croatian Democratic Union and Croatian Nationalism," *Department of War Studies*, King's College London.
- Pavlovitch, Steven K.(1998), *The Improbable Survivor: Yugoslavia and its Problems 1918~1988*, London : C, Hurst & Company.
- Pavlovitch, Steven K.(2004), "Serbia and Yugoslavia-The Relationship,"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Vol. 4, No. 1(Jan.).

- Ramet, Sabrina P.(1992), *Nationalism and Federalism in Yugoslavia, 1962~1991*,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 Indiana University Press,
- Ramet, Sabrina P.(1999), *Balkan Babel : The Disintegration of Yugoslavia from the Death of Tito to the War for Kosovo*, 3rd edition, Westview Press,
- Singleton, Fred(1995), *A Short History of the Yugoslav Peop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ner, Marcus(1997), *Croatia A Nation Forged in War*, New He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 찾아보기

<ㄱ>

갈리츠키(Галицкий) 119

강제이주 197

고대 미디어 156

고르바초프 161

고본질 205

공동국가 169

구토론 105, 106, 108~114

국민회의 165

굴리스탄 조약 159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 지역 187

그루지야 153

<ㄴ>

나고르노카라바흐 151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 173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 161

나르바 89

나르바강 81, 84

나리마노프 160

나토 268

나흐치반 160

남슬라브족 245

남오세티아 176

농업집단화 195

뉴그레이트 게임(New Great Game) 지역
188

<ㄷ>

다게스탄 157

다우가바(Daugava) 66

다우가바강 76, 81

다흐리크카라바흐 155

대북방전쟁 31

대(大)세르비아 255~257, 263, 270

대(大)세르비아주의 263, 264, 271, 272

데미르치안 163

데이튼 평화협정(Dayton Peace Accords)
268, 270

독소 불가침조약 70, 78

독소 비밀협정 63, 85

동유럽 연방(Międzymorze) 45

디미트로프(Г. Димитров) 105

<ㄹ>

라도반 카라쥐치 266
 라친 회랑 154
 러시아-투르크 전쟁 159
 러시아혁명 159
 레슈친스키 31
 레프블리카 스프스카(Republika Srpska)
 269, 270
 루블린 협정 28
 리가 조약 45
 리벤트로프-몰로토프 조약 75, 77
 리보니아 66
 리보니아 전쟁 27
 리스본 안 171

<ㄴ>

마드리드안 173
 메그리 173
 미개간지 개척 사업 198
 미에슈코 23
 민스크 그룹 169
 밀란 쿠찬 255
 밀로셰비치 254, 255, 257~259, 262~
 264, 266, 271

<ㄷ>

바기로프 163

바스마치 운동 192
 바쿠 151
 바트켄주 224
 바흐친(П. Бахтин) 131~133, 139
 반(反)세르비아주의 264
 발반 261
 발반혁명 260
 발트 공국 68
 발트의 길 78
 발트총회 78
 발트해 64
 베르사유 체제 243
 베지로프 163
 변경지역(border zone) 101, 103
 보스니아 256, 265~268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 268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들의 자치지역 267
 보스니아계 세르비아 자치지역 266
 보스니아 무슬림 269
 보스니아 연방(Bosna I Hercegovina
 Federacija) 269, 270
 보스니아 크라이나 자치시 266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26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57, 26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공화국
 (Republika Srpska) 26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영토 270

- 보이나 크라이나 258
- 보이보디나 250, 253
- 볼스키 164
- 부코바르(Vukovar) 261, 262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Брест-Литовск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 68, 82
- 비도브단(Vidovdan) 헌법 248
- 빨치산 249
- 〈스〉
- 사르키산 174
- 사산조 156
- 사유디스(Sajudis) 77
- 세르비아 243, 245~248, 250, 251, 253~257, 265, 267, 270, 271
- 세르비아 민족주의 258
- 세르비아 반군 263
- 세르비아 분리주의자 260~263
- 세르비아 예술과학 아카데미(SANU) 254
- 세르비아인 244, 267
- 세르비아 자치지역 261
-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epublic of Krajina Serbs) 261
- 셀주크 투르크 156
- 소크 223, 224
- 솔제니친 21
- 수보로프(А. Суворов) 118, 119
- 숨가이트 162
- 슈샤 160
- 스탈린 105, 106, 108, 111, 113, 160
-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 196
- 스테파나케르트 154
- 스피타크 164
- 슬라보니아 260, 263
- 슬라보니아 지역 257
- 슬로베니아 255, 256
- 시락 172
- 〈오〉
- 아간베얀 162
- 아그담 162, 167
- 아그데레·마르다케르트 167
- 아루튜난 163
- 아르메니아 151
- 아르메니아 민족운동 164
- 아르메니아 민주공화국 153
- 아르샤쿠니스 왕조 156
- 아르차흐 155
- 아우구스트 2세 31
- IMU 216, 224, 225
- 아제르바이잔 151
-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공화국 154
-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 164
- 아퀼라 174

안클라바(Анклава) 223
 알렉산더 1세 248
 알렉산드르 1세 34
 알렉산드르 2세 35
 알렉산드르 3세 37
 알렉세이 1세 29
 알마티 폭동 199
 알바니아 156
 알트란슈테트 조약 31
 알파벳 그룹
 압하지야 172
 야기에우위 왕조 28
 야조프 165
 예고르 리가초프 162
 예레반 151
 오세티아 158
 오슈 지역 222
 요가일라(야기에우위) 26
 우르미아 호수 155
 우스타쉬 249
 우호조약 160
 유고슬라비아 241, 244, 249~251, 253, 254, 265, 271
 유고슬라비아 연방 256, 257, 267
 유고슬라비아 왕국 247
 유고슬라비아 인민군 257, 259, 261, 267
 유고슬라비아주의 246
 유럽안보협력기구 169
 유럽안보협력회의 169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68
 유카리 155
 이란 153
 이반 4세 27
 이반 3세 27
 인민전선 76, 77, 78
 인종청소 241, 267, 271
 <ㄷ>
 자디드 운동 191
 자바도프 168
 자원외교 91
 자카프카지예 153
 자포로제 29
 잔게주르 154
 장젤란 173
 제브라일 173
 제19차 당 대회 199
 제2차 유고슬라비아 249
 제1차 러시아-페르시아 전쟁 159
 젤리고프스키 44
 지그문트 2세 아우구스트 27
 <ㄸ>
 차르다클리 162

- 체첸 157
- 체트닉 249, 262
- 추드호 82, 84, 88, 89
- <ㅋ>
- 카라바흐 국민회의 166
- 카라바흐 특별위원회 162
- 카를 12세 31
- 카투세프 151
- 카틴 숲 학살 49
- 갑카스 151
- 갑카스 남부 152
- 갑카스 남부지역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161
- 갑카스 지역 부로 161
- 갑카스 지역 안정과 협력 그룹 174
- 커즌 라인 40, 49
- 코소보 250, 253, 270
- 코스차쇼프(Ю. Костяшов) 133, 134, 135
- 코시치우슈코 34
- 코차란 171, 172
- 콜가노프(И. Колганов) 111, 124, 125, 140
- 쿠라(Kura)강 154
- 쿠바틀리 173
- 크라이나 260, 272
- 크라이나 세르비아인 259, 260, 264
- 크라이나 지역 257
- 크로아티아 248, 255~260, 270
-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 259, 260
-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71
- 크로아티아 정부 262, 272
- 크로아티아 정부군 263, 272
- 클라이페다(Klaipeda)항 82
- <ㅌ>
- 타르고비차 동맹 33
- 타지키스탄 내전 214
- 탈경제 역사학 103, 145
- 탈경제 역사학적 101
- 티키 153
- 테르페트로산 164
- 투르크만차이 조약 157
- 튜튼 기사단 107, 110, 114~116
- 트랜스드니에스트리아 172
- 트랜스코카서스 153
- 티토 249~253, 265
- <ㅍ>
- 파루틴(И. Фарутин) 123
- 파르하드담 221
- 파리 원칙 172
- 파벨 그라초프 168
- 페레스트로이카 161
- 페레야슬라프 협약 29

페르가나 계곡 201, 222, 223, 227
페르시아 156
페초르 84, 87
페틀류라 39
포고산 164
포그롬 21
폴란드 왕위계승전쟁 31
폴타바 전투 31
표트르 대제 158
표트르 1세 31
프란츠 투지만 255

프로이센 109, 111, 114~116, 118~121,
146
프스코프호 82
프이탈로보(Пыталово) 83
프이탈로보 지역 86
피우수드스키 38
피줄리 167

〈ㅎ〉
호잘리 151
호멜니츠키 29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32

엇갈린 국경, 길 잃은 민족들
-러시아와 동유럽의 사례

초판 1쇄 인쇄 2009년 12월 1일

초판 1쇄 발행 2009년 12월 7일

지은이 이종훈·박지배·윤용선·조준배·고가영·오승은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9

ISBN 978-89-6187-163-1-93920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